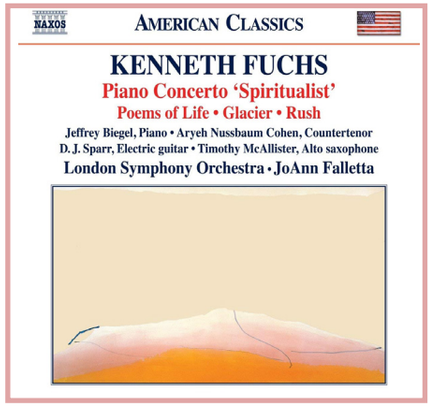



## 케네스 푹스:
## 피아노 협주곡(심령술사) & 인생의 시 & 빙하 & 러쉬

제프리 비겔(피아노), D.J. 스패르(일렉트로닉 기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조앤 펠레타(지휘)

**손에 잡힐 듯한 상상 속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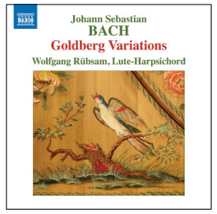
조앤 펠레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 레이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케네스 푹스와 이들의 인연은 2005년도 이래 호평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도에서부터 2017년 사이에 작곡된 협주곡 네 작품이 수록된 케네스 푹스의 낙소스 레이블 다섯 번째 음반은 30여 년간 이어온 조앤 펠레타와의 음악 여정을 기념하고 있다. 음반 재킷의 주인공, 헬렌 프랑켄탈러의 그림에 대한 인상이 담긴 피아노 협주곡 이외에도 일렉트로닉 기타, 성악, 알토 색소폰을 위한 협주곡은 동원된 악기의 범위만큼 이나 무궁무진한 상상 속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24 **[추천음반]**

#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슈만: 환상과 동화**
아스코 헤이스카넨(클라리넷), 레카 칠베이(바이올린), 드미트리 신코프스키(비올라), 알렉산더 루딘(첼로), 아포 하키넨(피아노)
시대 악기로 빚은 슈만의 '환상과 동화'
8573589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
볼프강 뤼브삼(류트-하프시코드)
그윽하고 여유있는 반향, 류트-하프시코드의 매력
8573921

**알렉산더 모이제스: 교향곡 3 & 4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라디슬라프 슬로박(지휘)
말러와 시벨리우스 색채에 담긴 슬로바키아 과거의 상흔과 극복의 염원
857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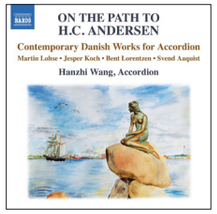
**클레멘티: 건반소나타(Op. 25-1 & 3, Op.33-2 & 3, Op.46)**
스테판 채플리코프(피아노)
협주곡을 연상시키는 스케일과 화려한 기교
8573712

**카를 리핀스키: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삼중주 작품집**
보이테크 프로니에비츠 & 아담 로지코프스키(바이올린), 얀 로지코프스키(첼로)
따뜻한 우수, 세련미를 갖춘 선율
8573776

**로베르 그로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 바이올린 협주곡**
조안나 쿠르코비츠(바이올린),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로베르 그로로(지휘)
몽환적인 보랏빛 인상과 차가운 음향, 다양한 색채들이 일으키는 파국의 인상
8573808

**체르니: 두 개의 화려한 삼중주 (Op.211) & 삼중주를 위한 세 개의 화려한 소나티네(Op.104)**
신선영(바이올린), 벤자민 하이에크(첼로), 새뮤얼 징어(피아노)
모차르트와 리스트에 걸쳐있는 체르니의 색다른 감각
8573848

**알렉산더 카스탈스키: 합창음악 작품집**
클라리온 과이어(합창), 스티븐 폭스(지휘)
1차 세계대전, 전몰자 추모를 위한 일생의 대작
8573889




**현대 덴마크 작곡가들의 아코디언 작품집**
왕한지(王寒之, 아코디언)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
8573904

**기타와 플루트 이중주 작품집**
후쿠다 신이치(기타), 쿠도 시게노리(플루트 & 알토플루트)
자유로움 그리고 영원함, 물의 인상
8573911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 배포 및 제품 판매처 ]**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7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7호 | September 2018

***Key Issue**

영상다큐멘터리 **'유자 왕의 눈동자 너머'** DVD, Blu-ray

Arthaus **드보르작 사이클 전집** 6DVD

EuroArts **유로파콘체르트 2018** DVD, Blu-ray

***Cover Story**

Dynamic **'파가니니 전작 녹음 음반' 40CD Box**

## Key Issue


영상다큐멘터리 '유자 왕의 눈동자 너머' DVD, Blu-ray ..... 3
Arthaus 드보르작 사이클 전집 6DVD ..... 47
EuroArts 유로파콘체르트 2018 DVD, Blu-ray ..... 91


## Cover Story


Dynamic '파가니니 전작 녹음 음반 40CD Box ..... 4-5


## CD


Alba ..... 6
Bach-Stiftung ..... 6
Belvedere ..... 7-8
Berliner Philharmoniker ..... 8-9
BR Klassik ..... 10
Capriccio ..... 11
Cedille ..... 12
Continuo ..... 12-13
Divine Art ..... 14
Doron ..... 14-15
Dynamic ..... 15-17
Gramola ..... 17
Hitasura ..... 18
Hortus ..... 18
IBS Classical ..... 19
Intergral Classic ..... 19-21
Kairos ..... 21
Klanglogo ..... 22
LPO ..... 22
MDG ..... 23
Naxos ..... 23-29
OpusArte ..... 30
Orchid ..... 30
Orlando ..... 31
Our Recordings ..... 31
Philharmonia Baroque ..... 32
Paladino ..... 32
RCO Live ..... 33
Resonus ..... 33-34
Rondeau ..... 35
SDG ..... 35
Skarbo ..... 36-38
Solo Musica ..... 38-39
Sono Luminus ..... 39
Tactus ..... 40
Tafelmusik ..... 40
Toccata Classics ..... 45


## 4K & DVD & Blu-ray


Busch Media **[4K]** ..... 41
Accentus ..... 42-44
Arthaus ..... 45-48
BelAir ..... 49-51
Belvedere ..... 52-58
C Major ..... 59-66
Dynamic ..... 67-69
EuroArts ..... 70-75
Farao ..... 76
Naxos ..... 77-79
OpusArte ..... 80-85


## LP


Berliner Philharmoniker ..... 89
EOS ..... 90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 건반 위의 공작새, 유자 왕은 고독할까? 영상다큐멘터리–'유자 왕의 눈동자 너머' (보너스트랙: 2016 잘츠부르크 실황)

1년 중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12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유자 왕(1987~)의 삶은 유목 생활 그 자체로 다큐멘터리(47분)는 그녀와 함께 하는 여정을 담는다. 흥미진진한 장소, 분장과 드레스, 연습실에서의 손가락 풀기, 임동혁과 가볍게 와인을 나누는 모습 등 그녀의 일상이 담겨 있으며, 그녀는 피로, 긴장, 외로움 등 인간적인 고백도 카메라 앞에 털어놓는다. 보너스 트랙은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42분). 리오넬 브랑기에/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거슈윈과 라벨의 협주곡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만나는 그녀의 연주는 뭔지 모를 고독의 여운과 진한 감동을 준다. 좀 남다른 유자왕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C Major 745408 [DVD]
C Major 745504 [Blu-ray]

**영상다큐멘터리 –**
**'유자 왕의 눈동자 너머'**
카라얀 · 래틀 · 아바도 · 바렌보임 ·
두다멜(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르네 콜로 · 알라냐(테너),
오터 · 코제나(메조),
플레트뇨프 · 우치다 · 키신(피아노),
벤게로프 · 길 샤함 · 무터(바이올린) 등

**[보조자료]**

1982년생인 윤디 리, 랑랑과 함께 중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유자 왕(1987~)은 핫한 의상과 스타일리시한 해석으로 집중을 한 몸에 받는 피아니스트다.

이 영상다큐멘터리는 유자왕과 함께 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1년 중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12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그녀의 삶은 유목 생활 그 자체다. 카메라는 유자왕의 뒤를 따라 흥미진진한 장소와 화려한 도시로 안내한다. 공연 전 분장과 드레스 고르기, 호텔방과 낯선 연습실에서의 치열한 연습, 아이패드에 담긴 악보를 보며 끊임없이 손가락 풀기 등 그의 아주 사소한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유자왕과 가볍게 와인을 나누는 임동혁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차로 인한 피로, 긴장, 외로움 등 그는 인간적인 고백도 카메라 앞에 털어놓는다. 유자왕의 고백은 카메라와 정면으로 마주한 인터뷰가 아니라, 그의 일상과 무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자연스럽게 흐른다.

"피아니스트는 항상 혼자 있어야하며 힘들고 외롭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은 거의 고립된 삶과 같아서,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음악이 있을 때 뿐이죠."

47분의 영상 다큐멘터리와 함께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 커플링되어 있다.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췄던 리오넬 브랑기에/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거슈윈과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만나는 그녀의 연주는 뭔지 모를 고독의 여운과 진한 감동을 준다. 좀 남다른 유자왕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 파가니니 음악의 명가 다이나믹(Dynamic) 창립 40주년 기념 파가니니 전작 녹음 음반 40CD 박스 [스페셜 가격]

40장의 CD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CD1~7), 바이올린과 기타 · 현악을 위한 작품(CD8~13), 현악 4중주(CD14), 실내악(CD15~17), 바이올린과 기타 2중주(18~26), 바이올린 무반주 독주곡(CD 27~28), 기타 독주곡(CD29~32), 희귀본 및 발굴 작품(CD33~35)으로 구성되었다. 파가니니에 있어서 견줄 사람이 없었던 루지에로 리치(1918~2012)의 24개의 카프리스(CD36)와 바이올린 협주곡(CD38), 살바토레 아카르도(1941~)의 음반(CD37), 훔멜 · 리스트 · 부소니, 슈만, 브람스 등의 거장들이 지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및 헌정작(CD39~40)도 수록되어 있다. 100쪽이 넘는 두터운 해설지는 파가니니의 작품목록집이자 작은 평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하나의 세트물로 모든 작품과 최상의 연주, 최고의 지적 산물을 한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Dynamic CDS 7734.40 [40CDs]

**파가니니 음악의 명가 다이나믹(DYNAMIC)**
**창립 40주년 기념**
**파가니니 전작 녹음음반 40CD 박스**
**(스페셜 가격)**
살바토레 아카르도 ·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치 · 프란코 메체나(바이올린), 마시모 콰르타(지휘 · 바이올린),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관련자료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xNJzFDfIfpo&feature=youtu.be

**[보조자료]**

파가니니(1782~1840)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바이올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파가니니야말로 바이올린의 역사상 확실한 이정표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음악가들은 그가 제시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바이올린의 근대기를 연 파가니니의 작품은 사후 사방으로 흩어졌고, 몇 개는 개인 수집가들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악보와 판본도 종종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1970년 경, 작품이 이탈리아로 돌아 왔을 때 이 같은 상황은 바뀌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다이나믹 레이블은 파가니니의 모든 작품을 하나의 세트로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파가니니의 전작을 녹음하고 출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다이나믹 레이블에 내놓은 기존의 파가니니 시리즈는 기타와 함께 하거나(Dynamic CDS157), 바이올린 협주곡(Dynamic CDS622) 중심이었다. 이와 달리 이 박스물은 파가니니의 전작을 총망라하고 있다. 파가니니를 진정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박스물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살바토레 아카르도, 마시모 콰르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치, 프란코 메체나 등 내로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빚어진 40장의 CD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CD1~7)을 비롯하여 기타와 현을 위한 작품(CD8~13), 현악 4중주(CD14), 실내악(CD15~17), 바이올린과 기타 2중주(18~26), 바이올린 무반주 독주곡(CD 27~28), 기타 독주곡(CD29~32), 희귀본 및 발굴 작품(CD33~35)으로 구성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비르투오소이자 파가니니에 있어서는 견줄 사람이 없었던 루지에로 리치(1918~2012)의 24개의 카프리스(CD36)와 바이올린 협주곡(CD38), 살바토레 아카르도(1941~)의 음반(CD37), 훔멜 · 리스트 · 부소니, 슈만, 브람스 등의 거장들이 지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및 헌정작(CD39~40)이 수록되어 있다.

100쪽이 넘는 두터운 해설지는 파가니니의 작품목록집이자 작은 평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하나의 세트물로 모든 작품과 최상의 연주, 최고의 지적 산물을 한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음반별 내용]**

**[CD 1] WORKS ON VIOLIN AND ORCHESTRA**
* Violin Concerto No. 1 in E flat Major M.S. 21
  1) Allegro maestoso/ 2) Adagio espressivo/ 3) Rondò, Allegretto spiritoso
* Violin Concerto No. 2 in B minor M.S. 48
  4) Allegro maestoso/ 5) Adagio/ 6) Rondò, Andantino – Allegretto moderato

**[CD 2]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 Violin Concerto No. 3 in E Major M.S. 50
  1) Andante -- Allegro marziale/ 2) Adagio/ 3) Polacca, Andantino Vivace
* Violin Concerto No. 5 in A minor M.S. 78
  4) Allegro maestoso/ 5) Andante un poco sostenuto/ 6) Rondò, Andante -- Allegretto

**[CD 3]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 Grand Concerto in E minor M.S. 75
  1) Risoluto/ 2) Adagio/ 3) Rondò ossia Polonese
* Violin Concerto No. 4 in D minor M.S. 60
  4) Allegro maestoso/ 5) Adagio flebile con sentimento/ 6) Rondò galante
* Adagio in E Major M.S. 49

**[CD 4]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1) Le Streghe M.S. 19*/ 2) Suonata con Variazioni M.S. 47/ 3) Non più mesta M.S. 22*/ 4) I Palpiti M.S. 77*
* Religiosa introduzione al Rondò del Campanello M.S. 67/1*
  5) Andante Sonnolento/ 6) Minuetto/ 7) Rondò della Campanella
* World première recording of the original version

**[CD 5]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1) Sonata Varsavia M.S. 57/ 2) Sonata Maria Luisa M.S. 79/ 3) Polacca con variazioni M.S.18
  4) Balletto campestre M.S. 74/ 5) Il Carnevale di Venezia M.S. 59 (O mamma, mamma ca)

**[CD 6]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1) Napoléon M.S. 5 (original guitar accompaniment by Paganini)*/
  2) La Primavera M.S. 73 (piano accompaniment by Giusto Dacci)
* Sonata movimento perpetuo M.S. 66, with Piano (original piano accompaniment by Paganini)
  3) Andante amoroso/ 4) Moto perpetuo, Allegro vivace/ 5) Maestosa Suonata Sentimentale M.S. 51

**[CD 7]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1) Tarantella M.S. 76/ Le Couvent du Mont St. Bernard M.S. 67 for violin, male chorus and orchestra/ 2) Andante sonnolento
  3) Pendule, Lento/ 4) Minuetto, Moderato/ 5) L' Aurora, Lento, Maestoso/ 6) Rondò del campanello

*~ 중 략*

## Alba www.alba.fi

NCD54

**인 루첨**

루미노스 여성합창단, 아보아 노바 앙상블, 일모 란타(피아노), 마르쿠 히에타하류(오르간)

**북유럽의 자연처럼 깨끗하고 맑은 음색으로 들려주는 사람의 목소리의 모든 것**

'빛'이라는 뜻을 가진 '루미노스'는 열 세명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여성합창단 중 하나이다. 이들은 북유럽의 자연처럼 깨끗하고 맑은 음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을 느끼게 한다. '빛 가운데'라는 뜻인 '인 루첨'이라는 제목의 이 앨범은 16세기의 윌리엄 버드와 빅토리아부터 오늘날의 휘태커와 기예일로까지 약 500년의 성가들을 수록했다. 르네상스의 규범적인 화음부터 로시니와 프랑크, 포레의 짙은 낭만, 휘태커의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웨버의 대중적인 감성까지, 루미노스는 사람의 목소리의 모든 것을 들려준다.

NCD55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울루 강의 얼음 깨기 & 살리넨: 바다의 노래 등**

카무 합창단, 페카 네벨룽(지휘)

**핀란드의 소녀들이 진정성 가득히 부르는 핀란드의 노래**

'카무'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유소년 합창단으로, 단원들은 미취학 소녀부터 청소년에 아우르며,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와 남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시벨리우스, 아울리스 살리넨, 라핀 요이쿠, 칼 보레니우스, 유시 아수 등이 작곡한 핀란드 노래로, 오랫동안 타 민족의 통치를 받아왔던 핀란드인의 독특한 한의 정서가 서려있다. 특히 합창으로 듣는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는 진정성 있는 감성이 목소리에 실려 새로운 감흥을 주며, 살리넨의 〈바다의 노래〉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연주되어 비현실적인 신비감이 극단에 이른다.

##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J.S. Bach-Stiftung
St.Gallen

B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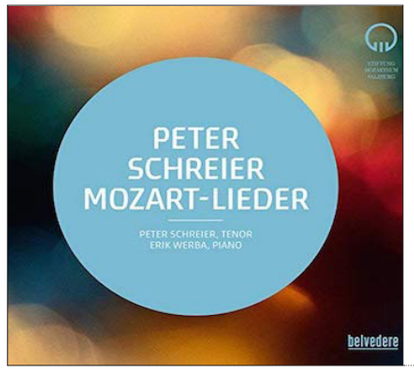
**바흐: 칸타타 23집(BWV. 109 & 164 & 187)**

모니카 모흐 & 올리케 호프바우어(소프라노),
루트 잔트호프 & 엘비라 빌(알토), 잔 뵈르너(콘트라테노르 알투스),
율리우스 파이퍼 & 야콥 필그램(테너), 마르쿠스 볼퍼트 & 도미닉 뵈르너(베이스),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의심을 뛰어넘어 오롯한 믿음에 이르는 여정**

바흐 재단의 '칸타타 23집', "나는 믿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신앙이 없는 저를 도와 주소서"(BWV.109),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 너희는"(BWV.164), "온 세상이 당신을 고대하나이다"(BWV.187)가 수록되었다. 작품의 면면은 고난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다. 고난 속 싹트는 의심과 근심, 구원을 갈망하는 절규는 이 모든 것을 애써 떼어내려는 몸부림과도 같다. 신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은 굳이 '절규'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의 섭리'를 긍정하게 된다. 〈욥기〉를 훑어보는 듯한 음반의 인상, 'BWV.187' 마지막 악장(코랄)의 오롯한 잔향이 더없이 감동적이다.

##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BVE08022

**모차르트: '클로에에게' 등 20곡의 가곡**

페터 슈라이어(테너), 에리크 베르바(피아노), 마르가레테 겝하르트(만돌린)

**낭만주의에 들어선 모차르트의 내밀한 가곡들**

낭만시대가 '나'를 노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가곡은 낭만시대를 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장르일 것이다. 모차르트의 가곡은 고전 시대에 꽃피고 있었던 낭만주의 음악의 새싹이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20곡의 노래는 이미 낭만주의로 들어선 시를 가사로 내밀한 감정표현을 구현하며, 벌써 슈베르트를 예견하고 있었다. 페터 슈라이어는 젊은 시절 베를린에서 최고의 모차르트 오페라 가수로 인정받았으며, 잘츠부르크 음악제에 매년 출연하여 최고의 모차르트 가수로 명성을 얻었다. 이 음반은 1978년 1월 모차르테움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했다.

BVE10145

**모차르트: 안단테와 푸가, 바이올린 소나타 32번/ 슈베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A단조**

에스터 호페(코스타 바이올린, 1764), 플로리안 비르사크(함머클라비어, 1839)

**모차르트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소나타들**

모차르트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지만 또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다. 그는 피에트로 안토니오 달라 코스타가 모차르트 생존 당시인 1764년에 제작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악기는 19세기까지 연주가 되었으며, 여러 개인 수집가를 거쳐 2013년에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재단에 기부되었다. 이후 모차르트의 코스타 바이올린은 100년만에 다시 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 음반에 그 소리를 담았다. 에스터 호페는 뮌헨 ARD 콩쿠르 우승자이며, 뮌헨 실내관현악단의 제1악장을 역임했다. 현재 모차르테움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이다.

BVE10148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5, 10, 12, 14번, 론도 K511, 환상곡 K475**

빌헬름 박하우스(피아노)

**낭만주의 시대의 한 페이지를 살았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의 올바른 고전 해석**

빌헬름 박하우스는 10세 즈음에 브람스가 지휘하는 관현악을 들었으며, 안톤 루빈스테인 콩쿠르에서 버르토크를 누르고 1등을 차지하는 등,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활동 영역은 전설 그 자체이다. 낭만시대에 교육을 받은 그는, 적지 않은 녹음을 통해 오늘날에도 고전과 낭만의 올바른 해석을 들려주고 있다. 이 음반은 72세 때인 1956년과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67년에 모차르테움 대강당에서 연주한 것으로, 완숙한 표현력과 안정된 해석에 더하여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정확한 리듬감과 강력한 타건을 들을 수 있다.

BVE10152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베르티멘토 '런던의 야상곡'**
클라라 하스킬(피아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하스킬과 카라얀이 함께 연주한 유일한 기록**
카라얀은 오랜 기간 베를린 필하모닉과 동의어였지만, 이전에도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아 유럽 각지에서 유수의 관현악단을 지휘했다. 이 음반은 1956년 '모차르트 주간' 중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대강당에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실황 녹음이다. 〈교향곡 39번〉은 생기 있는 리듬과 과감한 다이나믹으로 에너지가 가득하다. 〈피아노 협주곡 20번〉의 독주자는 클라라 하스킬로, 하스킬과 카라얀이 함께 연주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 음반의 음원이 유일한 기록이다. 이 녹음에서의 명료하고 우아한 사운드는 그녀의 명성을 확인시켜준다.

##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60093 [5CDs (Hybrid–SACD)]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레코딩**
베를린 필하모니가 그들의 상임 지휘자와 녹음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 앨범들은 항상 일종의 예술적인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말 사이먼 래틀과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은 청중과 평단으로부터 비르투오시티 넘치는 인상적인 연주와 더불어 작품에 혁명적일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5장의 CD와 블루레이, LP 포맷으로 발매된 바 있는 이 사이클이 이번에는 SACD 포맷으로 처음 발매되었다. 순수한 레코딩 퀄리티를 지향하는 이 레코딩은 원 포인트 마이크로폰 셋업을 통해 단 하나의 싱글 페어 마이크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서 필하모니의 고유한 어쿠스틱을 이례적일 정도로 적확하게 포착해 냈다.

**Ludwig van Beethoven: Symphonies Nr.1–9**
Berliner Philharmoniker/ Sir Simon Rattle(Conductor)

**(Solist)** Annette Dasch(Soprano)/ Eva Vogel(Mezzo-soprano)/ Christian Elsner(Tenor)/ Dimitry Ivashchenko(Bass)/
Rundfunkchor Berlin

BPHR160089 [2SACD]
**아바도 – 베를린 필 "라스트 콘서트"**

– 2 CD (Hybrid–SACD)
– Hardcover digibook
– 60 pages booklet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2013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함께 한 마지막 콘서트 실황**
카라얀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이끌었던 아바도. 래틀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간헐적으로 베를린 필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지만, 2014년 1월에 세상을 뜬 만큼 이 공연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즐겨 연주했던 두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부에서는 멘델스존의 부수음악 '한여름 밤의 꿈' 발췌를, 2부에서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 그것. '한여름 밤의 꿈'은 SONY 레이블로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전곡을 CD로 발매한 적이 있는 반면, 환상 교향곡은 DG에서 시카고 심포니와 CD를 녹음했을 뿐 베를린 필하모니커와는 음반을 제작한 적이 없다. 그러한 만큼 아바도가 베를린 필과 남긴 유일한 환상 교향곡으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이전 음반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생기차고 투명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어 전곡연주가 아님에 아쉬움이 남는다. 성악가로는 소프라노 데모라 요크와 메조 소프라노 스텔라 도우페시스가 함께 했다. 환상 교향곡은 아바도 특유의 디테일과 보다 강한 응집력 및 다이내믹이 인상적임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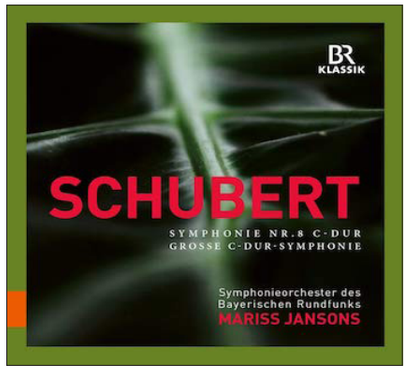
[Contents]

[CD 1]
MENDELSSOHN: **한여름 밤의 꿈**
Mendelssohn: A Midsummer Night's Dream - incidental music, Op. 61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Deborah York (soprano)
Stella Doufexis (mezzo-soprano)

[CD 2]
BERLIOZ: **환상 교향곡**
Berlioz: Symphonie Fantastique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325
**에디타 그루베로바**
에디타 그루베로바(소프라노), 뮌헨 방송교향악단
**1983~2000년의 실황 녹음을 모은 기념비적인 앨범**
전설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이자 최고의 벨칸토의 가수인 에디타 그루베로바와 뮌헨 방송교향악단이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연주한 실황 녹음을 모은 기념비적인 앨범이다. 깨끗하면서도 극적인 힘이 있으며, 고음에서도 정확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그녀의 음성은, 오페라에서는 드라마틱하면서도 연주회용 작품에서는 미적인 서정성을 들려주었다. 이 하나의 앨범에는 이러한 그녀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슈트라우스에서는 감수성 깊은 편안한 소리로 감동을 주며, 헨델,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에서는 화려하고 강력한 음성으로 영혼을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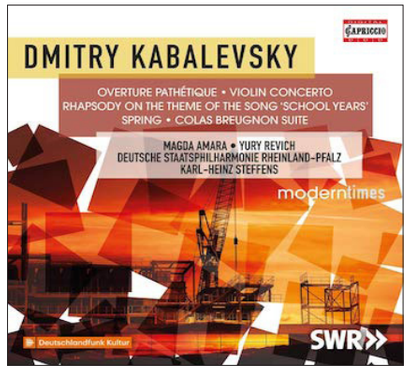

900169
**2018 헤라클레스홀 실황: 슈베르트 교향곡 8번 '그레이트'**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얀손스, 베토벤을 넘어 슈베르트로**
역사적인 실황을 공연 직후 신속히 발매하는 BR클래식의 2018년 2월 실황(뮌헨 헤라클레스홀)으로 슈베르트 '그레이트'이다. 그간 말러 · 브루크너 · 드보르자크 등 후기낭만주의에 집중해온 얀손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레이트'는 슈베르트가 평생 존경한 베토벤 교향곡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이 악단과 함께 한 베토벤 사이클 음반을 2013년에 내놓은 얀손스는 전작인 베토벤에서 보여준 힘과 정열을 연상시킨다. 힘차고 풍성한 템포감과 중후하고 섬세한 표정이 상생한다. 3 · 4악장에서 거친 파도처럼 치고 들어오는 저음현의 향연은 시원한 청량감마저 제공한다.

900164
**블롬슈타트,**
**2013 헤라클레스홀 실황: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 41번**
헤르베르트 블롬슈타트(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모차르트의 심연으로 안내하는 최후의 교향곡**
교향곡 40번과 41번 '주피터'는 모차르트가 1788년 6~8월에 짧은 시간동안 작곡한, 이른바 '최후의 3대 교향곡'에 속한다. "모차르트는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교향곡 40번에 쏟아 넣었다"라고 말하는 블롬슈테트의 생각처럼 그는 교향곡 40번을 불안과 초조의 기운으로 채운다. 블롬슈테트가 애호하는 브루크너, 시벨리우스 등에서 느껴질 법한 무게감이 인상적인 연주다. 41번 '주피터'는 신들의 제왕이었던 주피터의 이름에 걸맞게 웅장하고 장대한 사운드를 구사한다. 2013년 뮌헨 헤라클레스홀 실황으로, 무게와 진중함을 갖춘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 Capriccio www.capriccio.at

C7250 [14CDs] [SPECIAL PRICE]
**네빌 마리너/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녹음(1990–1994)**
네빌 마리너(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최고, 최상의 '네빌 마리너 메모리얼'**
네빌 마리너(1924~2016)가 1958년에 창단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ASMF)는 영국 클래식의 자존심이다. 카라얀 · 번스타인의 영웅주의가 판치던 1970~80년대에 ASMF의 투명한 합주와 중도주의적 해석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특히 마리너 · ASMF는 카라얀의 '최다 레코딩'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놓은 음반만 1000여종. 14장의 CD(종이케이스)로 구성된 이 박스물은 1990~94년에 녹음한 퍼셀 · 윌리엄 보이체 · 멘델스존 · 아돌프 아당 · 마스네 · 엘가 · 드보르자크 · 차이콥스키의 '관현악'으로만 채워진 값진 보물이다. 특히 차이콥스키의 전곡(1~6번)은 숨은 백미다. 해설지에는 트랙 · 작품해설(35쪽 분량/독 · 영어)이 수록.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녹음집(CAPRICCIO C7230)과 함께 해야 할 운명의 음반이다.

C5345
**브라운펠스: 마녀의 축제, 연주회용 작품, 헤브리디스의 춤**
타티아나 블로메(피아노), 라인란트–팔츠 독일국립관현악단, 그레고르 뷜(지휘)
**극적인 전개와 환상적인 내용, 풍부한 음향으로 압도하는 피아노 콘체르탄테**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발터 브라운펠스는 그동안 잊혀졌으나, 최근 그의 음악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바그너, 첨린스키, R. 슈트라우스 등 독일 후기낭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극적이고 환상적이면서 악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풍부한 음향을 만들어낸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은 이러한 극적인 특징이 매우 강하다. 〈마녀의 축제〉는 상상의 장면 묘사가 뛰어나며, 〈연주회용 작품〉은 과감한 제스처를 통해 강한 호소력을 들려준다. 〈헤브리디스의 춤〉은 민속적인 선율을 예술적으로 처리한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5347
**카발레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콜라 브뤼뇽' 모음곡, '학창시절' 광시곡, 비극적 서곡, 봄**
유리 레비치(바이올린), 마그다 아마라(피아노), 라인란트–팔츠 독일국립관현악단, 칼–하인츠 슈테펜스(지휘)
**20세기 러시아 낭만의 수호자였던 카발레프스키의 러시아적 판타지**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는 러시아의 민속적인 특징과 낭만음악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다. 첫 트랙의 〈비극적 서곡〉은 러시아 특유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며,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인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노래 '학창시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은 러시아 특유의 서정적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교향시 〈봄〉은 새소리를 상징하는 목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콜라 브뤼뇽〉의 감각적인 리듬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90000176

**스티븐슨: 클라리넷 협주곡, 클라리넷 소나타, 컬러, 마지막 노래, 환상곡 등**

존 브루스 예(클라리넷), 패트릭 고든(피아노), 레이크 포레스트 심포니, 시카고 프로 무지카

**음악의 즐거움을 전하는 스티븐슨의 클라리넷 음악**

제임스 M. 스티븐슨은 플로리다 네이플스 필하모닉의 트럼페터 출신으로, 2007년에 전업작곡가로 전향했다. 그는 강렬하고 감각적인 리듬과 관현악의 음색을 색채감 있게 사용하여, 시카고 심포니의 클라리넷 연주자인 존 브루스 예가 "협주곡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음반은 〈클라리넷 협주곡〉 등 최근의 클라리넷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화려하고 에너지가 충천한 독주악기의 멜로디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관현악과 피아노의 향연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앙상블곡 〈컬러〉의 파워풀한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표정의 대비도 인상적이다. **[세계 최초 녹음]**

## Continuo

www.continuoclassics.com

CC777704

**마르첼로: 리코더 소나타, Op. 2, 1집**

크리스티앙 망도즈(리코더), 무지카 안티쿠아 메디테라네아

**후기바로크의 화려한 장식과 리코더의 재기발랄한 음색의 아름다운 조화**

베네데토 마르첼로는 비발디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베네치아의 거장이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썼으며 오늘날에도 협주곡과 소나타가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 음반은 1712년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12개의 리코더 소나타집, Op. 2' 중 1, 2, 5, 8, 10, 12번의 여섯 곡을 수록하고 있다. 모음곡 스타일의 12번을 제외하고 모두 4악장의 교회소나타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후기바로크의 화려한 장식과 리코더의 재기발랄한 음색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크리스티앙 망도즈는 댄서 출신의 리코디스트로, 바로크 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춤곡 뉘앙스의 표현이 뛰어나다.

CC777705

**드뷔시, 포레, 피에르네: 바이올린 소나타 등**

크리스토프 지오바니네티(바이올린), 아오야기 이즈미코(피아노)

**슬픔을 머금은 음색으로 프랑스의 정취를 돋우는 지오바니네티의 바이올린**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가 있기까지에는 가브리엘 포레라는 뛰어난 선배가 있었다.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선율 중심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음악의 특징을 보여주며,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이를 훌륭히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드뷔시에게는 가브리엘 피에르네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었다.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드뷔시에 필적하는 영롱한 음색을 만들어내며, 다양한 표정으로 매순간 매혹적이다. 이와 함께 드뷔시의 〈음유시인〉, 〈렌토보다 느리게〉의 바이올린 편곡과 미완성이었던 〈세레나데〉의 완성판도 수록되어 앨범의 가치가 높다.

CC777706

**랄로: 피아노 오중주, 피아노 삼중주 1번, 바이올린 소나타 등**

도리앙 라모트, 아녜스 르베르디(바이올린), 마르크 데스몽(비올라), 플로랑 오디베르(첼로), 프랑수아 뒤몽(피아노)

**〈스페인 교향곡〉의 랄로가 주력했던 또 하나의 장르, 실내악의 걸작**

에두아르 랄로는 〈스페인 교향곡〉과 〈첼로 협주곡〉 정도가 연주되고 있지만, 오페라와 협주곡, 실내악 등의 장르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 이 앨범은 〈피아노 삼중주 1번〉과 〈피아노 오중주〉,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고 네 개의 소품들을 수록했다. 랄로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 생상스에 비견되는 인물로,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하던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빈 고전 스타일을 추구했지만, 〈삼중주〉와 〈오중주〉를 거치면서 점차 자유롭고 감성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기타레〉와 〈시골의 노래〉에서 품격 높은 민속 스타일의 작품도 들을 수 있다.

CC777720

**베토벤: 목관과 피아노를 위한 오중주/반할: 클라리넷 소나타 1, 3번**

디디에 카스텔-자코맹(피아노), 게르트 베켈란트(클라리넷), 카탈파 목관사중주단

**빈 고전 음악의 정신을 들려주는 반할과 천재성이 돋보이는 초기 베토벤의 실내악**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 요한 밥티스트 반할은 빈에서 하이든과 함께 활동하며 빈 고전 양식이 꽃필 때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이후에도 모차르트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보았고, 베토벤이 빈에서 명성을 키워갈 때에 그 곳에 있었다. 이렇게 반할은 빈 고전 음악의 흥망성쇠를 겪은 인물로, 이 음반에 수록된 그의 두 클라리넷 소나타는 가볍고 감성적인 빈 고전 음악의 정신을 들려준다. 함께 수록된 베토벤의 목관과 피아노를 위한 〈오중주〉는 베토벤의 26세 때였던 1796년 작품으로, 다양한 표정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천재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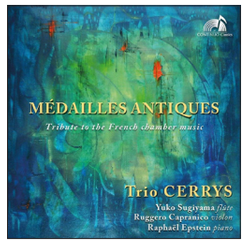
CC777725

**뒤포르: 프러시아 왕에게 헌정하는 여섯 개의 첼로 소나타**

라파엘 피두(첼로), 케이 우에야마(클라브생), 파스칼 조파르(첼로)

**1780년, 당시 첼로 연주의 모든 것을 담아낸 보물 창고**

장-피에르 뒤포르는 19세에 프랑스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콩세르 스피리튀엘에 합류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 등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했던 프러시아의 프레데리크 2세의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수석을 맡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베를린에서 지냈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프러시아의 왕에게 헌정하는 여섯 개의 첼로 소나타〉는 프레데리크 2세를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모두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세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느린 선율이 특히 아름답다. 또한 특히 3악장에서 들려주는 다양한 기교와 음색은 당대로서는 획기적이었다.




CC777726

**오래된 메달**

스기야마 유코(플루트), 루제로 카프라니코(바이올린), 라파엘 엡스테인(피아노)

**바로크부터 근대까지 프랑스의 실내악을 조망할 수 있는 뜻 깊은 앨범**

플루트와 바이올린, 피아노로 구성된 '트리오 세뤼스'가 프랑스의 실내악을 조망할 수 있는 뜻 깊은 음반을 내놓았다. 바로크시대의 장-마리 르클레르와 낭만시대의 르네 드 부아드푸르, 근대의 앙리 라보와 필리프 고베르, 자크 이베르에 이르며, 러시아 5인조의 일원이지만 프랑스인 아버지를 두었던 세자르 큐이도 포함되어있다. 스기야마의 플루트는 따뜻하고 중후한 멋이 있으며, 카프라니코의 바이올린은 감정을 실어 음악의 풍미를 더한다. 엡스테인의 피아노는 두 독주 악기를 충실히 반주하면서 이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조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5179

**주니퍼 프로젝트 – 단편들**

**주니퍼의 정취 – 플루트와 하프의 강렬한 인상**

주니퍼(향나무)는 고대 그리스 이래 약재 또는 향신료로 유명하다. 플루티스트 안나 로사 마리와 하피스트 에이라 린 존스가 참여한 주니퍼 프로젝트 첫 번째 음반은 주니퍼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지중해의 인상, 그리스 신화 등)와 이들을 잇는 단편들(간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우스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연주되는 드뷔시, 루토스와프스키, 존 루터 등의 작품들은 짧지만 음반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기적이고 강렬하다. '주니퍼' 열매의 인상을 음악으로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음반이다. 마지막 트랙, 존 마슨의 작품처럼 플루트와 하프의 '멈추지 않는 대화'를 계속 기대해 봄직하다.

## Doron

www.doronmusic.ch

DRC3009

**샤콘느(무반주 바이올린)**

길렐스 콜리아드(바이올린)

**여러 작곡가들의 샤콘느 모음집**

3박자 스페인 춤곡 샤콘느,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한 슬픔의 결정체 – 비탈리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비탈리 이외에도 제미니아니, 바흐, 헨델, 바르톡 등의 작곡가들도 샤콘느를 작곡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길렐스 콜리아드는 자신의 작품을 포함해 위에 열거한 작곡가들의 샤콘느를 음반 한 장에 담았다. '슬픈 인상'을 표현하는 작품들의 색채는 각기 다르다. 감상하는 내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다가가는 여정은 차분히 주변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선사한다. 감상과 소장을 추천하고 싶다.

DRC3059

**슈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트룹–브라운 첼로 이중주단(연주)

**영혼의 교감을 연상시키는 첼로와 피아노의 어울림**

DORON 레이블을 통해 브람스, 힌데미트, 포레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을 선보이고 있는 트룹–브라운 이중주단의 슈만 작품집이다. 카메레타 베른, 오스트리아 현악 사중주단에서 활동했으며, 스위스 올롱 가을 뮤직 페스티벌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니얼 브라운과 음악 교육(특히, 실내악)에 헌신하고 있는 이사벨 트룹은 실내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면모답게 담백하고도 깊은 교감을 보여준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보에 & 클라리넷 & 호른의 원곡 버전도 뛰어나지만, 슈만의 분신인 첼로와 피아노의 어울림은 영혼의 교감을 연상시켜 한층 깊게와 닿는 멋이 있다.

DRC4020

**그리그: 피아노협주곡(Op.16),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Op.25)**

메나헴 프레슬러(피아노), 빈 축제 오케스트라 &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연주), 장–마리 오베론 & 한스 스바로프스키(지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의 폭발적인 타건, 혈기왕성한 한 때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

작년 파시피카 사중주단의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보자르 트리오의 창단 멤버 중 한 사람, 메나헴 프레슬러의 음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이름(면모)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DORON 레이블에서 출시한 메나헴 프레슬러의 1965 & 1966년도 녹음은 젊은 시절 명연주자의 면모 그리고 보자르 트리오에 가려진 '폭발적인 타건'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기록이다. 그리그와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2악장의 그윽한 반향은 사색적인 색채를, 1 & 3악장의 질풍노도처럼 휘몰아치는 흐름은 연주자의 비르투오소 시티를 극대화한다. 시간의 흐름 탓 빛바랜 선명도에도 불구하고 연주자의 면모를 발견하기에는 부족함 없다. 강력 추천한다.

DRC5047

**여행으로의 초대**

카티아 브라운슈바일러(피아노)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색채로 편곡된 영국 & 미국 & 캐나다 지역의 민요와 전승 가곡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피아니스트 카티아 브라운슈바일러의 리사이틀 앨범이다. 자신의 음악 세계로 감상자를 초대하는 본 음반에서 그녀는 스카를라티, 슈베르트, 쇼팽, 라벨의 작품을 선택했다. 양손의 균형과 또랑또랑한 터치가 빚는 청아한 반향, 어둑어둑해지는 해질녘 시선의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그녀의 연주는 특히 슈베르트에서 빛을 발한다. 익숙한 작품들, 연주자가 초대하는 '음악의 여정'에 부담 없이 응할 수 있는 음반이다.

## Dynamic

www.dynamic.it

CDS7821

**바흐: 하프시코드 협주곡 BWV1052, 1055, 1059, 1060 (만돌린 편곡)**

다비데 페렐라, 도리나 프라티(만돌린), 프로필리 바로키

**손으로 연주하는 만돌린의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페렐라의 편곡**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만돌린 연주자인 다비데 페렐라가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직접 만돌린 협주곡으로 편곡하여 녹음했다. 하프시코드는 건반을 누르면 현을 뜯어 연주하도록 장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돌린이 소리 내는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 만큼 만돌린 편곡은 원곡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만돌린의 조금은 다른 음색과 손으로 전하는 섬세한 표현으로 새로움을 준다. 이 음반은 한 파트를 한 악기로 연주하는 최소 편성과 바소콘티누오를 오르간으로 연주함으로써 독주와 앙상블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음색의 조화와 실내악적인 투명한 구조를 들려준다.

CDS 7808.02 **[2CDs] [추천음반]**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칸타빌레, 광시곡 24번 등**

마리오 호센(바이올린), 루드밀 페트코프(피아노), 불가리아 국립 방송관현악단, 나이덴 토도로프(지휘) 등

**천재적인 멜로디 작곡가 파가니니의 아름다운 선율에 취할 시간**

니콜로 파가니니는 비르투오소의 기준을 제시한 초기교의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천재적인 멜로디 작곡가였다. 어떤 곡도 아름답지 않은 곡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곡들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하다. 매우 유명한 〈칸타빌레〉와 〈광시곡 24번〉은 파가니니의 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며, 〈봄〉과 〈무궁동 소나타〉의 서정적인 표현과 〈나폴레옹〉와 〈장엄한 비극적 소나타〉의 장엄한 분위기, 〈설레임〉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장식 등은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또한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은 교향곡에 필적하는 규모와 음악적 내용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CDS 7817

**스메타나: 현악사중주 1, 2번, 희극배우의 춤과 폴카('팔려간 신부' 중)**

에네르지 노베 사중주단

**낭만시대의 숨겨진 보석에 새로운 빛을 비춘 호연**

스메타나는 교향시 〈나의 조국〉과 오페라 〈팔려간 신부〉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실내악곡들은 그야말로 낭만시대의 숨겨진 보석들이다. 그 중에서도 두 개의 현악사중주곡은 독보적인데, 〈나의 조국〉이 대외적인 메시지라면 '나의 삶에서'라는 제목의 〈현악사중주 1번〉은 이에 대응되는 내면의 목소리이다. 〈현악사중주 2번〉은 1번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성숙한 품위와 풍부한 화음, 산뜻한 리듬으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에네르지 노베'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는 이름에 걸맞게 활력이 넘치며, 이 작품들이 가진 드라마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CDS 7819

**18세기 나폴리의 플루트 소나타들**

레나타 카탈디(바로크 플루트), 레오나르도 마사(첼로), 데보라 카피타니오(첸발로)

**18세기 중후반 나폴리에서 명성을 얻었던 다섯 작곡가들의 플루트 소나타들**

18세기 나폴리는 이탈리아 중부의 음악 도시였다. 그런 만큼 뛰어난 음악가들이 모였는데, 이 음반은 18세기 중후반에 나폴리에서 활동했던 다섯 작곡가의 플루트 소나타를 수록했다. 칼란드로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협주곡, 실내악 다양한 장르에서 큰 명성을 얻었으며, 리쿠페로는 로얄 채플과 산 카를로 오케스트라의 비르투오소였다. 스툴리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라바는 오보이스트로 명성이 높았으며, 카투피는 귀족으로서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다. 플루티스트 카탈디는 나폴리에서 공부한 바로크 플루트 연주자로, 18세기 나폴리 음악의 전문가이다.

CDS 7734.40 **[40CDs]**

**파가니니 음악의 명가 다이나믹(DYNAMIC)**

**창립 40주년 기념 파가니니 전작 녹음음반 40CD 박스 (스페셜 가격)**

살바토레 아카르도 ·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치 · 프란코 메체나(바이올린), 마시모 콰르타(지휘 · 바이올린),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한마디로 '파가니니 박물관'**

40장의 CD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CD1~7), 바이올린과 기타 · 현악을 위한 작품(CD8~13), 현악 4중주(CD14), 실내악(CD15~17), 바이올린과 기타 2중주(18~26), 바이올린 무반주 독주곡(CD 27~28), 기타 독주곡(CD29~32), 희귀본 및 발굴 작품(CD33~35)으로 구성되었다. 파가니니에 있어서 견줄 사람이 없었던 루지에로 리치(1918~2012)의 24개의 카프리스(CD36)와 바이올린 협주곡(CD38), 살바토레 아카르도(1941~)의 음반(CD37), 훔멜 · 리스트 · 부소니, 슈만, 브람스 등의 거장들이 지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및 헌정작(CD39~40)도 수록되어 있다. 100쪽이 넘는 두터운 해설지는 파가니니의 작품목록집이자 작은 평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하나의 세트물로 모든 작품과 최상의 연주, 최고의 지적 산물을 한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관련자료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xNJzFDflfpo&feature=youtu.be

## Gramola *www.gramola.at*

99177

**슈만: 환상소곡집, 노벨레테**

마르틴 이바노프(피아노)

**완벽한 연주를 통해 이루어낸 슈만이 상상했을 음들의 조화**

마르틴 이바노프는 10대 시절에 약 50개의 콩쿠르에 참여하여 우승을 비롯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18세의 나이에 불가리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음악가에게 수여하는 '루세 21세기' 상을 받았다. 콩쿠르로 다져진 이바노프의 슈만은 규범적이면서도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 슈만이 상상했을 음들의 조화를 구현해낸다. 또한 폭넓은 극적 구현과 감성을 한껏 담아낸 음색 표현이 신비로울 정도로 완벽하다. 〈환상소곡집〉은 각 악장의 특징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이바노프의 장점이 십분 발휘되며, 〈노벨레테〉는 폭발하는 극적 표현력과 절제하는 안정감이 공존한다.

99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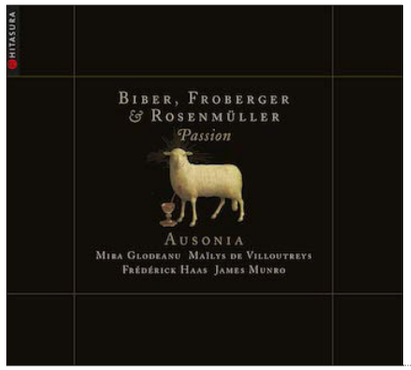
**베토벤이 편곡한 켈트 민요 작품집**

로나 앤더슨(소프라노), 제이미 맥두걸(테너), 트리오판베토벤(연주)

**켈트의 인상, 재치와 신선한 매력**

1809년에서부터 1818년 사이 베토벤은 조지 톰슨의 의뢰를 받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등의 민요를 편곡했다. 베토벤의 걸작 교향곡 7 & 8번, '함머클라이버' 소나타 등이 탄생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민요 편곡 작품들은 '걸작'에 비해 아쉬움이 크지만 단순하면서도 신선한 분위기는 의외의 매력 그 자체이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전집(GRAM99134)의 '번외판'이라고 할 만한 본 음반에서도 트리오판베토벤의 연주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하다. 로나 앤더슨과 제이미 맥두걸의 맛깔스런 음성은 작품의 재치를 더한다.

## Hitasura www.hitasura-productions.com




HITASURA

HSP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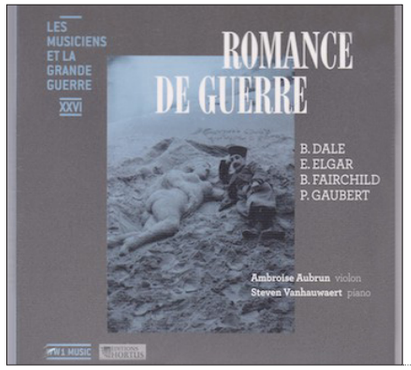
**비버 · 로젠뮐러 · 프로베르거 '열정'**

앙상블 오소니아(바이올린 · 비올라 다 감바 · 하프시코드), 마일리스 드 비유트레(소프라노)

**17세기, 고음악의 중심지로 안내하다**

하프시코드 연주자 프레데리크 하스(1969~)가 직접 설립한 히타수라 레이블은 우리가 모르던 고음악과의 정통적인 만남을 주선한다. 하스가 이끄는 앙상블 오소니아는 바이올린 · 비올라 다 감바 · 하프시코드의 3인조 앙상블이다. 비버 · 로젠뮐러 · 프로베르거 · 베크만 · 프레스코발디가 수록된 이 음반은 우리가 전혀 모르던 17세기 고음악의 세계로 깊숙이 안내한다. 고음악 전문소프라노인 비유트레의 성악과 기악 소나타가 교차하는 트랙배치를 통해 감상의 묘미를 더했으며, '소리와 디자인의 총집합체와 같다'는 하스의 믿음 때문에 내지의 디자인도 아름답다.

## Hortus www.editionshortus.com




EDITIONS HORTUS

HORTUS726

**1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과 사랑의 음악 26집**

엠브리스 오브린(바이올린), 스티븐 벤허웨어트(피아노)

**1차 세계대전 시기, 작곡가들의 바람이 담긴 작품들**

호투스 레이블은 1차 세계대전 시기와 연관 있는 음악 또는 음악가를 주제로 '(1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과 사랑의 음악'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시리즈 26번째 음반에는 엘가와 필립 고베르, 블레어 페어차일드, 벤자민 데일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곡가들 중에서는 엘가가 가장 유명하지만, 참호 속에서 작곡된 필립 고베르의 작품과 억류 중 작곡된 데일의 작품에 묻어나는 향수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던 이들의 바람을 짐작할 수 있어 뭉클하다. 전쟁터 한 복판을 평화롭게 누비는 나비 한 마리,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릴 만한 음반이다. 필립 고베르와 페어 차일드의 면모를 발견하는 묘미 역시 놓칠 수 없다.

## IBS Classical www.IBS Classical.es

ibs CLASSICAL

IBS102018

**끓어오르는 바다**

반달리아 • 아르스 아틀란티카, 마누엘 빌라스(하프)

**17세기 중반 스페인의 노래에서 듣는 인성의 아름다움**

바로크 음악에서 스페인은 소외되어 있지만, 자신만의 아름다운 음악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음반은 스페인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655~56년에 제작된 악보 '리브로 데 토노스 후마노스'(인성의 책)를 부른 것으로,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마누엘 코레아와 필리페 다 크루스, 마누엘 마차도 등을 비롯하여 작자 미상의 노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음악들은 대위법과 코랄 스타일을 넘나들면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단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반달리아의 청명한 미성과 극히 조화로운 화음 또한 더 없는 인성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 Integral Classic www.integralclassic.com

CONTINUO Classics

INT 221.141

**베토벤: 세레나데, 노트루노, 두 개의 안경 오블리가토가 있는 이중주**

피에르 레나르(비올라), 파트릭 갈루아(플루트), 제프 코헨(피아노), 프레데릭 라로크(바이올린), 시릴 라크루(첼로)

**비올라를 연주할 수 있었던 베토벤이 남긴 비올라 작품들**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서는 당대 최고였으며, 바이올린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종종 연주하던 악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비올라였다. 〈이중주, WoO 32〉의 경우는 베토벤이 아마추어 첼리스트와 함께 직접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것으로 생각된다.
플루트와 바이올린, 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는 모차르트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작품으로, 화음을 통해 전달되는 남다른 긴장감에서 베토벤의 진지함이 전달된다. '밤의 음악'이라는 뜻의 〈노트루노〉도 모차르트 시대에 많이 사용되던 제목으로서, 밝고 유쾌하며 즐거운 에너지가 넘친다.

INT 221.161

**파렝: 바이올린 소나타 1, 2번, 스위스 노래에 의한 협주적 변주곡**

로랑 카바소(피아노), 가에탄 프루보(바이올린)

**베토벤을 연상시키는 강인한 에너지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진 프랑스 작곡가**

루이즈 파렝은 파리에서 일생을 살았던 19세기 낭만작곡가이다. 그녀는 남성 위주의 예술계에서 매우 드물게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작곡 활동을 했다. 파렝의 음악은 베토벤을 연상시키는 강인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첫 트랙인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의 1악장에서부터 추진력을 느낄 수 있으며, 아다지오 악장에서도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균형 있는 이중주로 풍부한 음향과 탄탄한 음악적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바이올린 소나타 2번〉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여주며, 〈변주곡〉은 재기발랄한 파렝의 모습과 만난다. **[세계 최초 녹음]**

INT 221.162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이베리아, 녹턴, 백과 흑, 린다라야**

로렌스 벤자쿤, 다니엘 벤자쿤(피아노)

**드뷔시 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두 대의 피아노의 이유 있는 향연**

드뷔시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으며, 쇼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피아노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관현악곡이라도 본래 피아노로 작곡을 시작했거나 나중에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는 드뷔시 자신이 피아노로 편곡한 경우이며, 〈이베리아〉는 본래 피아노 이중주로 작곡을 시작했으나 관현악으로 바꾼 경우이다. 다시 피아노 이중주로 옮기는 것은 카플레가 맡았다. 〈녹턴〉은 라벨의 편곡이 수록되었으며, 〈백과 흑〉은 드뷔시의 마지막 피아노 이중주곡으로서 환상 속에서 미래의 음악을 엿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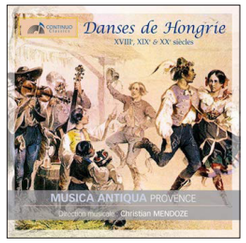
INT 221.174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마릴랭 프라스콘(피아노)

**독일과 러시아의 환상곡으로 보여준 프라스콘의 서정적 환상**

피아니스트 마릴랭 프라스콘은 남다른 서정적 표현력으로 젊은 시절의 마르타 아르헤리치에 비견되고 있다. 그녀는 프랑스의 에콜노르말과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공부했으며, 마리엔바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프라스콘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만의 환상곡은 규범적인 사운드에 그녀만의 섬세하고 따뜻한 터치를 더하여 자유롭고 서정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그린다. 스크리아빈의 〈환상곡〉은 신비감마저 감돌고,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호로비츠의 〈카르멘 환상곡〉은 피아노가 표현하는 극적 효과를 분출한다.




INT 221.178

**헝가리의 춤곡**

프로방스 무지카 안티쿠아 오케스트라

**18~20세기의 헝가리 작곡가들에 의한 헝가리 음악들**

헝가리의 음악은 일찍부터 서유럽 음악가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많은 작곡가들이 '헝가리 스타일'의 음악을 쓰곤 했다. 이 음반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18~20세기 헝가리 작곡가들의 정통성 있는 헝가리 음악을 수록했다. 벤그라프의 〈마자르 베르분코시 탄코크〉는 민속악기와 클래식악기가 교차되며 색다른 음악을 들려주고, 로자뵐지의 〈세 개의 차르다시〉는 차르다시의 우아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체르마크의 〈마자르의 댄스〉는 클라리넷 선율과 편안한 반주가 인상적이며, 16세기 무곡을 편곡한 파르카스의 〈헝가리 파르티타〉는 헝가리 음악의 높은 수준을 들려준다.

INT 221.182

**베버: 소나타 1번, 이별/ 두세크: 소나타 f#단조, 마리 앙투아네트**

리사 유이(피아노)

**고전과 낭만 사이, 베버와 두세크가 남긴 당시의 진솔한 기록**

베버는 〈마탄의 사수〉를 비롯한 오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클라리넷 협주곡도 자주 연주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향곡과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등에서도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 26세 때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1번〉은 베토벤의 전통을 이어 받으며 슈베르트의 감성을 담으면서도 쇼팽을 예견하는 모습도 보인다. 얀 라디블라프 두세크는 베토벤과 동시대 인물로, 그의 〈소나타 f#단조〉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 필적하는 낭만적 감수성을 보여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모두 열 장면으로 구성된 음악적 전기라는 매우 독특한 구성과 내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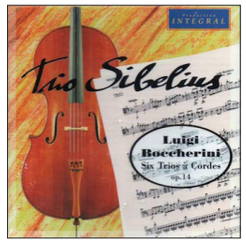
INT 221.248

**차르 시대의 노래**

마리-실비 베르(메조소프라노), 다나 치오카를리(피아노)

**동토의 낭만을 가득 품은 러시아의 극적인 노래들**

노래에서 언어는 공감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러시아어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인 경우에는 장벽은 더욱 높아진다. 이 음반은 차이코프스키와 림스키-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등의 노래를 수록했다. 이미 여러 기악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낭만시대의 이름들인만큼, 그들의 가곡 역시 우리에게 러시아 낭만의 진솔한 모습을 들려준다.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노래는 강한 타건과 극적인 멜로디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마리-실비 베르는 아버지가 러시아인으로서 러시아어와 문화에 익숙한 메조소프라노이다.




INT 527.992

**보케리니: 여섯 개의 현악삼중주곡, Op. 14**

히로에 남바(바이올린), 프랑수아 슈미트(비올라), 장-마리 트로트로(첼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탄탄한 구성, 깊은 감수성과 풍부한 음향**

보케리니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스페인으로 떠나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두 나라는 서로 자국의 음악가로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보케리니는 유럽의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의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모두 고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첼리스트로서 현악기에 정통했는데, 30세에 출판된 〈여섯 개의 현악삼중주곡, Op. 14〉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탄탄한 구성, 깊은 감수성과 풍부한 음향 등 보케리니의 위대성을 또다시 증명해준다. 이 곡은 보케리니의 악기인 첼로에 무게감을 두고 있기도 하다.

## Kairos www.kairos-music.com

0015033KAI

**롬바르디: 플루트 독주를 위한 음악**

로베르토 파브리치아니(플루트, 피콜로, 알토플루트, 베이스플루트), 레너드 엘센브로이시(첼로)

**음들의 움직임으로 감상자를 집중시키는 마력적인 플루트 사운드**

루카 롬바르디는 현재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현대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음악은 선율을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제스처와 음색을 더하여 음악적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단 하나의 플루트를 위한 작품들은 현대적인 주법보다는 익숙한 음들의 운동을 통해 감상자를 집중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명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성이 높기도 하지만,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여기에 일조한다. 플루티스트 로베르토 파브리치아니는 이탈리아 최고의 현대음악 플루티스트로, 그의 뛰어난 연주는 이 음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 Klanglogo www.klanglogo.de

KL.1522
**코스모폴리탄, 멘델스존**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실내오케스트라(연주), 페터 브룬스(첼로 & 지휘)

**코스모폴리탄 멘델스존, 19세기 유럽 음악계 파노라마**
모차르트, 하이든의 예와 같이 당대 명성을 누렸던 작곡가들의 직간접적인 인간관계(연주 여행 등)을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과 함께 해당 작곡가들을 새삼 다시 돌아보게 되곤 한다. 본 음반은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인기 있는 작곡가 멘델스존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를리오즈, 도니제티, 볼크만, 닐스 가데의 작품들의 새로운 매력,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멘델스존의 모습을 통해 19세기 유럽 음악계의 파노라마 한 장면을 말끔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KL.1526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재즈 모음곡 2번, 황금 시대**
안토니 바리셰프스키(피아노), 로맹 르뢰(트럼펫), 브란덴부르크 국립관현악단, 하워드 그리피스(지휘)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는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음악**
쇼스타코비치는 진지한 음악가였지만 대부분의 작업을 대중에 맞춰야 했다. 〈재즈 모음곡 2번〉은 대중성이 강한 작품으로, 유명한 '왈츠 2번'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사실 이 곡은 '재즈'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민속 풍의 경음악에 가까우며,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해학이 가득하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쇼스타코비치의 협주곡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진지한 풍자로 아이러니한 음악적 상황을 만든다.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콩쿠르와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리셰프스키의 연주는 섬세한 흐름과 톡톡 튀는 리듬을 교차시켜 이러한 인상을 명쾌하게 전달한다.

## LPO www.lpo.org.uk

LPO-0107 [2CDs]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3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발레곡 〈조심해〉, 꿈**
바딤 레핀(바이올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렉산드르 라자레프(지휘)

**19세의 초기부터 37세의 완숙기까지 프로코피에프의 혈기 가득한 작품들**
프로코피에프는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남겼다. 이 음반에서는 〈바이올린 협주곡 1번〉(1917)과 오페라 〈불의 천사〉의 음악으로 만든 〈교향곡 3번〉(1928)을 비롯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발레곡 〈조심해〉(1915/20)와 초기곡 〈꿈〉(1910)을 수록했다. 그래서 이 음반에서는 들을 기회가 매우 적은 19세 때의 초기곡부터 37세까지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 〈꿈〉은 낭만적인 환상이 가득하며, 〈조심해〉는 보다 과감한 제스쳐들과 극적 표현들이 눈에 띈다.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유려한 멜로디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걸작이며, 〈교향곡 3번〉은 에너지가 타오른다.

## MD&G www.mdg.de

320 0866-2
**리터: 오르간 소나타 Op.11 · 19 · 23 · 31**
우르술라 필리피(파이프오르간)

**오르간의 혁명을 꿈꾼 4곡의 소나타**
아우구스트 고트프리히 리터(1811~1885)는 140여개의 오르간 작품을 작곡했다. 그중 오르간 소나타는 본 앨범에 수록된 총 4곡 뿐. 그는 당시 정형화된 고전적인 피아노 소나타 양식에서 벗어나 '단악장으로 구성된 소나타 양식을 통해 오르가만의 색채를 갖는 소나타 양식을 성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시적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리터의 신조에 걸맞게 우르술라 필리피의 오르간 연주도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르간 앨범 발매에 있어 자부심을 지닌 엠데게레이블의 청량한 음향도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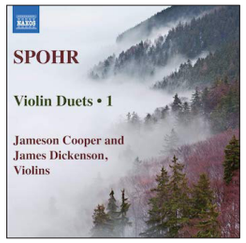
622 2079-2 [2 for 1,5]
**로르칭 · 슈만 가곡 남성합창 편곡집**
신데트몰트 합창단, 데트몰트 호른앙상블

**슈만도 꿈꾸지 못 한 남성합창의 묘미**
슈만의 주옥같은 연가곡을 남성 아카펠라로 들으면 어떠할까. 신데트몰트 합창단은 테너와 베이스 16명으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이다. 1CD에는 알베르트 로르칭(1801~51)의 가곡이, 2CD에는 슈만의 대표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낯선 로르칭은 19세기를 풍미한 독일의 오페라 · 가곡 전문 작곡가이다. 두 작곡가의 곡은 무반주 남성아카펠라로 편곡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데트몰트 호른앙상블이 함께 한다. 테너 · 베이스 · 호른이 일구는 소리의 향연은 드라마틱한 전개보다는 묵직하면서도 잔잔한 울림으로 작품이 지닌 선율미를 도드라지게 한다.

## Naxos www.naxos.com

8573742 [추천음반]
**메르카단테: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D장조', '플루트 협주곡 F장조[5번] & 7번',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 라르고, 주제와 변주', '플루트를 위한 20개의 카프리치오'**
세오 가즈노리(플루트), 파두리체 체코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 지휘)

**오페라의 서정 위에 수놓은 화려한 기교**
로시니, 도니제티와 함께 당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메르카단테는 플루트 작품에서도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겼다. 그의 플루트 작품들은 이미 1집(8.573231)에서 매력적인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드비엔느의 작품에서 느낄 법한 사뿐한 분위기와 화사한 색채, 치마로사와 로시니 작품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흐름과 악기들의 대화. 벨칸토 아리아의 서정과 화려한 기교를 갖춘 패트릭 갈루아의 연주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 파가니니 작품의 플루트 버전, '플루트를 위한 20개의 카프리치오'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이다.




8573763
**슈포어: 바이올린 이중주 1집**
제임스 쿠퍼 & 제임스 디킨슨(바이올린)

**28년의 시간차, 영감을 다루는 방식을 발견하는 반전의 매력**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등 생전에 베토벤 못지않은 자취를 남긴 슈포어는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다.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출시한 '바이올린 협주곡'(8.570528, 8.555101)들이 고전적인 형식 위에 낭만적인 기질을 담아낸 감성을 보여주었다면, '바이올린 이중주'는 슈포어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과 숙련된 작법을 담고 있다. 각각 12세와 40세에 작곡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세 개의 이중주'(WOo.21 & Op.67)는 28년의 시간차 속에서 영감을 다루는 방식을 비교하는 묘미는 물론 두 대의 바이올린의 완벽한 호흡이 연출하는 정교한 멜로디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8573783
**보리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3중주 & 첼로 소나타 &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하이크 카자지안(바이올린), 크리스토퍼 마르우드(첼로), 올가 솔로비에바(피아노)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의 아찔한 질주 & 우아한 서정**
보리스 차이코프스키는 쇼스타코비치 이후 작곡가들 중 가장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기악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의 작품들은 1960년대 이후 스승인 쇼스타코비치와 미야코프스키, 쉐벌린으로부터 전수받은 음악적 전통이 뚜렷했던 이전 시기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의 인상과 바르톡에 대한 헌사가 담긴 '피아노 3중주', 바인베르크에게 헌정된 '첼로소나타', '바흐의 인상'을 담고 있는 로스트로포비치의 위촉작 '무반주 첼로모음곡 d단조'는 간결한 모티브의 대비와 조응을 보여준다.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의 아찔한 질주와 우아한 서정은 작곡가의 천재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인상을 남긴다.

8573800
**자도르: 관현악 작품집**
MAV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리우스 스몰리(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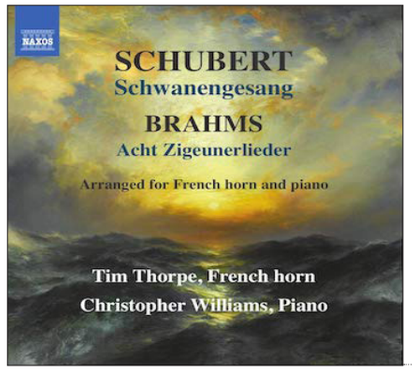
**자신의 색채로 새롭게 탄생시킨 헝가리 음악의 인상**
음악학자 니콜라스 슬로니스키는 영화 '벤허'의 음악을 작곡한 에뇌(유진) 자도르의 작품 세계에 대해 '고전과 낭만, 근대'를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고전의 형식미에 낭만의 서정, 영화 음악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더한 자도르의 색채와 맥을 같이한다. 자도르 작품 세계의 또 하나 특징은 이 같은 색채로 '인용'을 넘어 헝가리 민속 음악의 인상을 새롭게 재창조한 것에 있다. 인생 후반기에 작곡된 수록 작품들은 1곡을 제외한 모든 작품이 세계 최초로 녹음되었다. 자도르 작품 세계의 특징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들, 영화 음악을 연상시키는 생동감과 자연스러운 전개가 특히 인상 깊다.

8573845
**메시앙: '오르간의 서(書)' & '헌당식을 위한 창구(唱句)'**
톰 윈페니(오르간)

**'리듬'을 통해 구현된 '세계'**
1939년 '영광의 몸 – 부활의 7가지 짧은 환영'을 작곡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메시앙은 '리듬'에 대한 각별한 천착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본 음반에 수록된 '오르간의 서(書)'와 '헌당식을 위한 창구(唱句)'가 그것이다. 이 작품들은 메시앙 작품을 규정짓는 요소, '새소리'와 '리듬을 통해 구현한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페루의 민속 음악 선율이 쓰인 부수음악 '트리스탄과 이졸데 : 사랑의 테마'는 고요한 분위기 속 빛의 '비상'을 연상케 한다. 은근한 잔향을 머금은 톰 윈페니의 매력적인 연주는 여전하다.
*** '트리스탄과 이졸데: 사랑의 테마'(1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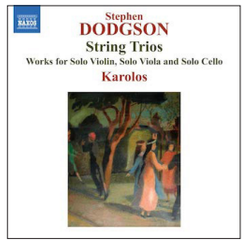
8573846
**알렉산드르 판필로프: 피아노 리사이틀**
알렉산드르 판필로프(피아노)

**2016년 하엔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2016년 58회 스페인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알렉산드르 판필로프의 기념 음반이다. 우승 당시 스페인 음악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로사 사바테르상') 수상했던 그는 본 음반에서 스페인의 감성과 조국인 러시아 음악의 강렬한 인상을 아우르고 있다. 선 굵은 연주 속에서 이따금 묻어나는 의외의 세심한 감성, '데생'의 질감을 닮아있는 그의 연주는 색채감 너머의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누엘 세코 데 아르페의 '아나모포시스(일그러진 인상, 왜상)',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특히 인상적이다.




8573815 **[추천음반]**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 브람스: 집시의 노래 – 프렌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2017, 팀 소프 편곡)**
팀 소프(프렌치 호른), 크리스토퍼 윌리엄스(피아노)

**자유로운 집시의 영혼을 품은 백조의 노래**
LSO, CBSO, 노던 신포니아, 내쉬 앙상블, 런던 신포니에타 등 영국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호른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팀 소프는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와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를 프렌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해 음반에 담았다.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가곡들을 다른 악기로 편곡한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프렌치 호른와 피아노를 위한 버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청량감 있는 반향, 자유로운 분위기, 카운터 케너의 미성을 연상시키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운이 아닐까 싶다.
'자유로운 (집시의) 영혼을 품은 백조의 노래', 감상을 추천한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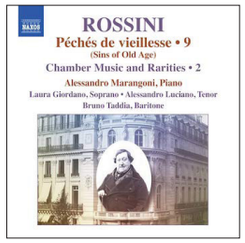



8573856
**스티븐 도지슨: 현악 삼중주 1 & 2번,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독주를 위한 작품들**
카롤로스(연주), 해리엇 맥켄지(바이올린), 사라–제인 브래들리(비올라), 그레이엄 워커(첼로)

**고음악에서 얻은 영감, 다양한 편린의 변화무쌍한 조합**
스티븐 도지슨의 작품 세계는 고음악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구현한 다양한 편린들의 변화무쌍한 조합을 특징으로 한다. 네빌 매리너, 스티븐 싱글스, 알렉산더 콕에 의해 초연된 '현악 삼중주 1번'은 작곡가 본연의 스타일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티나'는 바흐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작품 스타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며, '한여름 밤의 꿈'에서 영감을 얻은 '(요정) 퍽의 발자취에 의한 카프리스'는 미로와 같은 기묘한 인상이 도드라지는 작품이다. 퍼즐 조각과도 같은 독특하면서도 명료한 인상과 차가운 반향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 '현악 삼중주 2번'(17–19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63
**안토니오 솔레르: 건반 소나타 75–86번**
안수정(피아노)

**스페인 특유의 색채, 유럽 음악(빈)의 영향이 배어있는 산뜻하고 역동적인 반향**
엘에스코리알궁의 마에스트로 디 카필라(카펠마이스터)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봉직한 안토니오 솔레르는 150여편의 건반 소나타를 남겼다.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 75–86번'이 수록된 시리즈 8집에는 제58회 마리아카날스 국제 콩쿠르(2012년)와 제5회 독일 본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2013년)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안수정이 참여했다. 풍부한 울림과 멜랑콜리한 감성을 이끌어내는 '소나타 85번', 리드미컬하면서도 또랑또랑한 터치를 보여주는 '소나타 76 & 83번' 등 스카를라티와 스페인 특유의 색채가 어우러진 산뜻하고 역동적인 반향을 만끽할 수 있다.




8573864

**로시니: 피아노 작품 9집**

라우라 지오르다노(소프라노), 알레산드로 루치아노(테너), 브루노 타디아(바리톤), 알레산드로 마랑고니(피아노)

**영감을 다루는 자유로운 방식과 감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

총 14권(150여 작품)으로 구성된 로시니 만년의 대작 《늘그막의 잘못들(또는 노년의 과오들)》' 중 초반부(〈이탈리아어 앨범(1권)〉, 〈프랑스어 앨범(2권)〉, 〈신중한 소품집(3권)〉)는 음악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로시니의 자유로운 감성이 담겨 있다. 로시니 '피아노 작품 9집'에는 《늘그막의 잘못들》 1–3권을 주축으로 〈성악작품 모음집(성악작품 잡록, 11집)〉과 출판되지 않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피아노와 음성의 아슬아슬한 밀당이 빚는 단출한 듯 극적인 색채는 전작 못지않은 감흥을 안겨준다. 특히, '알레그레토, 피아노를 위한 팬텔레그래프'는 팩시밀리의 전신인 '팬텔레그래프'로 전송된(파리–아미앵) 작품이기도 하다.

8573943

**세르잔 블라토비치 & 다르코 닉체비치: 기타 이중주 작품집**

세르잔 블라토비치(기타), 다르코 닉체비치(기타, 피아노, 타악기), 몬테네그로 스트링스(연주)

**다양한 지역, 갖가지 색채를 바탕으로 재장초된 새로운 느낌의 음악**

몬테네그로 출신의 연주자 세르잔 블라토비치와 다르코 닉체비치는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작품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들은 스페인과 발칸반도, 중동지역의 인상과 리듬을 바탕으로 즉흥적인 영감을 더해 기존 기타 음악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새로운 느낌의 작품을 선보인다. '여름비', '시너지', '화염', '피에스타'등 수록 작품들은 두 대의 기타 그리고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타악기의 조합을 통해 격렬함과 고요함을 아우르는 극적인 서정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갖가지 색채로 재창조된 예측불가의 매력은 강렬한 여운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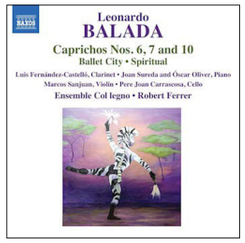
8579034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세르조 보시(클라리넷), 리카르도 바르톨리(피아노)

**이탈리아 클라리넷의 주옥과도 같은 작품 모음집**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은 오페라의 그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결과 상당 부분 본래의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다. 19–20세기 이탈리아 클라리넷 작품을 통해 '미싱링크'를 복원하는 세르조 보시의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주옥과도 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부조니 부자의 작품은 '음악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몰두한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레온 시니갈리아의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의 이탈리아적 변용을, 비토리오 리에티의 작품은 세계 대전 당시 자유를 찾아 '방랑'해야 했던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없이 매력적인 작품들, 감상과 소장을 강력 추천한다.




8579036

**레오나르도 발라다: '카프리초스 6 & 7 & 10번', '발레시티', '영가'**

루이스 페르난데즈–카스텔로(클라리넷), 호앙 수레다 & 오스카 올리베르(피아노), 마르코스 산후안(바이올린), 페레 호앙 카라스코사(첼로), 앙상블 콜 레그노(연주), 로베르토 페레르(지휘)

**민속의 추상 – 신고전주의, 아방가르드, 민속 음악의 색다른 어울림**

바르셀로나 출신의 작곡가 레오나르도 발라다의 '카프리초스' 시리즈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음악 정체성을 모색하는 여정의 산물이다. 그중에서도 안달루시아 민요 '라 타라라'를 모티브로 한 '카프리초스 7번(라 타라라 환상집)'과 카탈로니아 민요를 소재로 한 '카프리초스 10번(양치기 소녀의 환상)'의 묘사적이고 때로는 초현실적인 '민요의 인상'은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인 색채로 그린 '카프리초스 6번'을 기점으로 나래를 펴기 시작한 작곡가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함께 수록된 '발레시티'와 '영가'는 각각 신고전주의에 대한 열정과 대중적인 선율('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해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24

**케네스 푹스: 피아노 협주곡(심령술사) & 인생의 시 & 빙하 & 러쉬**

제프리 비겔(피아노), 아리에 뉴스바움 코헨(카운터 테너), D.J. 스패르(일렉트로닉 기타), 티모시 맥알리스터(알토 색소폰), 크리스틴 펜드릴(잉글리시 호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펠레타(지휘)

**손에 잡힐 듯한 상상 속 이미지**

조앤 펠레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 레이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케네스 푹스와 이들의 인연은 2005년도 이래 호평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도에서부터 2017년 사이에 작곡된 협주곡 네 작품이 수록된 케네스 푹스의 낙소스 레이블 다섯 번째 음반은 30여 년간 이어온 조앤 펠레타와의 음악 여정을 기념하고 있다. 음반 재킷의 주인공, 헬렌 프랑켄탈러의 그림에 대한 인상이 담긴 피아노 협주곡 이외에도 일렉트로닉 기타, 성악, 알토 색소폰을 위한 협주곡은 동원된 악기의 범위만큼 이나 무궁무진한 상상 속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다. 상상 혹은 환상 혹 이미지를 손에 잡힐 듯 생생하면서도 친숙하게 표현하는 작곡가의 역량은 '지음'의 연주를 통해 눈부신 면모를 드러낸다. 감상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89

**슈만: 환상과 동화**

아스코 헤이스카넨(클라리넷), 레카 칠베이(바이올린), 드미트리 신코프스키(비올라), 알렉산더 루딘(첼로), 아포 하키넨(피아노)

**시대 악기로 빚은 슈만의 '환상과 동화'**

낭만의 인상이 투영된 환상과 동화에 대한 슈만의 각별한 관심은 잘 알려져 있다. 슈만 작품 세계의 기저를 이루는 두 요소가 집약된 본 음반은 19세기 초 양식의 클라리넷, 거트현을 사용한 현악기, 1843년도 제작 플레옐 피아노를 사용해 '슈만의 낭만'을 재현하고 있다. 시대 악기로 빚은 '슈만의 환상과 동화', 슈만의 귀에 들렸을 법한 시대의 감성. 어릴 적 듣던 '옛날 이야기' 또는 '피아노롤'을 감상하는 듯한 운치와 고즈넉한 반향은 슈만 당시 연주회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작곡가와의 내적 친밀감을 고조시킬만한 음반이다.

8573861 **[추천음반]**

**민요와 전래 가요집 –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네**

제임스 본 & 레슬리 드아스(피아노), 엘로라 싱어즈(합창), 노엘 에디슨(지휘)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색채로 편곡된 영국 & 미국 & 캐나다 지역의 민요와 전승 가곡들**

민요 또는 전래 가요는 특정 지역의 전설(설화), 풍광과 기후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켜켜이 쌓인 거주민의 자취를 담고 있다.
일종의 '나이테'와도 같은 이들 작품은 특정 지역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이자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본 음반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지역의 민요와 전래 가요 또는 이들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가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올드 랭 사인'을 비롯해 홀스트, 본 윌리엄스, 이보르 누벨로, 에릭 휘태커 등의 작품들을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8573651
**알렉산더 모이제스: 교향곡 3 & 4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라디슬라프 슬로박(지휘)

**말러와 시벨리우스 색채에 담긴 슬로바키아 과거의 상흔과 극복의 염원**
동시대 슬로바키아 음악계를 이끌었던 작곡가 알렉산더 모이제스는 조국 슬로바키아의 풍광과 전통에서 얻은 영감에 당대 음악계의 흐름을 접목하는 등 폭넓은 요소를 작품에 활용했다. 본 음반에는 전작(8.573650) '교향곡 1 & 2번'에 이어 초기작 '현악 5중주'와 관련이 있는 '교향곡 3번(작은 교향곡)', 말러와 시벨리우스를 연상케 하는 '교향곡 4번(1953년 개정판)'이 수록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의 상흔(슬로바키아의 과거와 전쟁에 대한 항의)과 극복에 대한 염원이 담긴 '교향곡 4번'(특히, 3악장)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혹은 7번 마지막 악장의 인상과 닮아있다. 25년 전 음원의 재발매, 모이제스에 대한 라디슬라프 슬로박의 애정은 여전히 생생하다.

8573712
**클레멘티: 건반소나타(Op. 25–1 & 3, Op.33–2 & 3, Op.46)**
스테판 채플리코프(피아노)

**협주곡을 연상시키는 스케일과 화려한 기교**
1785년 재차 런던에 정착한 클레멘티는 작곡가와 연주자뿐만 아니라 출판업자와 피아노 제작자로서 활동했다. 본 음반은 이 시기부터 존 필드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녀온 이후 만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작곡된 5편의 피아노 소나타가 수록되어 있다. 쉬운듯하나 결코 만만치 않은 화려한 기교, 협주곡을 연상케 하는 너른 스케일은 당시 건반 음악의 '총아'였던 클레멘티의 면모를 짐작케 할 만 하다. 스테판 채플리코프의 명료한 연주와 선명한 음질은 클레멘티의 건반 작품에서 탁월한 연주를 보여준 수잔 알렉산더–막스의 빈자리를 달래 줄 만하다.

8573776
**카를 리핀스키: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삼중주 작품집**
보이테크 프로니에비츠 & 아담 로지코프스키(바이올린), 얀 로지코프스키(첼로)

**따뜻한 우수, 세련미를 갖춘 선율**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카를 리핀스키는 19세기 바이올린의 혁신을 이끌었던 작곡가들을 참고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쳤다. 파가니니의 기교와 슈포어, 타르티니, 비오티의 기풍에 영감을 얻은 리핀스키의 작품에는 '영혼 없는 기교의 향연'이 아닌 기교와 서정미를 갖춘 '슬라브 민요 선율'이 담겨 있다.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삼중주' 작품들이 수록된 본 음반은 또렷한 음향 속에 넘실거리는 따뜻한 우수와 세련미가 눈길을 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마주할 만한 작품, 리핀스키의 '카프리치오'(Op.10 & 27)가 수록된 전작(8.572.665)과 함께 추천하고 싶다.

8573808
**로베르 그로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 바이올린 협주곡**
조안나 쿠르코비츠(바이올린),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로베르 그로로(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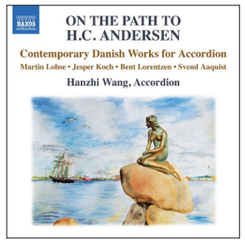
**몽환적인 보랏빛 인상과 차가운 음향, 다양한 색채들이 일으키는 파국의 인상**
벨기에 출신 작곡가이자 지휘자,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로베르 그로로의 작품 세계에서 협주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이다. 협주곡을 통해 악기의 가능성과 기교의 조화 그리고 확장에 힘쓰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세련스럽고 풍부한 음향과 색채의 대비가 돋보인다. 독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조안나 쿠르코비츠에게 헌정된 '바이올린 협주곡'은 몽환적인 보랏빛 인상과 차가운 음향을 배경으로 다양한 색채들이 일으키는 '파국'의 인상을 내뿜고 있다. 섬세한 구조미가 돋보이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에 이르기까지 헌정자와 작곡가가 참여한 세계 최초 녹음인 만큼 어느 연주보다도 작품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8573848
**체르니: 두 개의 화려한 삼중주(Op.211) & 삼중주를 위한 세 개의 화려한 소나티네(Op.104)**
신선영(바이올린), 벤자민 하이에크(첼로), 새뮤얼 징어(피아노)

**모차르트와 리스트에 걸쳐있는 체르니의 색다른 감각**
세계 최초로 녹음된 체르니의 두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1830년 출판된 '두 개의 화려한 삼중주'(Op.211)는 스페인 볼레로 리듬 등 색다른 요소들에 대한 작곡가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1827년 출판된 '삼중주를 위한 세 개의 화려한 소나티네'(Op.104)는 베토벤의 기초 위에 수놓은 (모차르트, 훔멜, 리스트에 이르는 시기의) 다양한 색채를 느낄 수 있다. 멘델스존을 연상시키는 '화려함', 순수한 피아노의 인상이 각별하다. 베토벤과 '연습곡'의 그늘에 가려진 작곡가 체르니의 매력을 느끼기에 부족함 없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89
**알렉산더 카스탈스키: 합창음악 작품집**
클라리온 과이어(합창), 스티븐 폭스(지휘)

**1차 세계대전, 전몰자 추모를 위한 일생의 대작**
차이코프스키의 제자인 작곡가 알렉산더 카스탈스키는 합창 음악 작품에서 뛰어난 면모를 나타냈다. 그가 남긴 175여 편의 작품은 본 음반 마지막 3개의 트랙과 같이 동방정교회 색채에 민요적인 요소를 더한 단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음반의 백미 '잊힌 영웅들을 위한 영원한 추모'는 1차 세계대전 피해자 모두를 추모하기 위해 작곡된 일생의 대작으로서 정교회 색채가 짙은 구조, 경건한 분위기와 반향, 세르비아 민요의 탁월한 변용이 압권이다. 스티븐 폭스가 이끄는 클라리온 콰이어는 막시밀리안 스테인버그의 '수난주간'(8.573665)에 이어 다시 한 번 명연을 선사한다. 적극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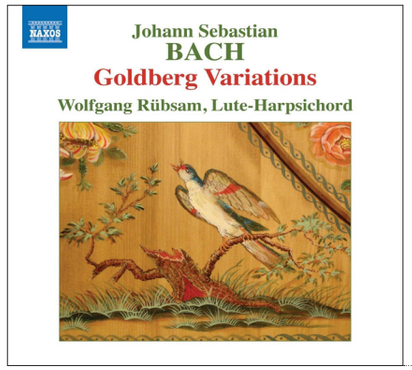



8573904
**현대 덴마크 작곡가들의 아코디언 작품집**
왕한지(王寒之, 아코디언)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의 현대 음악 작곡가 4인(마르틴 뢰세, 야스퍼 코크, 벤트 로렌첸, 스벤트 아퀴스트)이 안데르센의 작품에 부친 인상을 음반에 담았다. 동화 속에 담긴 다채로운 인상과 비극을 향해 치닫는 흐름에 이르기까지 아코디언 1대에 담긴 작곡가들의 독특한 색채는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감흥을 이끌어 낸다. 중국 출신 아코디언 연주가 왕한지의 탄력 넘치는 연주는 극적인 면모를 배가한다. 한스 아브라햄슨의 제자 마르틴 뤼세의 작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성냥팔이 소녀(트랙 5) 세계 최초 녹음**

8573911
**기타와 플루트 이중주 작품집**
후쿠다 신이치(기타), 쿠도 시게노리(플루트 & 알토플루트)

**자유로움 그리고 영원함, 물의 인상**
물은 모든 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너르고 자유롭다. 낙소스 화제의 시리즈 일본 기타 음악 작품집 네 번째 음반에는 물, 그 중에서도 바다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풍경, 바다와 얽힌 기억(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비극과 치유)을 담고 있는 작품의 색채는 잔잔해 보이나 '거대한 힘'을 머금고 있는 바다의 모습과 닮아 있다. 특히, 일본 대표 가곡(가요)를 편곡한 두 편의 작품(6곡)에서 플루트(쿠도 시게노리)와 기타(후쿠다 신이치)의 우아한 호흡은 일본 전통시 한 대목을 연상시킬 만큼 격조 높다.
***** '바다의 노래'(6번 트랙), '해변의 기억'(10번 트랙), '3개의 일본가곡 편곡집'(7–9번 트랙 & 11–1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921 **[추천음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BWV.988)**
볼프강 뤼브삼(류트–하프시코드)

**그윽하고 여유있는 반향, 류트–하프시코드의 매력**
바흐 사망 당시 유품 중에는 세 대의 하프시코드와 두 대의 류트–하프시코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류트–하프시코드에 대한 바흐의 관심을 되살리고 있는 악기 제작자 키스 힐의 작품은 이미 매력적인 면모를 선보인 바 있다(8.572006–007). 볼르강 뤼브삼을 위해 키스 힐이 특별히 제작한 류트–하프시코드로 연주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반향, 류트와 하프시코드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준다. 여유로운 흐름, 우아하면서도 재치 있는 꾸밈음은 '노래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적극 추천하고 싶다.

##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OACD9033D **[4CDs]**

**2009 바이로이트 축제 실황: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페터 슈나이더(지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합창단, 로버트 딘 스미스(트리스탄), 이레네 테오린(이졸데)

**바이로이트의 역사적 순간을 나의 방으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발은 오푸스 아르테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후 실황 영상과 음반을 발매 중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영상물이 나왔을 때, 그간 바이로이트 영상물은 드레스 리허설을 촬영한 것이었기에 실황영상(OA BD7067 D)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4CD에 녹음된 관객이 박수가 그래서 더욱 인상적이다. 바이로이트의 베테랑 페터 슈나이더가 쌓아올리는 견실한 음향의 구조는 탄탄하고, 로버트 스미스의 밝은 목소리, 바그너 배역으로 각광 받는 이레네 테오린의 안정적인 목소리가 차별화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그려낸다.

OACD9034D **[3CDs]**

**2011 바이로이트 실황: 바그너 '로엔그린'**

안드리스 넬손(지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합창단, 클라우스 플로리안 보크트(로엔그린), 게오르크 제펜펠트(하인리히 왕), 사무엘 윤(대변인)

**넬손의 명지휘,헬덴테너 보크트, 그리고 사무엘 윤**

바이로이트 페스티발은 오푸스 아르테를 통해 실황영상물과 음반을 전세계에 배급하고 있다. 2011년 '로엔그린'은 타이틀 롤의 포크트가 헬덴테너의 파워를 과시하며 '이 시대 최고의 로엔그린'이라는 찬사를 받은 프로덕션. 왕의 대변인으로 출연한 사무엘 윤의 서정성과 박력이 대비를 이룬 2막의 가창과, 안드리스 넬손의 강렬한 흡인력의 지휘도 만날 수 있다. 영상물(OA BD7103 D)이 한스 노이엔펠스 특유의 냉랭하고 미니멀한 무대디자인을 시각적으로 맛볼 수 있다면, 음반은 성악가들의 소리를 균형잡힌 음향감으로 집중감상할 수 있다.

## Orchid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084

**반영: 색소폰 연주 앨범**

휴 위긴(색소폰), 존 레너한(피아노), 올리버 와스(하프)

**색소폰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모두 담아낸 앨범**

로열 오버시즈 리그 콩쿠르에서 1등과 금메달 수상자이자 런던의 왕립음악원에서 색소폰 교수인 휴 위긴은, "흐르는 금빛 소리"와 "인상적인 호흡"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정상의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음반은 슈베르트 〈송어〉와 생상스 〈백조〉, 드뷔시 〈아마빛 머리의 소녀〉, 피아졸라 〈망각〉, 림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등 유명한 소품을 비롯하여,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 파야 〈7개의 유명한 스페인 노래〉 등도 편곡 연주하여 색소폰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모리스의 〈프로방스의 장면〉은 오리지널 작품으로서, 색소폰의 가능성을 한껏 보여준다.

## Orlando www.orlando-records.com

or0035

**아코디언을 위한 음악**

러너웨이 아코디언 삼중주단

**여섯 작곡가들과 함께 만나는 아코디언의 신선한 매력**

모바일 오르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코디언의 매력은 수많은 작곡가들로 하여금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러너웨이 아코디언 삼중주단의 이 음반에서는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일본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히는 호소카와의 〈미-코〉가 들려주는 풍부한 음향과 화려한 사운드는 놀랄 정도이며, 독일의 거장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하스의 〈밤과 같이 …〉은 하스 특유의 깊은 심미안을 펼친다. 북유럽의 거장인 유카 티엔수의 〈무타〉에는 역동적인 활력이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클라우스 랑의 〈흰 수염의 사람_달의 개구리〉는 그로테스크한 그만의 매력이 있다.

OR0037

**힌데미트: 실내음악 3번, 베리오: 포크송, 언더힐: 첼로협주곡**

애리얼 반스(첼로), 파이즈 크러커(보컬), 터닝포인트 앙상블, 오웬 언더힐(지휘)

**우리시대 음악에 일가견을 가진 현대음악 전문연주자들의 완성도 높은 연주**

힌데미트는 신바로크주의와 반낭만주의로 종합된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후기낭만주의 음악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면서 거친 반면, 현대적 음악에 비해서는 고전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특징은 그를 더욱 독특한 존재로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첼로협주곡인 〈실내음악 3번〉은 이것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베리오는 20세기의 중요한 현대적인 작곡가지만, 평생 민속음악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11곡의 민요를 앙상블 반주의 노래로 편곡한 〈포크송〉에는 그 애정이 가득 담겨있다. 언더힐의 〈첼로협주곡〉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담은 듯 흥미롭고 신비하다.

##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OUR Recordings

8.226911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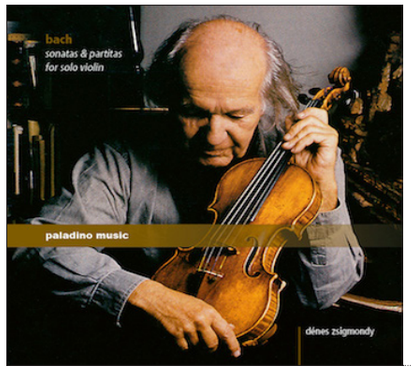
**'사계절-29곡의 덴마크 노래'**

보 홀튼(지휘), 덴마크국립보컬앙상블

**음악을 트는 순간, 덴마크의 자연과 여유가 펼쳐진다**

2006년 리코디스트 미칼라 페트리가 설립한 OUR Recordings의 음반으로 덴마크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28곡의 명곡을 사계절의 콘셉트에 맞춰 내놓은 것이다. 19명으로 구성된 덴마크국립보컬앙상블은 2007년 창단 이후 자국의 합창을 발굴하여 이 레이블을 통해 다양한 음반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메시앙의 합창곡(6.220612)은 2015 디아파종상을, 페트리와 함께 한 '나이팅게일'(6.220605)로 2012독일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 음반에 수록된 덴마크의 노래들은 1~3분의 분량이며, 무반주 합창으로 진행된다. 합창의 울림을 담아내는 음향도 담백하고 깔끔하다. 덴마크어 가사지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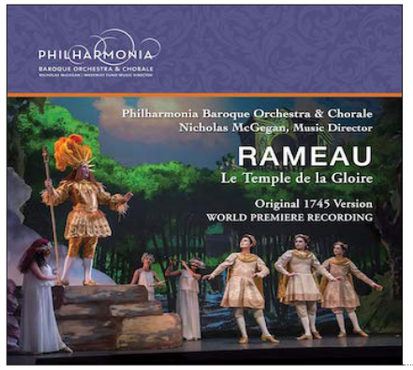
## Paladino www.paladino.at




**paladino music**

pmr0093 [2 for 1.5]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데네스 지그몬디(바이올린)
**노 거장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가 담긴 특별한 바흐**
헝가리 태생의 데네스 지그몬디는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20세기의 거장이었다. 그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녹음한 것은 73세였던 1995년이었다. 그는 홀츠하우젠의 세례요한 교회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곳에는 이미 설치된 마이크와 녹음 장비가 있었지만 엔지니어 없이 오직 혼자 뿐이었다. 지그몬디는 팩시밀리 악보를 놓고 스스로 '녹음' 버튼을 눌러 홀로 50시간이나 녹음을 진행했다. 음 하나 하나에 노 거장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가 담긴 이 연주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행운이다.

## Philharmonia Baroque www.philharmon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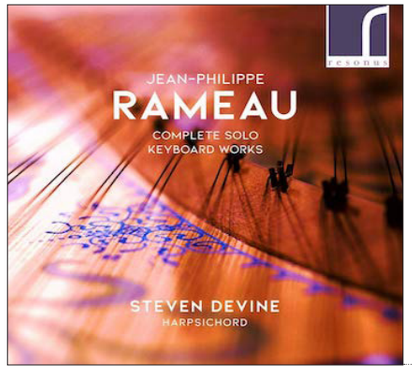



PBP10 [2CDs]
**라모: 오페라 〈영광의 사원〉**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 합창단, 니콜라스 맥기건(지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1745년 초판 최초 녹음**
장-필리프 라모는 프랑스 후기 바로크 시대에 가장 빛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건반 음악과 함께 오페라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상연되고 있다. 라모의 오페라 〈영광의 사원〉을 수록한 이 앨범도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2017년에 상연했던 공연을 기록한 것이다. 〈영광의 사원〉은 노래와 발레가 있는 '오페라-발레'라는 프랑스의 독특한 장르로서, 볼테르가 대본을 작성했다. 아폴로와 뮤즈의 이야기부터 벨뤼스 왕의 사랑이야기, 바쿠스 등 여러 에피소드를 거쳐 트라잔의 승리에 이르는, 스케일이 큰 작품이다. **[세계 최초 녹음]**

##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14004 [2CDs]
**2013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실황-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콘서트 버전)**
안드리스 넬손스(지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 북독일 방송합창단, 쾰른 합창단
**넬손스적인 속도감으로 파도치는 바그너 비극**
2013년 3월, 로열콘세르트허바우 실황으로 135분의 현장이 두 장의 CD에 담겨 있다(2막 Du böses kind, wenn du nicht spinnst에서 2CD로 넘어간다). 바이로이트에서 새 역사를 꾸준히 쓰고 있는 넬손스와 달란트 역에 있어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연광철과 최고의 이졸데로 손꼽히는 안야 캄페(젠타)의 호흡은 바그네리안들을 열광케 했다. 기존 해석보다 보다 빠른 속도로 몰아가는 넬손스만의 쾌감도 압도적이다. 다양한 악기들의 색을 명료히 드러내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녹음도 일품이다. 해설과 가사(독 · 영)를 담은 두툼한 부클릿이 명반의 무게를 더해준다.

## Resonus www.resonusclassics.com




RES10214 [3CD For 2]
**라모: 건반 작품 전곡**
스티븐 드바인(하프시코드)
**프랑스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꼼꼼한 해석으로 완성된 명연**
스티븐 드바인은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공동수석 건반연주자이자 다른 여러 고음악 앙상블의 수석 건반연주자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런던의 트리니티 라반 음악원에서 하프시코드와 포르테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으며, 왕립 버밍엄 음악원과 왕립 웨일즈 대학의 자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라모의 건반음악 전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드바인의 자연스러운 장식음과 명확한 리듬, 춤에 적합한 템포 설정 등 꼼꼼한 해석으로 프랑스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여준다. 가벼운 톤의 악기 또한 라모의 화려한 화음을 돋보이게 한다.

RES10215
**멘델스존: 사중주 6번/ 바인베르크: 사중주 3번/ 쇼스타코비치: 엘레지 등**
두도크 사중주단 암스테르담
**강렬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운드에서 보여주는 완성된 거장의 하모니**
두도크 사중주단 암스테르담은 보르도 사중주 콩쿠르와 요제프 요아힘 바이마르 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4년에 뛰어난 실내악 단체에게 수여하는 '카이저 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 '보를레티-부이토니 트러스트 상'을 받은 실력파 연주단체이다. 이 음반은 15세기의 조스캥 데 프레부터 20세기의 바인베르크까지 폭넓은 시대의 다양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멘델스존의 〈사중주 6번〉은 폭풍과 같은 1악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려주며, 바인베르크의 〈사중주 3번〉은 회오리 바람을 헤쳐 나가는 듯한 극적인 전개가 사로잡는다.

RES10216
**모차르트: 플루트 사중주 전곡**
사미 유노넨(플루트), 챔버 도메인
**최고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이룩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연주**
핀란드 출신의 플루트 비르투오소인 사미 유노넨이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곡을 녹음했다. 이 작품들은 작은 협주곡과 같은 풍부하고 충실한 음악적 내용과 악기간의 완벽한 균형을 갖춘, 고전시대에 가장 빛나는 플루트 레퍼토리이다. 유노넨의 아름다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플루트 연주와 호흡을 맞춘 앙상블은 '챔버 도메인'이다. 이 단체는 현대음악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었던 팀으로, 세계 정상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의 모차르트 연주는 매우 정갈하고 단아하면서도, 생동하는 리듬으로 완벽한 앙상블을 구축하면서 독주자를 돋보이게 한다.

RES10218
**베네치아 1629**
곤차가 밴드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사운드로 변화되던 당시 1629년 베네치아의 음악**
17세기 중반에 독일 음악을 이끌었던 쉬츠는 젊은 시절인 1629년 베네치아에 유학했다. "젊은 시절에 위대한 가브리엘리에게서 배웠다. … 그들은 부분적으로 교회선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즉, 1629년 베네치아의 음악은 종교적인 신비감보다는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는 변화가 있었다. 쉬츠와 함께 당대 베네치아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몬테베르디, 카스텔로, 마리니, 그란디, 페센티, 타르디티, 카로네, 도나티, 레 등의 기악곡과 성악곡을 통해 이 변화의 때로 돌아가보자.

RES10220
**바로크 트럼펫을 위한 궁정의 화환**
로버트 팔리(바로크 트럼펫), 오르페우스 브리타니쿠스, 앤드루 아서(지휘)
**왕과 귀족을 상징했던 바로크 시대 트럼펫 음악의 고결한 아름다움**
17~18세기의 바로크 시대에 트럼펫은 왕과 귀족의 상징으로서 궁정에서 연주되는 악기였는데, 팡파르가 많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한 당시 트럼펫은 오늘날과 같이 피스톤이 없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음정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바로크 시대의 트럼펫 소나타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코렐리와 그로시, 비비아니, 파스키니, 판티니 등 이탈리아의 화려한 트럼펫 음악과, 비버, 슈멜처, 핑어 등 체코 출신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진지한 트럼펫 음악을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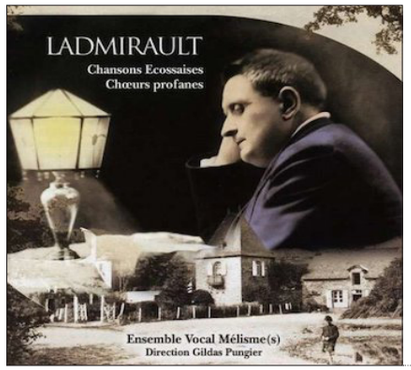
## Rondeau www.rondeau.de

ROP6158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
할레 합창단, 클레멘스 플레미히(지휘)
**900년 전통의 합창단이 들려주는 500년 역사의 독일 성가 합창**
할레 합창단은 자그마치 900년의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합창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이라는 이 앨범에서 16세기 마르틴 루터와 요한 발터부터 오늘날 토마스 부흐홀츠와 볼프람 부헨베르크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이르는 독일 성가의 역사를 수록했다.
이 앨범의 제목은 〈캐논〉으로 유명한 요한 파헬벨의 합창곡으로, 희망과 패기가 가득하다. 텔레만의 〈그 분은 나의 기쁨〉,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성이요〉는 바로크 시대의 거장다운 화려한 대위법과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며, 라인베르거의 〈밤의 노래〉는 낭만시대의 풍부한 화음과 짙은 감성이 영혼을 압도한다.

## SDG www.monteverdi.co.uk/shop

SDG 729
**2016 콘세르트허보우 실황**
**슈베르트: 교향곡 5번/ 브람스: 세레나데 2번**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혁명과 낭만의 오케스트라(ORR)
**합창의 명수 가디너만의 기악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조르디 사발이 창립한 '알리아 복스' 레이블처럼, 'SDG' 레이블(Soli Deo Gloria:오직 주님께 영광을)은 가디너가 2005년에 창립하여 영국 왕실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만큼 '가디너만의 색채'를 느껴볼 수 있다. 슈베르트와 브람스는 가디너가 애호하는 작곡가이다. 2016년 11월,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보우 실황 음반으로 가디너는 변화무쌍한 색채와 컨트롤로 슈베르트를 그려내고, 브람스에서는 치열하고 넓은 스케일로 그려내는 독특한 해석을 보여준다. 합창으로만 가디너를 접해온 마니아라면, 기악으로 펼쳐내는 가디너만의 신세계를 느껴볼 수 있는 음반이다.

## Skarbo www.skarbo.fr




DSK–2084

**폴 라드미로: 합창음악 작품집**

멜리즈마 보컬 앙상블(합창), 콜레트 디아르(피아노), 질다 팡지에(지휘)

**켈트와 프랑스적인 색채의 융합, 폴 라드미로의 합창 음악들**

포레의 제자이자 알프레드 코르토, 라벨, 에네스쿠와 친분이 깊었던 프랑스의 작곡가 폴 라드미로는 20세기 프랑스 합창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브리타뉴 지방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켈트와 프랑스적인 색채가 융합된 합창 음악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박하나 우아한 멋을 잃지 않고 있는 그의 합창음악 작품들 중에서도 '10개의 스코틀랜드 민요'는 작곡가의 대표작이자 음반이 백미이다. 여름날 저녁 미풍과 함께 감상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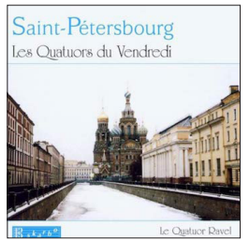
DSK3127

**말러: 교향곡 4번(에르빈 슈타인 편곡, 실내악 버전, 1920)**

조 니콜라이도(소프라노), 바스–노르망디 지역 오케스트라(연주), 장 드로이어(지휘)

**빛을 머금은 음색, '천국의 삶'을 노래함**

부르크너와 말러 교향곡의 실내악 버전은 원곡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아기자기하면서도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에르빈 슈타인이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한 말러 '교향곡 4번'은 다른 교향곡에 비해 단출한 분위기 속 행간의 여운을 잘 살려내고 있다. 가뿐한 선율과 묵직한 작품의 흐름을 아우르는 해석, 그 속에서 유영하는 소프라노 조 니콜라이도의 투명한 음색과 장 드로이어가 이끄는 바스–노르망디 지역 오케스트라의 빛을 머금은 연주는 '천상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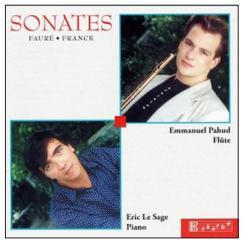

DSK4029

**상트–페테스부르크, 금요일의 현악사중주**

라벨 현악사중주단(연주)

**상트–페테스부르크, 금요일의 현악사중주**

디아벨리, 호프마이스터, 짐로크의 이름은 그들의 손을 거쳐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작곡가들 또는 작곡가들의 작품과 함께 거론되곤 한다.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애호가였던 러시아의 출판업자 발라예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트–페테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발라예프는 글라주노프, 림스키–코르사코프, 소콜로프 등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금요일 저녁 파티에서 이들의 작품을 소개했는데, 이 작품들은 '금요일(Les Vendrelis)'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금요일 저녁 파티의 정경과 더불어 러시아 근대음악의 한 획을 그은 '발라예프 사단'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음반이다.




DSK4074

**포레 & 프랑크: 이중주 작품집**

임마누엘 파후드(플루트), 에릭 르 사쥬(피아노)

**풋풋하고 화려한 색채, 봄날 저녁 풍경**

1870년대 프랑스 음악의 르네상스는 실내악에도 불어왔다. 본 음반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작곡가 포레와 프랑크의 작품을 담고 있다.(1996년 음원 재발매, SKARBO 4965) 초봄의 파릇파릇한 풍경을 담은 젊은 시절 임마누엘 파후드와 에릭 르 사주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본 음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들의 호흡은 예상대로 작품의 화려한 색감과 서정에 한층 상큼한 활기를 불어넣으며 봄날 저녁 낭만의 서정을 연출한다. 특히, 포레의 작품은 음반의 백미이다. 감상을 권하고 싶다.

DSK4089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작품집**

듀오 커드 에 암(CORDES ET AMES, 연주)

**현과 영혼, 남아메리카의 인상에 부침**

듀오 '커드 에 암(CORDES ET AMES, 현과 영혼)'은 정통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정격과 파격의 수준 높은 조화를 목적으로 2001년 결성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피아졸라, 막시모 디에고 푸요, 데이비드 레이즈너, 히랄도 프란체스코 곤잘레스의 작품을 음반에 담았다. 탱고와 삼바 등 남아메리카의 인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면모는 '정격과 파격'을 아우르려는 연주자들의 폭넓은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아메리카 인상에 부친 '현과 영혼'의 밀도 높은 교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DSK–4094

**베토벤 & 레거: 세레나데**

미셸 드보스트(플루트), 마사메 타카코 & 린 람제(바이올린)

**미셸 드보스트가 연주하는 베토벤과 레거의 세레나데**

임마누엘 파후드의 스승이자 장 피에르 랑팔에 이은 프랑스 최고의 플루티스트 미셸 드보스트의 2008년도 녹음이다. 베토벤과 레거의 세레나데를 연주하는 미셸 드보스트의 연주는 그의 저서 《Simple Flute》를 연상시키듯 명쾌하고 경쾌하며 화려하다.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막스 레거 '세레나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본 음반의 가장 큰 장점이다. 플루트 레파토리의 대부분을 섭렵한 대가의 손길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 휴식과 함께 해도 좋을 법하다. 강력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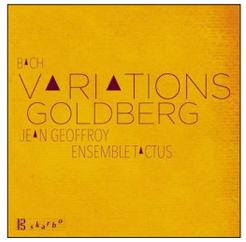
DSK4121

**기타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스페인 합창 음악 작품집**

듀오 커드 에 암(CORDES ET AMES, 연주)

**'카르멘'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바이올린과 기타의 자태**

프랑스의 바이올린 연주자 사라 셰날과 기타 연주자 올리비에 펠 므와느가 2001년 결성한 '커드 에 암(CORDES ET AMES, 현과 영혼) 이중주단'은 이름이 보여주듯 기타와 바이올린(현)의 교감을 통해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구사하고 있다. SKARBO 레이블의 데뷔작(DSK–4177)에 이어 본 음반에는 19세기–현대 스페인 음악을 담았다. 스페인 민요와 무곡을 모티브로 한 파야와 그라나도스의 이국적이고도 열정적인 풍광, 바이올린의 요염한 자태, 기타의 리드미컬한 추임새는 '카르멘'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DSK4147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 마림바 편곡 버전)**

장 조프로이 & 앙상블 타크투스(연주)

**마림바로 편곡된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

반다 란도프스카와 글렌 굴드의 연주로 작품의 '매력'을 알린 이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와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와 소나타'의 마림바 편곡 버전으로 주목받은 마림바 연주자 장 조프로이는 앙상블 타크투스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통해 다시 한 번 바흐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5대의 마림바와 1대의 비브라폰으로 연주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나뭇결의 온기와 하프시코드의 청량감을 머금은 반향으로 다른 편곡 버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윽한 느낌을 선사한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색다른 편곡의 신선함, 자연스러운 전개 역시 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놓칠 수 없는 음반, 강력 추천한다.

DSK4150A

**프랑스 여성작곡가 작품집**

사라 셰날(바이올린), 장 – 피에르 페레(피아노)

**19세기–현대 프랑스 여성 작곡가들의 소품 모음집**

19세기–현대 프랑스 여성 작곡가들의 소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프랑스 여성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작품들을 음반 한 장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커드 에 암(CORDES ET AMES, 현과 영혼) 이중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셰날의 감각적인 연주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음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음반 수록 작곡가를 포함한 프랑스 여성 작곡가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 DVD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유려하고 화려한 매력과 속이 꽉찬 구성은 여성 작곡가들에 대한 참고 자료로써 가치를 더한다.

DSK4176
**'하르페지오네' – 하프와 첼로를 위한 작품 연주집**
라파엘 페로(첼로), 니콜라 툴리에(하프)

**금슬상화(琴瑟相和), 하프와 첼로의 명상**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 라파엘 페로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하프 수석 니콜라 툴리에는 몇 년 전 동일본 대지진(2010)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를 위해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본 음반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라벨의 '카디시' 등 하프와 아르페지오네(하르페지오, HARPEGGIONE : 하프 + 아르페지오) 이중주가 조심스레 건네는 명상적인 음색에는 섬세하게 감정을 어루만지는 메시지가 우러난다. 상처의 위안과 회복을 바라는 연주자들의 마음은 오롯이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DSK4179
**피콜로의 파가니니, 장-루이 보마디에 피콜로 리사이틀**
장-루이 보마디에(피콜로), 쿠도 시게노리(工藤重典, 플루트), 마리아-호세 카라스케이라 & 라에티시아 부뇰 & 안 구이디(피아노)

**피콜로의 파가니니, 보마디에의 현란한 매력**
'피콜로의 파가니니'. 스승인 장-피에르 랑팔의 찬사가 보여주듯 '피콜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루이 보마디에의 연주는 이미 정평이 나있다. 피콜로 레파토리의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보마디에 열정의 결과물인 본 음반은 19-20세기 유명 플루트 연주자들의 작품들을 피콜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짱짱하다'란 말이 어울릴 법한 피콜로의 음색과 현란한 질주는 긴장을 풀 만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 쿠도 시게노리를 비롯한 협연 연주자들의 완벽한 호흡이 돋보이는 음반의 마지막 트랙, 주세페 라보니의 '리골레토의 (주제에 의한) 사색(명상)'은 음반의 백미이다. 눅눅함을 달래주는 상큼한 연주, 강력 추천한다.

##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80 [2CD for 1.5]
**베토벤을 잊지 마세요**
갈리나 브라체바(작곡, 피아노)

**즉흥연주의 거장이 베토벤의 교향곡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풀어놓은 환상곡들**
베토벤의 교향곡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매우 독특한 앨범이다. 갈리나 브라체바는 고전음악 분야 즉흥연주의 거장 중 한 사람으로, 수많은 협주곡의 카덴차를 직접 만들었으며, 즉석으로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회를 다수 가졌다. 그녀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풍부한 낭만적 감수성을 불어넣어 완전히 자신의 작품으로 재탄생 시켰다. 각 작품에 그녀가 받은 인상을 제목으로 붙였으며, 이로써 감상자는 그녀의 꿈결 같은 타건을 타고 예술적 감수성에 더욱 깊이 동참하게 된다.

SM290
**마르쿠스 레만-혼 작품집**
북독일 방송 관현악단, 뮌헨 방송 관현악단 등

**클래식과 영화음악 두 분야에서 인정받은 레만-혼의 현대적인 음악세계**
마르쿠스 레만-혼은 뮌헨과 뷔르츠부르크에서 공부했으며, 2009년 게하르트 셰들 음악극 상, 2010년 베를린 오페라 상, 2011년 파울 힌데미트 상, 2016년 브란덴부르크 비엔날레 우승 등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곡가이다. 그는 영화음악도 인정을 받아 2009년 프란츠 그로테 상, 제리 골드스미스 상 최고 영화음악 부문 등을 수상하고, 2016년 에미 상 후보에 올랐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긴장감이 가득하고 감상자를 강하게 몰입시키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 그의 대표작인 타악기 협주곡 '붉은…'와 여러 독주곡들은 저마다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SM286
**美의 예찬: 목소리와 악기를 위한 음악**
소냐 로이트뷜러(메조소프라노), 아스트리트 로이트뷜러(바이올린), 베냐민 엔겔리(피아노) 등

**목소리와 피아노, 그리고 현악이 어우러져 감성의 폭이 더욱 확대된 명작들**
취리히 출신의 소냐 로이트뷜러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섭렵한 가수로, 풍부한 성량과 따뜻한 음색으로 훌륭한 가곡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 음반은 특별히 피아노 뿐만 아니라 기악이 함께하는 작품을 수록했다. 초기낭만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슈포어의 〈여섯 개의 노래〉를 비롯하여, 밤의 신비로운 감성이 전달되는 생상스의 〈바이올린의 밤의 춤〉, 차분하고 평온한 브람스의 〈두 개의 영적인 노래〉, 태양이 떠오르는 신성한 분위기가 가득한 아이브즈의 〈일출〉, 한 편의 모노드라마와 같은 레스피기의 〈일몰〉 등 인상적인 작품들을 수록했다.

##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25
**켈트의 류트**
론 맥팔레인(류트)

**오늘날에도 매력을 잃지 않은 18세기 초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감미로운 음악**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류트 연주자인 론 맥팔레인이 18세기 초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음악을 연주했다. 이 지역은 켈트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들의 음악은 반복되는 화음 반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멜로디가 편하고 아름다워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 음반에는 아일랜드의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인 투를러흐 오카롤란과 스코틀랜드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오스왈드, 그리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민속음악을 수록했다. 약 300년 전 유업 변방 섬 지역의 음악이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감성에도 잘 어울리며 깊이 사무치는 감동을 전한다.

## Tactus www.tactus.it

TC830001

**카라미엘로: 나폴리의 노래와 유명한 선율로 만든 작품들**

레티치아 벨몬도(하프)

**짙은 감성에 젖은 아름다운 선율들로 가득한 낭만 시대 이탈리아의 정취**

지오바니 카라미엘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나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였으며 교육자였다. 이 음반은 카라미엘로가 나폴리의 노래들과 유명한 선율을 주제로 하여 작곡한 하프 작품을 녹음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산타 루치아〉와 글루크의 '에우리디체 없이 무얼 하리' 등을 비롯하여, 페르골레시, 베토벤 등의 선율들과 화려한 변주를 들을 수 있다. 〈베수비오 세레나데〉는 짙은 감성에 젖은 아름다운 선율들로 가득하며, 한 세대 앞선 알바노와 그라치아니의 작품에서도 낭만 시대 이탈리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Tafelmusik www.tafelmusik.org

TMK 1034CD **[6CDs] [SPECIAL PRICE]**

**2005~16 베토벤 전곡 모음집 – 브루노 바일 & 타펠무지크**

브루노 바일(지휘),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교향곡 9번: 시그리드 플런드리치(소프라노), 마리-엘렌 네쉬(메조소프라노), 콜린 밸저(테너), 시몬 티슐러(베이스 바리톤)

**하나에 모인 '그들만의 베토벤'**

브루노 바일(1949~)이 이끄는 타펠무지크는 1979년에 창단된 시대악기 전문오케스트라로, 하이든 · 비발디 · 라모 · 베토벤 등을 수록한 음반을 그들만의 문법으로 내놓고 있다. 그 어떤 작곡가보다 베토벤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음반을 내놓았던 바일의 힘은 타펠무지크와의 프로젝트로 이어져 2005~16년에 베토벤 교향곡을 낱장의 음반으로 내놓았고, 그때마다 독특한 해석은 세계음악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여정이 여섯 장의 CD에 담긴 이 음반에서 베토벤은 '속전속결'의 속도감을 자랑한다. 해설지(38쪽 분량/영 · 불어)에는 사진 · 곡목해설이 수록, 현악기들의 농후한 음색, 이와 선명히 부각되는 목관들로 인해 차가움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연주가 일품이다.

##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481

**호세 비아나 다 모타: 피아노 작품집**

루이스 피파(피아노)

**탄탄한 형식미와 애틋한 서정, 감각적인 리듬을 두루 갖춘 포르투갈의 감성**

호세 비아나 다 모타는 포르투갈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리스트의 마지막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한스 폰 뷜로에게도 배웠다. 그는 바흐와 베토벤에 일가견이 있었으며, 알캉의 기교적인 작품들도 소화하는 등 레퍼토리의 폭이 넓었다. 그의 작품 또한 탄탄한 형식미와 낭만적인 감성을 두루 갖고 있다. 〈뱃노래 1번〉와 〈환상소곡〉, 〈오후의 기도〉, 〈명상곡〉 등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애틋한 서정성을 지녔으며, 〈세레나타〉, 〈뱃노래 2번〉은 감각적인 춤곡 리듬이 매력적이다. 〈피아노 소나타〉는 무게감이 남다른 저음과 발랄한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다.



## Busch Media www.buschmediagroup.com

Busch Media 8032499 **[4K Ultra HD]**

### 4K Utra HD 블루레이

***본 상품들은 4K 블루레이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FLYING CLIPPER

**1960년대 지중해를 여행하는 스웨덴 요트의 모험에 관한 기념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이 영화를 위해 특수 제작된 70mm 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화는 고해상도 형식으로 제작된 최초의 독일 영화이다. 요트가 정박한 도시 곳곳의 풍경과 일상 : 모나코의 포뮬러 원 경주, USS 항공모함의 위엄은 당시 촬영 기술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걸작이며 오늘날에도 놀라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카메라맨들이 동행하여 이 흥미 진진한 모험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원본 필름과 사운드를 4K로 리마스터링하여 영화관에서의 감동을 집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35 [DVD]
Accentus ACC10435 [Blu-ray]

accentus music

### 2017 취리히 오페라
### – 레하르 '미소의 나라'

파비오 루이지(지휘), 취리히 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안드레아스 호모키(연출), 표트르 베찰라(스 천), 율리아 클라이터(리사), 스펜서 랑(구스타프)

**오페레타의 스타 베찰라에게 매료될 시간**

호모키의 동 · 서양이 공존하고 대비되는 감각적인 연출에 루이지는 목관으로 동양적 선율을 경쾌하게 그린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의 배경은 1910년 빈과 북경이다. 빈의 외교관 스 천(베찰라)과 결혼하여 중국에 간 리사(클라이터)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주하지만, 스 천은 그녀를 사랑하여 보내준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덕션의 묘미는 2막이다. 대표곡인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를 부르는 베찰라는 오페레타의 스타 리하르트 타우버를 연상시키고, 도주 중 걸린 리사를 둘러싸는 군중씬은 마치 '투란도트'의 한 장면처럼 스케일과 긴장감을 살렸다.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처럼 동양 배경의 오페라 마니아에게 적극 추천한다. 해설지(44쪽 분량)에 호모키의 인터뷰와 작품해설(영 · 불 · 독어) 수록.

**[보조자료]**

–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극장에서 베르크의 '보체크'(2015.9)의 연출을 맡으며 화제를 낳았던 연출가 안드레아스 호모키가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를 연출한 2017년 6월 실황이다. '미소의 나라'가 일컫는 중국 풍의 미장센이 가득하고, 남주인공 역의 표트르 베찰라의 존재는 화룡정점을 찍는 대작이다.

– '미소의 나라'의 배경은 1910년의 빈과 북경. 빈에 외교관으로 간 남주인공 스 천은 백작의 딸 리사와 사랑에 빠진다.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일부다처제 등 빈과는 다른 이국의 문화에 리사는 상처받게 되고, 함께 온 기사 구스파프와 함께 고향으로 도망친다. 도망 중 두 사람은 잡히지만, 스 천은 리사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이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준다.

– 호모키의 연출은 원작의 대화를 줄였고 압축적인 진행으로 간결한 구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치파오 등 중국전통 복장과 테니스 복장을 입은 합창단과 군무를 통해 빈과 북경의 분위기를 대조적으로 가져간다. 파비오는 목관악기들을 마치 동양의 피리류처럼 활용하여 동양적인 분위기로 음악을 가득히 채운다.

– 이 무대의 묘미는 2막이다. 작품의 대표곡인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를 부르는 베찰라의 목소리는 오페레타의 스타 리하르트 타우버(1891~1948)를 떠오르게 한다. 도주하다가 걸린 리사를 둘러싸는 군중씬도 '투란도트'의 한 장면처럼 연출하여 스케일과 긴장감을 살렸다.

– 해설지(44쪽 분량)에는 호모키의 인터뷰와 작품해설(영 · 불 · 독어)이 수록되어 있다.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처럼 동양 배경의 오페라 마니아에게 적극 추천한다.

Accentus ACC20438 [DVD]
Accentus ACC10438 [Blu-ray]

### 2017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
### –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 차이콥스키 '만프레드'

리카르도 샤이(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샤이가 선보이는 19세기 낭만주의의 진수**

2003~2014년에 아바도가 음악감독으로 이끌었고, 2016년부터 샤이가 그 뒤를 잇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는 각 오케스트라의 스타단원들이 모인 초호화 오케스트라이다. 영상물은 2017년 8월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 콘서트홀 실황이다. 1 · 2부를 협주곡보단 관현악으로 채워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는 LFO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서곡과 부수음악 Op.21&61, 차이콥스키 '만프레드'로 19세기 낭만주의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샤이는 두 작품의 음악적 이미지를 화려하고 신선하며 매혹적인 연주로 각성시키며, 특히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은 듣는 이를 설레게 한다. 해설지(31쪽 분량)에 오케스트라와 작품 해설과 단원 명단이 실려 있다.

**[보조자료]**

–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는 전세계 메이저급 오케스트라의 수석과 단원들이 한데 모인 슈퍼 오케스트라이자 드림팀이다. 2003년 아바도가 음악감독에 취임하면서 전대미문의 초호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고, 2014년 아바도 타계 이후 2016년에 리카르도 샤이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아바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샤이는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감독 시절에 일군 화려한 유산들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 영상물은 2017년 8월 루체른 페스티벌이 열리는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 콘서트홀 실황을 담고 있다. 협연자를 내세운 일반 콘서트와 달리 많은 공연의 1부와 2부를 굵직한 관현악 작품으로 채워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악단은 2017년 10월 내한공연 당시에도 그렇고(베토벤 교향곡 8번,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이 공연에서도 1부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서곡과 부수음악 Op.21과 Op.61, 2부는 차이콥스키의 '만프레드' 교향곡으로 채웠다. 19세기 낭만주의를 수놓은 두 작곡가의 관현악명작을 오케스트라 드림팀으로 만나는 환상의 시간이다.

– 샤이의 지휘는 두 작품의 음악적 이미지를 화려하고 신선하며 매혹적인 연주로 각성시킨다. 특히 '한여름밤의 꿈'의 마지막 곡인 '웨딩 마치'는 그 어느 연주보다 설레는 경험을 선사한다.

– 해설지(31쪽 분량)에는 악단과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만큼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영상물의 해설지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Accentus ACC20443 [DVD]
Accentus ACC10443 [Blu-ray]

## 2018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 안드리스 넬슨스 취임 공연(베르크 · 멘델스존)

안드리스 넬슨스(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바이바 스크리데(바이올린)

**전통과 현대를 모두 챙기는 넬슨스의 청사진**

리카르도 샤이(2005~16)의 뒤를 잇는 안드리스 넬슨스의 2018년 2월 22일, 취임 공연 실황이다. 넬손스는 19세기(멘델스존)부터, 20세기(베르크)와 21세기(슐라이에르마허) 작품을 통해 1781년에 창단된 이 악단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바이바 스크리데가 함께 하는 베르크는 모더니즘의 현대적 감각보단 자연주의적 음향으로 편안히 다가오고, 멘델스존은 이 악단의 카펠마이스터로 활약한 멘델스존(1835~1843)로부터 배어 있는 전통의 자취가 배어나오게 한다. 해설지(38쪽 분량, 독 · 영 · 불어)에는 그의 취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음악평론가 안 카트린 지메르만의 심도 깊은 평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24세에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 29세의 젊은 나이로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12대 음악감독으로 지명된 안드리스 넬손스는 2015년, 세계 최고(最古)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로부터 2005~16년에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한 리카르도 샤이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넬손스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보스턴 심포니와 유럽에서 가장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표 오케스트라 두 곳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셈이다.

– 이 영상물은 2018년 2월 22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으로 넬손스의 취임공연이다. 어느 취임 공연이나 그렇듯이 지휘자는 자신의 레퍼토리로 비전을 제시한다.넬손스는 라이프치히의 작곡가 스테판 슐라이에르마허(1960~)의 위촉곡 '오케스트라의 여백(Relidf for Orchestra)',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어느 천사를 추억하며', 멘델스존 교향곡 3번 '스코티시'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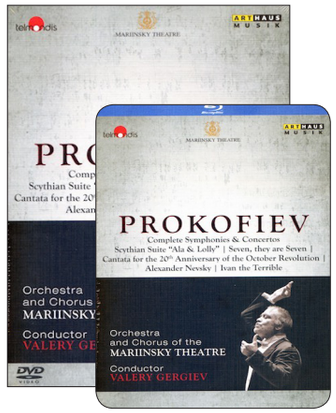
– 이중 '스코티시'는 1842년 작곡가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초연한 전통이 있다. 어쨌든 19세기(멘델스존)부터, 20세기(베르크)와 21세기(슐라이에르마허)를 통해 1781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우리 시대의 음악을 선보이는 비전상이다. 바이바 스크리데가 함께 하는 베르크는 모더니즘의 현대적 감각보단 자연주의적 음향으로 편안히 다가오고, 멘델스존은 이 악단의 카펠마이스터로 활약한 멘델스존(1835~1843)로부터 배어 있는 전통의 자취가 배어나오게 한다.

– 해설지(38쪽 분량, 독 · 영 · 불어)에는 그의 취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음악평론가 안 카트린 지메르만의 심도 깊은 평이 담겨 있다.

***함께 추천해요!**
**– 2017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ACC 20419)**
드보르자크 '루살카', '신세계' 교향곡(안드리스 넬슨스(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소프라노)

#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329 [7DVDs]
Arthaus 109330 [4Blu-ray]

****러시아 음악의 과거와 현주소,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영상물**

## 2016년 프로코피예프 탄생 125주년 기념 프로젝트 게르기예프! 프로코피예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데니스 맞추예프 · 다닐 트리포노프(피아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바이올린), 율리아 마토츠키나(메조소프라노) 등

**게르기예프! 프로코피예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프로코피예프 탄생 125주년을 맞은 2016년. 음악왕국을 대표하는 '차르' 게르기예프와 그의 수족 같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차르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8명의 기악 독주자와 4명의 성악가, 배우가 프로코피예프의 수무(20) 작품을 차이콥스키 콘서트홀과 마린스키 극장에서 한 해 동안 선보였다. 3장의 블루레이에는 작곡가의 일생을 따라 스무(20) 작품들이 연대기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치 '작품으로 살펴보는 프로코피예프의 삶' 같다. 이외 다큐멘터리 '길 위의 프로코피예프'(90분/영어 자막)과 두툼한 부클릿(95쪽/영 · 불 · 독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박스물은 프로코피예프의 기념비이자, 전세계에 우뚝 선 러시아 음악가들의 포트폴리오와 같다. 실연으로 만나기 힘든 프로코피예프의 대형 합창작품과 칸타타를 만나는 것 역시 큰 매력. 정리하자면 박스물 하나로 러시아 음악의 과거와 현주소,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프로코피예프와 게르기예프의 팬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희소식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콘서트홀과 마린스키극장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실황으로, 프로코피예프 탄생 125주년을 맞아 러시아 음악계의 '차르'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 합창단과 함께 한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세 장의 블루레이 디스크에는 교향곡 1~7번, 피아노 협주곡 1~5번, 바이올린 협주곡 1~2번, 스키타이 모음곡,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협주곡 Op.125, 칸타타 '그들은 7명', 칸타타 '알렉산더 네프스키' Op.7, 오라토리오 '이반 뇌제', 10월 혁명 20주년 기념 칸타타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 한 장의 블루레이 디스크는 다큐멘터리 '길 위의 프로코피예프'(90분/영어 자막)이며, 백과사전 같은 두툼한 부클릿(95쪽 분량)도 수록되어 있다.

– 프로코피예프는 6세의 어린 나이로 작곡을 했고, 1918년 러시아 혁명을 피해 여러 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고 나서 1932년 러시아로 다시 돌아왔다. 작곡가의 이러한 여정을 따라 1911년 작품부터 1952년의 작품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디스크 속에 배치되어 있다.

– 이 박스물의 매력은 일명 '차르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솔리스트들의 출연이다. 피아니스트 데니스 코츠킨 · 데니스 맞추예프 · 다닐 트리포노프 · 세르게이 레드킨 · 바딤 콜로덴코,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 크리스토프 바라티, 첼리스트 알렉산더 람, 테너 이고르 모로조프, 메조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 메조소프라노 율리아 마토츠키나, 베이스 미하일 페트렌코, 배우 알렉세이 페트렌코가 협주곡과 칸타타에 함께 한다.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 출신으로, 음악왕국이라 불리는 고국 러시아는 물론 전세계 음악계에 우뚝 선 음악가들이다.

– 국내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이나 바이올린 협주곡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거대한 규모의 칸타타 · 합창은 실연으로 접하기 힘들다. 설령 음반으로 만난다 해도 그 규모와 스케일을 체감하긴 힘들다. 이 박스물의 매력은 이처럼 귀한 합창곡과 칸타타를 성악과 오페라에도 능통한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PCM 스테레오와 DTS-HD 마스터 오디오 5.1로 구성된 오디오 옵션을 통해 생생한 음질과 사운드로 이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 하드커버 해설지는 95쪽 분량으로, 영 · 불 · 독어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125주년 프로젝트 소개, 게르기예프가 말하는 프로코피예프, 상세한 곡목 해설, 지휘자 및 협연자 소개, 영상물 트랙 소개, 크레딧이다.

**[관련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stFy7z82ng&index=1&list=PL1jxGZJetr1YLBEGRsRFNqbeGb6_FhMjM

**[수록내용]**

**블루레이 ( I ) YOUNG PROKOFIEV (1891–1918)**
〈젊은 프로코피예프〉와 〈미국 시절〉로 구성되어 있다(※괄호 속은 인명은 협연자).
〈젊은 프로코피예프 Young Prokofiev (1891–1918)〉
* 피아노 협주곡 1번(데니스 코츠킨)
* 피아노 협주곡 2번(데니스 맞추예프)
* 스키타이 모음곡 Op.20.
* 교향곡 1번
* 바이올린 협주곡 1번(레오니다스 카바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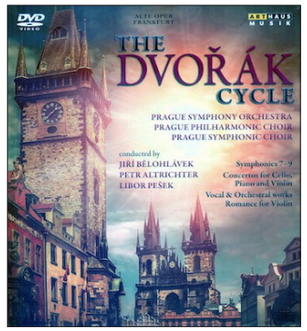
AMERICAN PERIOD (1918–1932) 〈미국 시절(1918–1932)〉
* 피아노 협주곡 3번(다닐 트리포노프)
* 테너 · 합창 · 오케스트라를 위한 칸타타 '그들은 7명' Op.30(테너 이고르 모로조프)
* 교향곡 2번, 교향곡 3번

**블루레이 (II) American period (1918–1932), Reconciliation**
〈미국 시절〉이 이어지고, 〈화해〉에는 러시아로 돌아와 만든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미국 시절(1918–1932)〉
* 교향곡 4번.
* 피아노 협주곡 4번(세르게이 레드킨)
* 피아노 협주곡 5번(바딤 콜로덴코)

RECONCILIATION 화해 (1932–1953
〈화해(1932–1953)〉
* 바이올린 협주곡 2번(크리스토프 바라티)
* 10월 혁명 20주년 기념 칸타타 Op.74
* 칸타타 '알렉산더 네프스키' Op.78(메조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

**블루레이 (III)**
〈화해〉편에 속하는 작품들이 이어진다.
〈화해(1932–1953)〉
* 나레이터 · 솔리스츠 · 합창 ·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라토리오 '이반 뇌제' Op.116(메조소프라노/율리아 마토츠키나, 베이스/미하일 페트렌코, 나레이터/알렉세이 페트렌코)
*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
*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협주곡 Op.125(알렉산더 람)
* 교향곡 7번

**블루레이 (IV) 프로코피에프 다큐**
"On the Way"(길 위의 프로코피에프) 90분




Arthaus 109355 **[6DVDs]**

## 드보르작 사이클 전집
## 낱장으로 출시되었던 DVD를 박스로 재구성
## – 6DVDS [SPECIAL PRICE]

### [DVD 1] 드보르작 사이클 VOL.1
**드보르작: 교향곡 7번, 슬라브 춤곡 2권, 로망스**

**이지 벨로흘라벡이 지휘하는 드보르작 교향곡 7번**
1993년 프랑크푸르트의 알테 오퍼에서 펼쳐졌던 프라하 심포니의 드보르작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발매되었다. 본 DVD에는 작곡가의 첫 교향곡 성공작인 교향곡 7번과 슬라브 춤곡 중 제2권, 그리고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서정적인 작품인 로망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드보르작은 1884년 런던 필하모닉협회의 명예회원이 되면서 협회로부터 새로운 교향곡의 작곡을 위촉받았다. 이듬해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교향곡 7번이다. 이 교향곡은 은은히 흐르는 보헤미아의 향토적인 정서 위로 남성적인 비장미가 전곡을 지배하는 작품으로, 특히 아름다운 선율미가 돋보이는 3악장 스케르초가 매력적이다. 로망스는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완성한 곡이었지만, 현재는 작곡가 자신이 관현악반주로 편곡한 버전이 보다 자주 연주된다. 베토벤의 동명작품에 비견될 만큼 서정미가 빼어난 작품으로, 1987년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이반 제나티의 섬세한 연주가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 [DVD 2] 드보르작 사이클 VOL.2
**드보르작: 성경의 노래들, 테 데움, 바이올린협주곡**
에바 란도바(ms)/ 이반 제나티(vn)/ 이지 벨로흘라벡/ 프라하 심포니

**로맨틱 협주곡의 걸작인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1993년 프랑크푸르트의 알테 오퍼에서 펼쳐졌던 프라하 심포니의 드보르작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발매되었다. 드보르작은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브람스와 마찬가지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요아힘을 위해 협주곡을 완성하였다. 요아힘은 작품의 초고를 수정해주는 등 작곡에 도움을 주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초연을 거절했다. 결국 1883년 프라하에서의 초연은 체코 연주자 프란티섹 온드리첵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정적인 2악장과 보헤미아 민속춤곡의 느낌이 배어나오는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1987년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이반 제나티가 독주를 맡았다. 드보르작은 미국 체류당시 체코어 성서에서 텍스트를 취하여 10곡의 피아노반주 연가곡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그는 그 중 5곡을 택하여 반주를 관현악으로 편곡하였고, 현재 이 관현악 버전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역시 미국체류 당시 컬럼버스의 신대륙발견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해 완성한 작품인 테 데움은 스타바트 마테르, 레퀴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곡가의 종교음악 걸작이다.

### [DVD 3] 드보르작 사이클 VOL.3
**드보르작: 교향곡 8번, 피아노 협주곡**
이고르 아르다세프(pf)/ 페트르 알트리흐터/ 프라하 심포니

**드보르작의 아름다운 교향곡 8번과 숨겨진 걸작 피아노협주곡**
1993년 프랑크푸르트의 알테 오퍼에서 펼쳐졌던 프라하 심포니의 드보르작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발매되었다. 1889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교향곡 8번은 드보르작의 교향곡들 가운데 가장 보헤미아의 향토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우아하면서도 애상적인 선율로 채워진 3악장 스케르초의 아름다움이 각별하며, 약동하는 마지막 악장의 리드미컬한 율동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다. 당시 프라하 심포니의 수석객원지휘자로 활약했던 페트르 알트리흐터가 지휘봉을 잡아 민속적인 색채가 듬뿍 배어나오는 이 교향곡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드보르작의 유일한 피아노협주곡은 한동안 세인들의 관심권 밖의 작품이었지만, 리히터와 클라이버

의 역사적인 명연을 통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은 작품이다. 독주자의 기교과시를 지양하고 관현악과의 유기적인 조화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롱-티보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두루 입상했던 체코의 중견 피아니스트 이고르 아르다세프가 피아노 독주를 맡았다.

## [DVD 4] 드보르작 사이클 VOL.4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첼로협주곡**

미샤 마이스키(vc)/ 리보르 페섹/ 프라하 심포니

**리보르 페섹의 신세계 교향곡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협주곡**

1993년 프랑크푸르트의 알테 오퍼에서 펼쳐졌던 프라하 심포니의 드보르작 콘서트 시리즈가 DVD로 발매되었다. 신세계 교향곡과 첼로협주곡을 함께 담고 있는 본 DVD는 수록곡들의 지명도에서 단연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는 푸른색 실크블라우스를 걸치고 자신감 넘치는 보잉으로 첼로협주곡을 리드해나간다. 이 걸작에 대한 자신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속주의 와중에도 다양한 뉘앙스를 담아내는 그의 표현력이 돋보인다. 체코를 대표하는 현존 거장인 리보르 페섹은 박력 넘치는 신세계 교향곡을 들려준다. 팀파니의 단단한 타격 음과 더불어 야성미를 한껏 강조한 1악장이 기선을 제압하며, 다소 거친 디테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매력이 조심스레 배어나오는 2악장도 정감이 간다. 생기발랄하면서도 구성지게 연출된 스케르초에 이어서, 일사불란한 앙상블과 적절한 완급조절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악장이 마무리된다.

## [DVD 5] 드보르작 사이클 VOL.5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Op.58**

에바 우르바노바(sop)/ 카테르지나 카흘리코바(ms)/ 슈테판 마르기타(te)/ 페테르 미쿨라슈(bass)/ 리보르 페섹/ 프라하 심포니와 합창단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냈던 아버지의 절절한 비감을 담은 걸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성모의 단장의 슬픔을 텍스트에 담은 스타바트 마테르는 르네상스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였다. 페르골레지, 로시니, 드보르작이 남긴 스타마트 마테르가 특히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드보르작의 작품은 연주편성과 작품의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걸작이다. 1875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째 딸이 사망하는 불행을 겪었던 드보르작은 스타바트 마테르를 통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1877년 작품의 최종버전이 완결되기까지 드보르작은 둘째 딸과 첫째 아들까지도 차례로 잃고 말았다. 자식을 셋이나 먼저 떠나보냈던 드보르작의 비애감은 역시 자식을 잃은 성모의 슬픔을 담은 이 작품 속으로 완전히 이입되어 애절하기 이를 데 없는 종교합창곡의 걸작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본 DVD는 체코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의 한 사람인 리보르 페섹이 프라하 심포니와 합창단을 지휘한 1993년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 [DVD 6] 드보르작 사이클 VOL.6

**드보르작: 레퀴엠 Op.89**

루치아 포프(sop)/ 에바 란도바(ms)/ 요제프 프로차카(te)/ 페테르 미쿨라슈(bass)/ 페트르 알트리흐테르/ 프라하 심포니와 합창단

**세계적인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상물**

드보르작의 레퀴엠은 1890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영국에서 초연되었다. 작곡가의 이전 종교음악 걸작인 스타바트 마테르의 유명세가 워낙 강렬하다보니 그 그늘에 가려진 느낌이 있지만,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레퀴엠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토대로 완성되었던 스타바트 마테르와 달리 본 레퀴엠은 영국 버밍엄 음악축제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비애감이 스타바트 마테르만큼은 절절하지 못하다는 비평을 듣곤 했다. 전통적인 레퀴엠의 라틴 고유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4파트의 솔리스트와 4성부 합창단 그리고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하는 큰 스케일의 작품이다. 본 DVD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있었던 프라하 심포니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당시 동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 페트르 알트리흐터가 지휘봉을 잡았고, 본토 출신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였다. 특히 같은 해 11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마지막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48 [DVD]
BelAir BAC448 [Blu-ray]

### 2017 베로나 페스티벌 실황 – 베르디 '나부코'

다니엘 오렌(지휘), 베로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아흐로 베르나르(연출), 조지 가닛제(나부코), 수잔나 브란치니(아비가일레), 라파트 시베크(자카리아), 루벤스 펠리차리(이스마엘)

**올 여름 휴가지를 결정하는 영상물!**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배경지인 베로나. 베로나의 원형경기장에 펼쳐지는 베로나 페스티벌의 베르디 '나부코' 실황물(2017.8)이다. 베르디는 과거의 바빌론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여 초연(1842)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아흐로 베르나르의 연출은 무대배경을 19세기의 이탈리아로 설정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마차가 직접 등장하고, 총과 대포가 발사된다. 성악진과 세트를 담는 영상기법도 혁신적이다. 마치 영화 '레 미제라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2008년부터 메트의 '리골레토' '토스카' 등에 부지런히 오르고 있는 바리톤 조지 가닛제는 대형무대를 힘 있게 장악한다. 백야가 점차 어둠에 잠기며 화려한 매력을 뿜어내는 무대를 보고있노라면 올해의 휴가로 베로나행을 생각해보게 한다. 2018년에는 새로운 '나부코'가 기다리고 있다(7.12~8.18). 해설지(31쪽 분량/영 · 불 · 이)에는 연출가노트,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영상이 시작되면 베로나의 골목과 광장의 풍경이 펼쳐진다. 베로나의 명물인 고대 원형경기장도 보인다. 베로나는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 13세기 여관을 복원한 줄리엣 집의 발코니는 명소 중 한 곳이다. 줄리엣이 허구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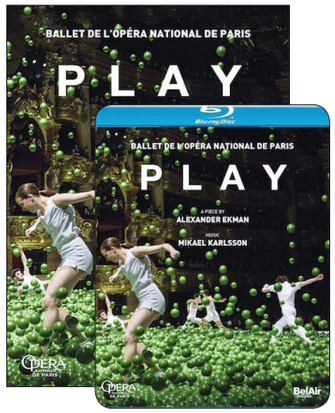
– 영상물은 2017년 8월 베르디 '나부코' 실황이다. 1913년에 시작된 베로나 페스티벌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원형경기장을 무대로 하는 세계적인 오페라페스티벌이다.

– 1842년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초연된 '나부코'는 베르디의 첫 히트작이었다. 당시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던 이탈리아의 상황을 잘 묘사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다. '제2의 이탈리아 국가(國歌)'라 불리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본 영상물의 트랙21)과 현재 이탈리아 국가(國歌)의 테마 음악이 나오는 합창의 오페라이기도 한다.

– 베르디는 과거의 바빌론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여 초연(1842)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연출가 아흐로 베르나르는 작품의 배경을 19세기의 이탈리아로 설정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초대형무대에는 마차가 직접 등장하고, 총과 대포가 발사된다. 성악진과 세트를 담는 영상기법도 혁신적이다. 뮤지컬영화로 히트 친 '레 미제라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 나부코 역의 바리톤 조지 가닛제는 이 '합창의 오페라'를 '가닛제의 오페라'로 만든다. 대형무대를 장악하는 존재감이 뛰어나다. 1970년 그루지아 태생으로 2008/09 시즌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타 오페라에 서고 있다. 국내에도 메트가 제작한 '리골레토'의 타이틀롤, '토스카'의 스카르피아 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시간이 흐를수록 백야의 베로나가 어둠에 잠기며 화려한 매력을 뿜어낸다. 휴가로 베로나행을 생각해보게 한다. 2018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나부코'가 펼쳐질 예정이다(7.12~8.18). 해설지(31쪽 분량/영 · 불 · 이탈리아어)에는 연출가 노트,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BelAir BAC155 [DVD]
BelAir BAC555 [Blu-ray]

## 2017 파리 가르니에 실황
## – 에크만(안무) & 파리오페라 발레단 '놀이'

알렉산더 에크만(안무), 미가엘 칼송(음악), 파리오페라 발레단

**유럽에서 가장 '핫'한 안무가의 화려한 파리 데뷔기**

어지러울 정도로 새하얀 무대에는 무용수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하늘에서 녹색 공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튀어 오르는 그 공들과 단원들이 춤추기도 한다. 성인이 되면서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놀이' 본능을 일깨우는 이 작품은 현 유럽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알렉산더 에크만(b.1984)의 파리오페라 발레단 데뷔작품이다(2017년 12월 가르니에 실황). 에크만의 단짝인 작곡가 미가엘 칼송의 매력 있는 현대음악과 연주를 맡은 앙상블은 무용수들과 무대 위에서 함께 한다. 독특한 카메라의 원근법과 워킹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재미도 이 영상물만의 특징. 마지막에 단원과 관객이 함께 하는 장면을 통해 파리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오기도 한다. 해설지(26쪽 분량/영 · 불어)에는 에크만이 직접 쓴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알렉산더 에크만은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안무가다. 1984년, 스웨덴 스톡홀름 태생의 그의 작품은 새로운 음악이 태어나는 탄생지이자, 상상할 수 없었던 춤과 음악이 호환하는 장이기도 하다. '놀이'는 파리오페라 발레단과의 첫 작업으로, 영상물은 2017년 12월 가르니에 극장 실황을 담고 있다.

– '놀이'는 총 2막 14장으로 장대한 구성이다. 어지러울 정도로 새하얀 무대와 오케스트라 피트로 단원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하늘에서 녹색 공들이 쏟아져 내려오는가 하면, 튀어 오르는 공들과 함께 단원들은 춤을 추기도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체험하는 어린 시절 당시 특별한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마냥 '놀이'에 집중했던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작품 속에 담겨 있다. 결론은 '놀이'와 연관된,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가 잊고 있던 창작의 본능을 일깨운다. 특별한 드라마나 연극적 라인은 없다. 그렇지만 시각적 감각과 오브제로 가득 찬 이 작품은 106분이라는 순식간에 흘려버릴 정도로 매력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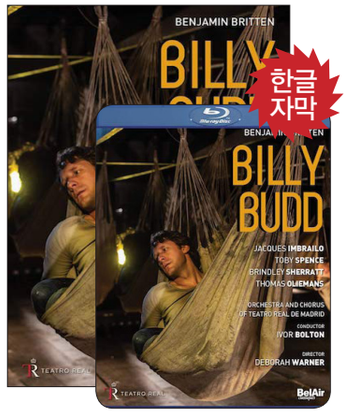
– 에크만의 작품에는 독특한 음악가와 함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와 늘 함께 하는 작곡가 미가엘 칼송이 이번에도 함께 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앙상블(피아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색소폰앙상블 · 타악 등)은 무대에 함께 올라 무용수들과 함께 한다.

– 파리오페라 발레단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유럽의 최첨단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발레단이다. 그들이 2017/18 시즌에 초이스 한 에크만과의 협업을 담고 있는 이 영상물은 한마디로 유럽의 최신 트렌드를 맛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일반적인 영상물과 달리 카메라의 원근법과 워킹을 입체적으로 하여 전체적인 무대와 무대 위의 작은 오브제까지 독특한 시각으로 맛볼 수 있는 것도 보는 이만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재미다. 마지막에는 무대와 객석의 공중으로 떠다니는 거대한 풍선을 무용수와 관객이 서로 주고 받으며, 파리극장 내의 자유로운 공기와 안무가가 작품을 통해 강조한 놀이 본능을 느껴볼 수 있다.

– 해설지(26쪽 분량/영 · 불어)에는 에크만이 직접 쓴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함께 추천해요!**

2016 스웨덴 왕립 발레단 실황 '한여름밤의 꿈'(BelAir BAC 141) : 알렉산더 에크만(안무), 미가엘 칼송(음악), 안나 본 하우스볼프(노래)




BelAir BAC154 [DVD]
BelAir BAC554 [Blu-ray]

## 2017 테아트로 레알 실황
## – 브리튼 '빌리 버드'

이보르 볼턴(지휘),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 · 합창단, 자크 임브라이(빌리 버드), 토비 스펜스(선장), 브래들리 셔래트(클래거트), 데보라 워너(연출)

**장대한 군함의 무대 위에서 인간의 선 · 악을 논하다**

브리튼의 1951년 작 '빌리 버드'는 군함의 상사 클래거트와 부하선원 빌리의 갈등을 통해 선 · 악의 알레고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철학 오페라'이다. 마드리드 데아트로 레알의 200주년 기념작으로 2017년 2월 실황이다. 데보라 워너(연출)는 군함의 리얼리티를 위해 800리터의 물, 2개의 대형 돛, 60개의 그물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무대에 설치된 수백 개의 로프는 복잡한 인간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타이틀롤의 자크 임브라이는 이른바 어린 시절부터 합창단의 솔리스트로 활동해온 천재 성악가이다. 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토비 스펜스(선장), 브래들리 셔래트(클래거트)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여성 성악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연출노트, 시놉시스가 담긴 해설지(30쪽 분량, 영 · 독 · 스페인어) 수록.

**[보조자료]**

– 벤자민 브리튼(1913~1976)의 오페라 '빌리 버드'는 사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오페라다. 1797년, 프랑스와 전쟁 중인 영국 군함 '불굴'호는 상선 '인간의 권리'호로부터 인력을 강제 징집한다. 그중 빌리 버드(바리톤)는 유쾌할 정도로 순종적이다. 그러나 하사관 클래거트(베이스)는 빌리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불굴호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을 예견한다. 인간의 순수함은 규율의 엄격함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원들로부터 존경 받는 선장 비어는 엄정한 군기 확립을 클래거트에게 위임한다.

– 시간이 흐르면서 빌리에 대한 클래거트의 이유 없는 괴롭힘은 선원들의 근거 없는 고발로 이어진다. 결국 선내 반란주동자로 지목된 빌리는 자신을 변론하던 중에 클래거트를 죽이고 만다. 그리고 빌리는 비상 군법회의의 판결대로 교수형에 처해진다. 비어 선장은 클래거트의 악의적인 모함과 빌리의 우발적 살인을 알고 있지만, 양심보단 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 브리튼이 1951년에 작곡한 '빌리 버드'는 한마디로 '철학 오페라'이다. 빌리와 클래거트로 대변되는 선 · 악의 알레고리를 통해 한정된 세계에서이 질서유지와 윤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이면에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점차 커져만 가던 피지배층의 혁명과 폭동과 이를 몹시 두려워한 지배층의 불안감도 상징적으로 잘 담겨 있다. 브리튼은 거듭 수정을 가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 이 영상물은 200주년을 맞이한 마드리드 데아트로 레알의 2017년 2월 실황으로, 로마 오페라와 공동 협업작이다. 연출을 맡은 데보라 워너는 바다 위의 군함이라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무대를 800리터의 물, 2개의 대형 돛, 60개의 그물 등으로 무장한다. 큰 무대 전환 없이 두 개의 막에 유지되는 무대 위에 설치된 수백 개의 로프는 복잡한 인간사를 상징한다.

– 타이틀롤의 자크 임브라이는 이른바 어린 시절부터 합창단의 솔리스트로 활동해온 천재 성악가이다. 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토비 스펜스(선장), 브래들리 셔래트(클래거트)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여성 성악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해설지(30쪽 분량, 영 · 독 · 스페인어)에는 데보라 워너의 연출노트,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BVE08004 **[2DVDs]**

belvedere

### 2014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실황 – 모차르트 현악 5중주 전곡 모음

르노 카퓌송 · 알리나 이브라기모바(바이올린), 제라르 코세 · 레아 엥니노(비올라), 클레멘스 하겐(첼로)

**전설로 남을 모차르트 현악 5중주 실황**

모차르트(1756~91)는 1773~91년 동안 6곡의 현악 5중주곡(KV174 · /406 · /515 · /516 · /593/ · 614 순)을 작곡했다. 현악 4중주에 첼로가 아닌 비올라를 편성했다. 2014년 1월 29일과 31일에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5중주 전곡을 선보인 이 영상은 한마디로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연주자도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시간이다. 1번 · 6번 · 4번 · 2번 · 5번 · 3번순으로 연주된다. 대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올라의 젊은 기수 레아 엥니노(1991~)도 주목해 볼 것. 다섯 주자들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힘찬 긴장감이 감도는 음색으로 명곡을 채색한다. 해설지(38쪽 분량)에는 작품 · 음악가 소개를 담고 있다(독 · 영 ·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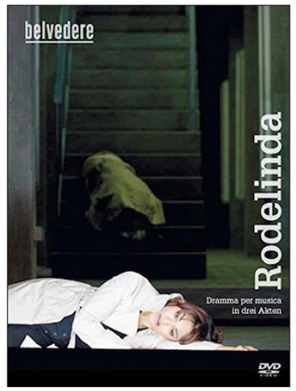
**[보조자료]**

– 모차르트(1756~91)는 1773~91년 동안 6곡의 현악 5중주곡을 작곡했다. 1번 KV174, 2번 KV406, 3번 KV515, 4번 KV516, 5번 KV593, 6번 KV6140이다. 현악 5중주라고하면 대체로 현악 4중주에 첼로를 추가한 편성을 떠올린다. 모차르트는 첼로가 아니라 비올라를 추가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차르트는 비올라를 좋아했고, 실제로 현악 앙상블을 연주할 때 그 자신은 비올라를 연주하곤 했다.

– 2014년 1월 29일과 31일에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5중주 전곡을 선보인 공연 실황물이다. 위대한 작품도, 위대한 연주자도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시간이다. 모차르트의 걸작이 1번, 6번, 4번, 2번, 5번, 3번 순으로 유려한 현의 물결을 타고 흐른다.

– 카퓌송과 이브라기모바가 펼치는 선율의 고공전과 하겐의 첼로 사이에 두 대의 비올라가 꽃을 피운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들만큼은 비올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코세와 엥니노의 연주는 겸손하면서도 정직하다. 비올라의 두 축에서 젊은 축을 맡고 있는 레아 엥니노는 1991년 생으로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한 신예 비올리스트들이다. 대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차르트와 관객을 기쁘게 하는 그녀를 주목하는 것도 이 영상물을 즐기는 방식 중 하나다.

– 6곡 가운데서도 특히 3번, 4번, 5번은 나무랄 데 없는 걸작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중 1787년에 작곡된 3번을 다섯 주자들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힘찬 긴장감이 감도는 음색으로 채색한다. 해설지(38쪽 분량)에는 작품 · 음악가 소개를 담고 있다(독 · 영 · 불어)




Belvedere BVE10144 **[2DVDs]**

### 2011 데아터 안 데어 빈 실황 – 헨델 '로델린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지휘), 필리프 아르농쿠르(연출),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 다니엘 드 니스(로델린다), 베준 메타(베르타리도), 커트 스트레이트(그리모알도), 콘스탄티 울프(가리발도), 말레나 에르만(에두이게)

**헨델의 흑진주, 다니엘 드 니스의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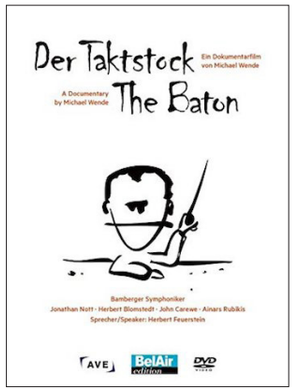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1929~)가 지휘를, 동생 필리프 아르농쿠르(1931~)가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데아터 안 데어 빈의 실황(2011.3)이다. 연출가는 7세기 밀라노의 궁정을 둘러싼 이야기를 도심 속 아파트로 끌어온다. 왕비 로델린다, 남편 베르타리도, 그리고 반란을 통해 로델린다를 차지하려는 그리모알도가 주요인물. 고음악의 황태자 베준 메타가 캐스팅을 보장하지만, 타이틀롤의 다니엘 드 니스의 존재감이 더 큰 프로덕션이다. 2005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줄리오 체사레' 이후 '헨델의 흑진주'로 통하는 그녀는 이 무대에서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21세기형 헨델 스페셜리스트임을 보여준다. 해설지(47쪽 분량/독 · 불 · 영어)에는 시놉시스와 연출가 아르농쿠르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190분 분량.

**[보조자료]**

– 로델린다는 헨델이 작곡한 3막의 오페라 세리아로, 1725년 런던 헤이마켓의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영상물은 데아터 안 데어 빈의 2011년 3월 실황이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1929~)가 지휘를 맡았고, 그의 동생 필리프 아르농쿠르(1931~)가 연출을 맡아 화제를 낳은 형제의 프로덕션이기도 하다.

– 7세기 밀라노 롬바르디아 지방의 왕비 로델린다와 그녀의 남편인 베르타리도, 반란을 일으켜 왕을 폐위시키고 왕비 로델린다와 강제 결혼해 왕이 되려는 그리모알도, 그리고 쫓겨난 국왕의 피맺힌 복수라는 복합적인 줄거리로 다채롭게 그린 '로델린다'는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감정을 다루고 있다. 당대 연주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아르농쿠르의 '사운드'는 현대 오케스트라와 다른 거칠면서도 생생한 맛이 살아 있다. 또 다른 아르농쿠르의 '연출'은 현대식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여 궁정을 둘러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현대인의 감수성으로 끌어낸다.

– 음악과 연출 외에 눈길이 가는 존재는 타이틀롤의 다니엘 드 니스과 그녀의 남편인 베르타리도 역의 베준 메타이다. 이국적인 외모로 '오페라계의 비욘세'로 통하는 니스는 스리랑카와 네덜란드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부터 노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LA오페라에서 데뷔했다. 19세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레 미제라블'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오르기도 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은 2005년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이다. 당시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에서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았던 니스는 이후 원전에 충실한 연출이든 영화의 세트 같은 연출이든 헨델의 레퍼토리에서는 그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헨델 스페셜리스트로 곳곳의 극장에 올랐다. 따라서 이 영상물은 니스의 맹활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이외 커트 스트레이트(테너), 콘스탄틴 울프(베이스바리톤), 말레나 에르만(메조소프라노)의 활약도 대단하다. 하지만 매력도의 두 축은 역시 니스와 베준 메타가 이끌어간다. 해설지(47쪽 분량/독 · 불 · 영어)에는 시놉시스와 연출가 필리프 아르농쿠르의 심도 깊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Belvedere BVE10127 **[DVD]**

## 2010 말러 지휘콩쿠르 다큐멘터리 '지휘봉'

조너선 노트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존 카레베 · 아이나르스 루비키스(지휘), 밤베르크 심포니

**지휘자 탄생 비밀의 모든 것을 찾아 밤베르크로!**

1946년에 창단된 독일 밤베르크 교향악단은 3년 주기로 구스타프 말러 지휘콩쿠르를 개최한다. 두다멜(2004) · 성시연(2007) · 루비키스(2010) 등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영상물은 2010년 콩쿠르 과정을 담고 있다. 12명의 젊은 지휘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음악의 세계를 알아간다. 조너선 노트의 인터뷰, 과감한 애니메이션 기법과 스톱 화면, 전자음향과 뒤섞인 말러 교향곡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 해에는 홍석원이 참가했다. 우승은 라트비아의 아이나르스 루비키스. 영상물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에 있다. 출시되자마자 마이클 벤데 감독은 전세계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다큐의 매력과 파격적인 영상 기법을 대변한다. 독어 · 영어 자막.

**[보조자료]**

– 1946년에 창단된 독일의 밤베르크 교향악단은 1993년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 칭호를 얻었고, 이해부터 훌륭한 어쿠스틱으로 명성이 자자한 요제프 – 카일베르트 홀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 중이다.무엇보다 이 악단하면 떠오르는 이는 조너선 노트이다. 그는 2000~2016년에 밤베르크 교향악단을 세계적인 악단으로 성장시켰다.

– 밤베르크 교향악단이 내놓는 자랑 중 하나는 구스타프 말러 지휘콩쿠르이다.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첫 회의 입상자는 구스타보 두다멜이었다. 2007년 제2회에는 성시연이 1위없는 2위에, 2010년 제3회에는 라트비아의 아이나르스 루비키스가 1위로 입상했다.

– 이 영상물은 2010년 제3회 콩쿠르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신예 지휘자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저명한 지휘자의 일대기와 리허설에 관한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출시되어 있지만, 이처럼 경연과정의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은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드물고 값지다.

– 한국 · 독일 · 이탈리아 · 라트비아 · 미국 · 러시아 · 일본 등에서 참가한 12명의 젊은 지휘자들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영상마다 재밌는 미장센이 연출되기도 한다. 콩쿠르 과정을 지켜보는 조너선 노트의 인터뷰는 물론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존 카레베가 생각하는 미래 지휘자상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이 해에 한국에서는 홍석원이 참가했다.

– 영상물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에 있다. 다큐멘터리는 출시되자마자 마이클 벤데 감독은 전세계 영화제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 과감한 애니메이션 기법과 스톱 화면을 사용했고, 배경음악으로 전자음악과 함께 삽입된 말러 교향곡들도 새롭게 다가온다. 한마디로 '재밌고 젊어진' 다큐멘터리이다. 이 해의 우승은 라트비아의 아이나르스 루비키스가 차지했다.

Belvedere BVE10129 **[DVD]**

## 2013 빈 슈타츠오퍼 실황 – 바그너 '요정'

캐슬린 켈리(지휘), 빈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 바트 코헤켄(연출), 게르겔리 네메티(아린달), 다니엘라 펠리(아다)

**바그너의 '동심'이 담긴 동화오페라**

바그너가 20세에 만든 '요정'은 어린이오페라로 만들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트라몬트 왕국의 왕자 아린달은 사냥터에서 암사슴을 쏜다. 그랬더니 암사슴은 아름다운 요정 아다로 변신하고, 아린달과 아다는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여러 일들을 겪고 그것을 해결해나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013년 빈 슈타츠오퍼 실황은 '바그너 최초의 음악극'과 훗날의 출세작 '로엔그린'을 예견하는 여러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무대도 아담하고, 객석의 앞쪽에 위치한 어린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무대에 집중하는 뒷모습도 보여 가족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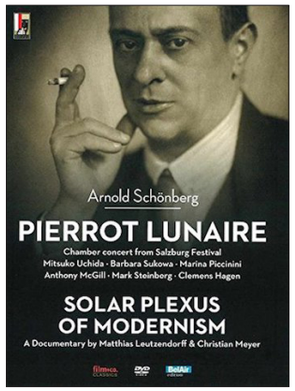
**[보조자료]**

– 바그너가 20세에 작곡한 첫 번째 음악극 '요정'은 어린이용 오페라로 만들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트라몬트 왕국의 왕자 아린달은 사냥에 나갔다가 암사슴을 화살로 쏘게 된다. 그랬더니 암사슴은 아름다운 요정 아다로 변신하게 되고 아린달과 아다는 2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잘 해결해 나간다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

– 2013년 빈 슈타츠오퍼 실황을 담은 영상물의 무대는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이지만 바그너의 최초의 음악극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중하게 다가온다. 무대도 아담하고, 객석의 앞쪽에 위치한 어린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무대에 집중하는 뒷모습도 보여 가족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

– 독일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E.T.A.호프만은 이탈리아 작가인 카를로 고치의 동화 '요정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호프만은 바그너에게 '요정들'을 오페라로 만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요정'은 훗날의 출세작 '로엔그린'을 예견한다. '로엔그린'의 왕자가 백조로 변하거나, 엘자가 로엔그린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점 등이 좋은 예이다. 이 두 오페라의 메시지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균형이다. '요정들'에서는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간의 사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 이 작품은 바그너 생전에 공연되지 못하고 그가 죽은 뒤 5년 후에 뮌헨에서 초연되었다. 바그너는 세상을 뜨기 몇 해 전에 이 악보를 후원자인 루드비히 2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공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요정들'이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은 '파르지팔'과 링 사이클의 성공적인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미망인인 코지마가 '요정'의 뮌헨공연을 극구 반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Belvedere BVE10130 **[DVD]**

## 201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 다큐멘터리 '모더니즘의 핵'

바르바라 수코바(낭송), 미츠코 우치다(피아노), 마리나 피치니(플루트), 앤서니 맥길(클라리넷), 마크 스테인베르크(바이올린), 클라망 하겐(첼로)

**쇤베르크의 세계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쇤베르크의 역작 '달에 홀린 피에로'를 학구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연실황(40분)과 다큐멘터리(50분)가 동봉된 영상물이다. 아바도, 에사-페카 살로넨 등과 함께 현대음악을 공연해온 독일의 배우 바르바라 수코바, 미츠코 우치다로 대변되는 수준급의 연주가 작품을 돋보이게 한다. 해설지를 대신하는 다큐멘터리 '모더니즘의 핵'(50분/영 · 독어)은 '정신' '역사' '리허설' '악기' '해석' 챕터로 구획되어 작품을 입체적으로 접근 · 분석한다. 연주에 임하는 음악가들이 말하는 중요 대목, 음악적 특징,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작품의 파격성과 위대함이 더욱 높아 보인다.

**[보조자료]**

– 여성배우 알베르티네 첼메는 쇤베르크(1874~1951)에게 알베르 지로의 연작시 '달에 홀린 피에로'로 기악 반주와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작품을 위촉했다. 쇤베르크는 이에 가장 독특하고 악명 높은 작품으로 응답했다. '달에 홀린 피에로'는 악기들과 슈프레히슈티메(속삭임 · 탄성 · 외침 등의 낭송창법)를 배합함으로써 박자 잃은 선율, 묘한 음향, 복잡한 구상과 야릇한 분위기를 띠는 획기적인 곡을 만들었다.

– 이 영상물은 쇤베르크의 역작 '달에 홀린 피에로'를 학구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때 이 영상물의 도움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공연 실황과 작품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동봉되어 있다.

– 공연은 2011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다. 피아노 · 바이올린 · 플루트 · 첼로 ·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앙상블과 함께 낭송을 맡은 이는 독일의 저명배우 바르바라 수코바.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를 아바도/베를린 필과 함께 하기도 했고, 아바도, 에사-페카 살로넨 등 현대음악의 거장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등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스타급 낭송자이다. 공연영상은 그녀의 표정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촬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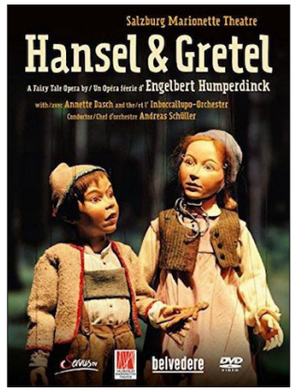
– 공연 실황만큼 값진 것은 동봉된 다큐멘터리 '모더니즘의 핵'(영 · 독어)이다. 해설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상은 50분 분량으로 '달에 홀린 피에로'를 입체적으로 접근 · 분석한다. 작품의 '정신' '역사' '리허설' '악기' '해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에 임한 음악가들이 말하는 중요 대목, 음악적 특징,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작품의 파격성과 위대함이 더욱 높아 보인다.

## 잘츠부르크 마리오네트극장 실황
##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 훔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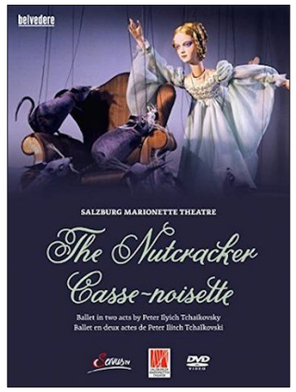
모차르트 고향인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마리오네트 극장은 잘츠부르크의 자랑 중 하나다. 인형극은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음악과 함께 하는 잘츠부르크 극장은 성인들에게도 100년 넘도록 사랑 받는 무대다.

잘츠부르크의 인형극이 처음 시작한 것은 1913년에 목각조각가 안톤 아이허(1895~1930)에 의해서였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를 인형극으로 선보인 첫 공연은 유명세를 탔고, 1920년대에는 잘츠부르크의 자랑으로 자리잡았다. 1937년에는 파리만국박람회에 오스트리아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창설자인 아이허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 극장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1971년에 잘츠부르크 내에 전용 극장을 갖게 되었다. 바로크 양식의 극장은 350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다. 무대에 등장하는 인형은 50~100Cm 크기로 보리수 재질이다. 무대장치는 실제 오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의상과 소품에 이르기까지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잘츠부르크 마리오네트 극장은 공연 실황을 영상물로 제작해 발매하고 있다. 영상이 시작되면 건물의 외관이 보이고,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객석에 착석한다. 무대 위의 공연을 안내하는 사회자까지 마리오네트 인형이다(독 · 불 · 영어 더빙). 줄에 연결된 인형들은 손목의 관절까지 세심하게 움직인다. 무엇보다 영상물에 수록된 음악은 세계적인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Belvedere BVE10131 **[DVD]**




Belvedere BVE10132 **[DVD]**

## 잘츠부르크 마리오네트극장 실황
## – 훔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잘츠부르크 마리오네트시어터, 안드레아스 쉴러(지휘), 크리스티나 너드(헨젤), 아네트 다쉬(그레텔)

**인형, 음악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동화**

인형극으로 만들기에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도 좋은 소재이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마녀의 집, 녹음이 짙은 신비의 숲 등 동화의 배경과 인물을 50~100Cm의 보리수 인형들이 실감나게 묘사한다. 인형들은 손목의 관절까지도 세심하게 움직이고 의상부터 소품까지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살렸다. 7명의 기술자가 인형을 조정하며, 크리스티나 너드(헨젤), 아네트 다쉬(그레텔)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노래한다. 해설지(30쪽 분량, 독 · 영 · 불어)에는 작품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훔퍼딩크가 '동화오페라'라고 했던 이 작품을 가장 동화적으로 구현한 영상물이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가족용 콘텐츠이다.

## 잘츠부르크 마리오네트극장 실황
## –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잘츠부르크 마리오네트시어터, 에르네스트 앙세르메(지휘),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인형들의 춤과 깊어지는 동심**

1913년에 목재조각가 안톤 아이허(1895~1930)에 의해 시작된 잘츠부르크의 인형극은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그 무대에는 50~100Cm의 보리수 인형이 살아있듯 움직인다. 인형들은 손목의 관절까지 세심하게 움직인다. 의상부터 소품까지 공들인 흔적도 역력하다. 잘츠부르크 인형극의 특징이라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연주를 맡는다는 것이다. 해설은 영 · 불 · 독어 더빙. '호두까기 인형'은 동화이기에 동화적 이미지가 강한 인형극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인형은 11명의 기술자가 조정한다. 보너스 영상(7분 50초/독어)에는 인형을 조정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무대 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해설지(51쪽 분량, 독 · 영 · 불어)에는 트랙별로 자세한 설명을 갖췄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장면을 찾아 틀어주기에 편하다.

Belvedere BVE1050 **[DVD+CD]**

## 2013 할레극장 실황–
## 인형극 '들리지 않는 영혼을 위한 콘서트'

라그나 쉬르머(피아노), 카타리나 쿰머 외 배우(3명)

**라벨을 삶을 그린 인형극과 피아노**

독일 할레극장의 실황물(2013.10)로, 라벨(1875~1937) 비밀스러운 삶을 다룬 인형극(60분)이다. 무대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을 뿐, 어둠이 가득하다. 성인 상체만한 인형을 검은 옷을 입은 기술자들이 조종한다. 라벨 등 다양한 인형들의 표정과 움직임은 생생하다. 라그나 쉬르머는 인형들과 함께 라벨의 '거울', '밤의 가스파르', '파반느'를 연주한다. 각각 한 장의 영상물과 CD, 해설지(27쪽 분량/독 · 영 · 불어)로 구성. 쉬르머(1972~)는 라이프치히 바흐콩쿠르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거머쥐었다. 주빈 메타, 블롬슈타트, 쿠르트 마주어 등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CD에는 영상물에 수록된 동일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2014년 녹음).

**[보조자료]**

– '귀가 들리지 않는 영혼을 위한 콘서트'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이 붙은 이 영상물은 각각 1장의 영상물과 CD로 구성되어 있다.

– 영상물은 인형극장으로 유명한 독일 할레극장 실황(2013.10)이다. 모리스 라벨(1875~1937)의 비밀스러운 삶을 다룬 인형극(60분)이다.

– 무대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을 뿐, 어둠이 가득하다. 성인 상체만한 크기의 인형은 검은 옷을 입은 기술자들에 의해 조종된다. 라벨을 묘사한 인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형들의 표정과 움직임은 생생히 살아 있다.

– 피아니스트 라그나 쉬르머는 인형들과 함께 라벨의 피아노곡을 연주한다. 라벨이 1905년에 완성한 '거울'에 수록된 '밤나방' '슬픈 새' '바다 위의 작은 배'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종의 골짜기'가 쉬르머의 연주로 차례대로 흐른다. 카메라는 쉬르머를, 혹은 그 앞에서 움직이는 라벨의 인형을 비추기도 한다. 피아노 선율과 함께 움직이는 라벨의 인형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1908년 작인 '밤의 가스파르' 중 '물의 요정' '교수대' '스카르보', 1899년 작 '파반느'가 차례대로 무대를 채운다. 음악, 상상력, 인형, 배우들의 융합으로 빚은 이 작품은 "회화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공감의 밤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 라그나 쉬르머(1972~)는 라이프치히의 바흐콩쿠르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이로 주빈 메타, 블롬슈타트, 쿠르트 마주어 등과 협연을 하며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동봉된 CD에는 영상물에 수록된 라벨의 9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2014년 녹음). 해설지(27쪽 분량/독 · 영 · 불어)에는 쉬르머, 극장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6208 **[3DVDs]**
C Major 746304 **[Blu-ray]**

## 1981 헤라클레스홀 실황
## –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콘서트버전

레너드 번스타인(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합창단, 피터 호프만(트리스탄), 힐데가르트 베렌스(이졸데), 이본 민터(브랑게네), 베른트 바이클(쿠르베날), 한스 소틴(마크 왕)

**번스타인 10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의 명작!**

1981년, 뮌헨 헤라클레이스홀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콘서트 버전 실황으로 실황음반(Philips 4789514)을 통해 공연현장을 궁금해 하던 마니아들에게 희소식과도 같은 영상물이다. 무대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위치하고, 그 뒤로 높은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배경천을 드리운 독특한 무대 위에는 '바그너의 가수'들이 향연을 이룬다. 피터 호프만(1944~2010)과 힐데가르트 베렌스(1937~2009)의 생전 모습과 민터 · 바이클 · 소틴의 전성기 때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카메라는 의상까지 갖춰 입은 성악가들이 잘 만들어진 오페라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무대 전체보다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낸다. 13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작품 해설(영 · 불 · 독어)이 수록, 총길이 291분

**[보조자료]**

– 1981년은 번스타인과 바그네리안에게 뜨거운 해였다. 그해에 번스타인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뮌헨 헤라클레스홀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연이어 선보였기 때문이다. 2015년에 필립스 레이블을 통해 릴리즈 된 이 실황음반(Philips 4789514)은 번스타인의 마니아와 바그네리안들에게 대만족을 안겨주었다.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나온 이 영상물은 음반으로만 접하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영상물이다. 총길이 291분

– 뮌헨 헤라클레스홀은 오페라를 올릴 수 없는 콘서트 전용홀이다. 따라서 이 무대는 콘서트 버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무대와 달리 성악가들은 지휘자 옆에 서서 노래하지 않는다. 무대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위치하고, 그 뒤로 높은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합창석이 보이지 않도록 배경천을 드리웠다. 성악가들은 가설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와 합일을 이루며 노래를 부른다. 독특한 구조이다.

– 클로즈업 기법으로 현장을 담는 카메라는 성악가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촬영한다. 의상까지 갖춰 입은 성악가들은 마치 잘 만들어진 오페라 무대 위에서 노래와 연기를 선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간마다 등장하는 번스타인과 악단의 모습이 특색있는 콘서트 버전임을 알려준다.

– 이 영상물은 바이로이트를 거쳐 세계 반열에 오른 전설적인 명가수들의 향연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들과 전설적인 가수들의 전성기를 만날 수 있다. 바그너를 노래할 때면 언제나 빛을 뿜어내던 트리스탄 역의 헬덴 테너 피터 호프만(1944~2010), 독일 오페라의 적통을 이어받은 이졸데 역의 힐데가르트 베렌스(1937~2009), 영원한 브랑게네 메조소프라노 이본 민터(1938~), 바그너를 위해 태어난 쿠르베날 역의 바리톤 베른트 바이클(1942~)과 마크왕 역의 베이스 한스 소틴(1939~)의 활약을 번스타인 덕분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 13쪽 분량의 해설지는 트랙 순서와 작품 해설(영 · 불 · 독어)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6408 [DVD]
C Major 746504 [Blu-ray]

##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
## – 하이든: 교향곡 88 · 92 · 94번,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레너드 번스타인(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이너 퀴힐(바이올린), 프란츠 바르톨로메이(첼로), 발터 레마이어(오보에), 미하엘 베르바(바순)

**하이든을 통해 다시 만나는 번스타인**

1984~85년 빈 무지크페어라인 황금홀 실황으로 하이든 교향곡 94번(놀람) · 92번(옥스포드) · 88번,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Hob.I:105가 차례대로 수록된 영상물로 번스타인(1918~1990)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HD로 리마스터된 것이다(교향곡 88번만 1984년 영상이다). 번스타인이 지휘봉을 든 빈 필의 '빈 사운드'만큼 하이든의 정교함과 가벼운 촉감을 잘 구사하는 악단은 없을 것이다. 신포니아 콘체르탄테에는 전설의 악장 라이너 퀴힐(바이올린)과 빈 필의 한 시대를 책임진 바르톨로메이(첼로) · 레마이어(오보에) · 베르바(바순)가 함께 협연한다. 1980년대 녹화여서 카메라액션이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번스타인의 경쾌한 모습을 느끼기에는 손색이 없다. 해설지에는 번스타인과 하이든의 음악적 관계에 관한 아티클 수록(영 · 불 · 독어/13쪽 분량).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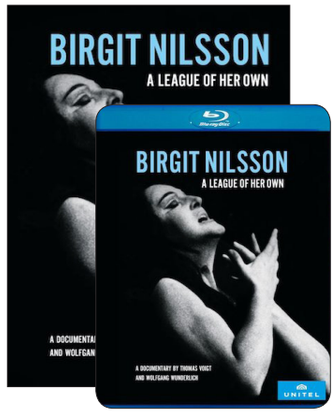
–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2018년, 번스타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108곡의 교향곡을 남긴 하이든의 명작 중 오늘날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을 담고 있다.

– HD로 리마스터된 영상물은 1984~85년 빈 무지크페어라인 황금홀 실황으로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놀람 교향곡', 92번 '옥스포드', 교향곡 88번,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Hob.I:105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교향곡 88번만 1984년 영상물).

– 하이든(1732~1809)은 빈 필만의 '빈 사운드(Viennese sound)'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작곡가이다. 빈 필의 역사와 전통에는 그 정도로 하이든의 영향력이 담겨 있으며, 빈 필의 '빈 사운드'만큼 하이든 음악의 정교함과 가벼운 촉감을 잘 구사하는 오케스트라도 없다.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바이올린 · 첼로 · 오보에 · 바순의 앙상블 협연이 함께 한다. 1971년에 악장으로 임명되고 번스타인 · 카라얀 · 솔티 등의 거장과 함께 악단을 이끌어온 라이너 퀴힐의 젊은 시절과 빈 필의 사운드를 함께 책임졌던 프란츠 바르톨로메이(첼로), 발터 레마이어(오보에), 미하엘 베르바(바순)의 모습이 보인다.

– 일흔을 앞둔 번스타인의 몸놀림은 하이든의 음악만큼이나 경쾌하다. 1980년대의 녹화인만큼 카메라의 액션이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번스타인의 경쾌한 모습을 느끼기에는 손색이 없다. 해설지(13쪽 분량)에는 번스타인과 하이든의 음악적 관계에 관한 아티클이 수록(영 · 불 · 독어).




C Major 800008 [DVD]
C Major 800104 [Blu-ray]

## 닐손 탄생 100주년 다큐멘터리:
## '비르기트 닐손 – 그녀 자신의 리그'

토마스 보그트 · 볼프강 분덜리히(연출), 도밍고 · 카우프만 · 러바인 등(인터뷰)

**관객이 열광했고, 거장이 기억하는 전설의 소프라노**

거액의 상금과 함께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비르기트 닐손상은 전설적인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1918~2005)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닐손 탄생 100주년인 2018년에 그녀의 삶을 재조명한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1968~2009년의 영상자료와 도밍고 · 카우프만 · 러바인 등 유명 예술가와 제작자들의 인터뷰를 엮어 그녀의 삶을 연대기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스웨덴 태생의 닐손은 1946년 본국에서의 데뷔 이후 1957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출연 이후 '바그너의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크나퍼츠부슈 · 뵘 · 카라얀 · 카를로스 클라이버 · 러바인 등과 함께 무대에 섰고, 빈과 뉴욕의 오페라극장과 관객은 그녀의 목소리에 열광했다. 닐손뮤지엄에 보관된 삶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는 소프라노의 인생을 통해 20세기 음악사의 일면을 만나게 된다.

**[보조자료]**

– 솔티가 지휘하는 1964년 '신들의 황혼' 리허설의 흑백영상과 플라시도 도밍고(테너) · 오토 쉥커(연출) · 제임스 러바인(지휘) 등의 짧은 회고가 이 다큐멘터리의 문을 연다. 토마스 보그트와 볼프강 분덜리히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그녀 자신의 리그'는 전설적인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1918~2005)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녀의 삶을 재조명한 영상물이다. 오늘날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는 비르기트 닐손상은 닐손의 유언으로 제정된 것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금과 함께 2~3년에 한번 씩 수상자를 뽑는다. 리카르도 무티와 빈 필하모닉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외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 닐손은 스웨덴에서 출생하여 스톡홀름 왕립음악원 수학 뒤 1946년 스톡홀름 오페라극장에서 '마탄의 사수'로 데뷔하고 1957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이졸데 역을 맡은 이후 바그너의 해석에 탁월한 실력자였다.

– 13개 트랙으로 구성된 영상물의 순서가 그녀의 인생을 잘 보여준다. (1)인트로를 지나 닐손의 고향인 스웨덴의 (2)'바스테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3)스톡홀롬의 학창시절과 첫 번째 배역 (3)빈 · 바이로이트 · 크나퍼츠부슈(바그너주의자 지휘자) · 뵘 (5)메트 데뷔 · 투란도트 · 테너들 (6)빈 오페라극장 · 카라얀 · 링 레코딩 (7)빌란트 바그너(바그너의 손자) · 빈의 청중들 (8)뉴욕 · 프리마돈나 · 유머 (9)피아노 문화 · 엘렉트라 (10)스튜디오와 라이브 · 용기와 감성 · 정직 (11)카를로스 클라이버와 제임스 러바인의 '엘렉트라' (12) 마지막 해 · 재단 · 비르기트 닐손 프라이즈(Birgit Nilsson Prize) (13)닐손 뮤지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소프라노의 인생을 통해 20세기 음악사의 일면을 만나게 된다.

C Major 744208 [2DVDs]
C Major 744304 [Blu-ray]

## 존 노이마이어/ 함부르크 국립발레단의 창작발레 '니진스키'

존 노이마이어(안무), 함부르크 국립발레단, 알렉산드르 리아브코(니진스키), 카롤리 아구에로(니진스키 아내)

**명곡 위에 그려진 니진스키의 삶과 예술**

1973년 창단 때부터 함부르크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존 노이마이어의 '니진스키'는 그의 역작 중 하나다. 135분 분량, 2막 구성. 1979년 니진스키(1889~1950)에 관한 '바츨라프'를 발표한 그는 오랫동안 니진스키에 매달려 왔다. '니진스키'에서 안무가는 쇼팽 · 슈만 · 림스키 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과 함께 현실과 초현실을 오고간 니진스키를 무대 위로 불러낸다. '목신'의 판이나 '봄의 제전'의 이미지를 차용 · 배합하여 니진스키에게 오마주한다. 2017년 함부르크 오페라극장 촬영. 니진스키 역의 간판스타 알렉산드르 리아브코와 아내인 로몰라 니진스키 역의 카롤리 아구에로가 맡았다. 해설지에는 노이마이어가 쓴 시놉시스(영 · 독 · 불 · 일어)가 수록. 인터뷰 영상(18분)은 노이마이어가 말하는 니진스키론이다(독 · 영 · 일어 자막).

**[보조자료]**

– 창작발레 '니진스키'는 1973년 독일 함부르크 발레의 창단 때부터 초대 단장 겸 상임안무가로 지금까지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존 노이마이어의 역작 중 하나이다. 135분 분량, 2막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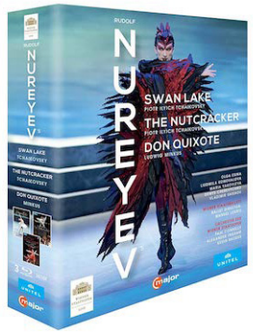
– 니진스키(1889~1950)는 1909년 파리에서 창단한 디아길레프의 발레뤼스(러시아발레)의 솔리스트로 성공을 거두었다. 1911년부터 안무가로 급성장한 그는 '목신' '봄의 제전' 등의 명작을 남겼다. 이후 무용수 로몰라와 결혼했고, 디아길레프와는 사이가 깨졌다. 젊은 나이에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지며 목숨을 거두었다. 로몰라는 그의 일대기를 여러 책으로 펴냈다.

– 1979년에 니진스키에 관한 '바츨라프'를 안무 · 발표하기도 한 노이마이어는 오랫동안 니진스키라는 존재에 매달려왔다. '니진스키'에서 노이마이어는 쇼팽 · 슈만 · 림스키 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과 함께 현실과 초현실을 오고간 니진스키를 무대 위로 불러낸다.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면을 집중해야 하는가"라며, "복잡한 퍼즐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니진스키를 향해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그는 "본능적인 선택을" 하여 자신만의 니진스키를 만든다.

– 따라서 무대의 흐름은 굉장히 자유롭다. '목신'의 판이나 '봄의 제전'의 일부가 재연된다. 하지만 재연보다는 니진스키의 여러 무대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을 노이마이어가 배합하여 오마주한 쪽이 맞다.

– 영상물은 2017년 함부르크 오페라극장에서 촬영되었다. 함부르크 발레의 빼어난 군무진의 호흡이 일품. 니진스키 역에는 발레단 간판스타 알렉산드르 리아브코와 로몰라 니진스키 역의 카롤리 아구에로가 맡았다. 코르드 발레에는 한국인 단원인 박은수도 보인다.

– 해설지에는 노이마이어가 직접 쓴 시놉시스(영 · 독 · 불 · 일어)가 수록. 인터뷰 영상(18분)은 노이마이어가 말하는 니진스키론이다(독 · 영 · 일어 자막).




C Major 747104 [3Blu-ray]

## 누레예프 프로덕션으로 만나는 3대 발레 '백조의 호수', '호두까지 인형', '돈키호테' [Special Price]

**1.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루돌프 누레예프(안무)/ 올가 에시나(오데트, 오딜)/ 블라디미르 쉬쇼프(지크프리트)/ 알렉산더 잉그램/ 빈 국립오페라 관현악단

**루돌프 누레예프 프로덕션의 초연 5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화려한 공연**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걸작 중 첫 작품인 "백조의 호수"는 1877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초연되었을 때만하더라도 엄청난 혹평을 받으며 실패했지만, 그가 사망한 뒤인 1895년에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새로운 안무에 의한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까지도 로맨틱 발레의 대명사와도 같은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후 쟁쟁한 안무가들이 저마다의 버전으로 이를 공연해왔는데,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발레 히어로 루돌프 누레예프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1964년 빈 국립발레단을 위해 완성한 프로덕션은 남자주인공인 지크프리트의 비중을 더 많이 늘렸다는 점과 그동안 선보였던 여러 결말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누레예프의 이 프로덕션은 이후 빈 국립발레단의 고전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초연 50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3월에 펼쳐졌던 공연실황이 본 영상물에 수록되었다. 마린스키를 거쳐서 2010년부터 빈 국립발레단의 프리마 솔로이스츠로 활약 중인 올가 에시나와 블라디미르 쉬쇼프가 각각 오데트와 오딜의 1인2역과 지크프리트를 열연하였다. C major 717704 [Blu-ray]

**2.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루드밀라 코노발로바(클라라)/ 블라디미르 쉬쇼프(드로셀마이어, 왕자) 외/ 빈 국립발레단/ 폴 코넬리/ 빈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

**전설적인 무용수 루돌프 누레예프가 재해석한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3대 로맨틱 발레 중 마지막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가족공연으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원래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지만, 초연 이후 지금까지 여러 안무가들의 손길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이 바뀌어 왔다. 본 영상물은 2012년 10월 빈 슈타츠오퍼에서 펼쳐졌던 빈 국립 발레단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1967년에 처음 공개되었던 전설적인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누레예프의 프로덕션은 자국의 선배 안무가들인 고르스키와 바이노넨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성인 무용수가 연기하는 클라라가 별사탕요정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호두까기인형이 아닌 드루셀마이어가 왕자로 변신하여 클라라와 호흡을 맞춘다는 점이 가장 선배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러시아 국립발레단, 베를린 국립발레단을 거쳐 현재 빈 국립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활약 중인 류드밀라 코노발로바가 클라라를 열연하였다. C major 718304 [Blu-ray]

**3. 누레예프의 '돈키호테'**

빈 국립극장 발레단 & 오케스트라,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루트비히 민쿠스(음악), 빈 국립극장 발레단, 마누엘 레그리스(발레 감독), 케빈 로데스(지휘), 빈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문학과 발레의 만남, 즐거움과 기교의 향연**

발레 '돈키호테'는 1896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작곡가 루트비히 민쿠스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만든 작품이다. 그 후 수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재안무되었다. 이 영상물은 3막 구성의 누레예프 버전으로 빈 국립극장 발레단과 오케스트라의 실황이다. 2016년의 5월 공연 무대인데, 이 해는 세르반테스의 서거 400주년인 해다. 시작부터 끝까지 경쾌하면서도 화려한 춤들과 희극적인 마임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막과 장 사이에 가끔씩 등장하는 지휘자 케빈 로데스도 풍부하고 경쾌한 음악으로 현장의 흥을 돋운다. 재밌는 점은 타이틀 롤인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 판자는 단지 소재를 제공하는 조역으로 등장할 뿐이라는 점. 따라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여관집 딸인 키트리와 그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키트리와 바질의 2인무는 남녀 역할과 상관없이 무용수의 점프력과 빠른 회전력을 엿볼 수 있다. 빈 국립극장 발레단의 간판스타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이자, 수많은 영상물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주역을 맡았다. **C major 742504 [Blu-ray]**

**[보조자료]**

– 발레 '돈키호테'는 1896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루트비히 민쿠스(1826~1917)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가 만든 작품이다. 1896년 초연 버전은 5막 11장 구성이다. 그 후 수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재 안무되었다. 그중 1900년 볼쇼이 발레단의 알렉산더 고르스키가 원작을 3막 7장으로 압축 · 재구성했고, 1940년 자카로프에 의해 모스크바에서 리바이벌 되었다. 서구에서도 보르코프스키, 누레예프, 그리고 지난 1974년 미국으로 망명한 바리시니코프에 의해 아메리칸 발레단(ABT)에서도 공연된 바 있다.

– 이 영상물은 3막 구성의 누레예프 버전으로 빈 국립극장 발레단과 오케스트라의 실황이다. 2016년의 5월 무대인데, 이 해는 세르반테스(1547~1616)의 서거 400주년인 해이다.

– '돈키호테'의 마지막 막의 그랑 파드되(2인무)가 발레 갈라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적합한 명장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 1막 키트리의 바리아시옹(독무), 2막 돈키호테의 몽상 장면 등 유명한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

– 무엇보다 '돈키호테'는 시작부터 끝까지 경쾌하면서도 화려한 춤들과 희극적인 마임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스페인의 펠리페 3세는 한 젊은이가 포복절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성을 잃었거나,아니면 돈키호테'를 읽은 것이라 말했을정도인데 이러한 성격은 발레작품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빈 국립극장역시 이러한 흥으로 가득 차 있고, 막과 장 사이에 가끔씩 등장하는 지휘자 케빈 로데스도 풍부하고 경쾌한 음악으로 현장의 흥을 돋운다.

– 재밌는 점은 타이틀 롤인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 판자는 단시 소재를 제공하는 조역으로 등장할 뿐이라는 점. 따라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여관집 딸인 키트리와 그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누레예프 버전은 한 세기를 풍미했던 무용수의 작품인 만큼, 테크닉이 복잡하고 어렵게 안무되어 있다. 따라서 키트리와 바질의 2인무는 남녀 역할과 상관없이 무용수의 점프력과 빠른 회전력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두 조역에 의해 막 간의 스토리의 연계도 강화되어 마치 한편의 문학작품을 보는 듯하다. 빈 국립극장 발레단의 간판스타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이자, 수많은 영상물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주역을 맡았다.

C Major 746608 **[3DVDs]**
C Major 746704 **[Blu-ray]**

## 1988년 다큐멘터리: '독일 슐레스비치 홀슈타인 음악제의 번스타인'

호란트 호울펠트 · 험프리 버톤(연출 · 감독), 번스타인(지휘 · 출연) 외

**번스타인이 제2의 번스타인을 찾는다!**

1987년부터 번스타인(1918~1990)은 독일 잘차우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음악제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모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이끌었다. 이 영상물은 1988년의 시간을 담은 것. 지원자 1600명에서 선발된 120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거장의 지휘와 가르침 하에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흥미진진하다. '봄의 제전'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 하지만 거장은 그들을 '유혹'해가며 놀라운 음악적 결과를 도출한다. 청년지휘자들도 거장의 문하에서 희망을 품고, 좌절을 겪고, 다시 도전하고 이겨낸다. 중간의 번스타인의 인터뷰는 지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어록 같다. 보너스트랙에는 번스타인/빈 필과 유스투스 프란츠(1944~)가 함께 한 슈만 피아노 협주곡 1985년 실황이 수록. 해설지(17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영상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2018년, 번스타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영상물들이 Cmajor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

– 번스타인은 1986년 7월에 열린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음악제의 개막작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선보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축제가 열리는 잘차우 성에서 여름이 되면 젊은 음악가들이 모이는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 영상물은 1988년, 그 특별한 시간을 담은 것.

– **Part 1: '오케스트라의 탄생'이다.**
160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120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번스타인의 지휘와 가르침 아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의 생각과 기대감이 담긴 인터뷰가 인상적이다.

– **Part 2: '오케스트라 작업과 봄의 제전'이다.**
번스타인과 젊은이들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마에스트로는 가르치고 주입하기보다는, 개성과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을 이끌기 위해 '유혹'하며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낸다.

– **Part 3: '국제지휘자 콩쿠르와 마스터 코스'이다.**
전 세계에서 선출된 10명의 지휘자 중 단 4명만이 번스타인과 함께 할 기회를 받아 레슨을 받는다. 청년지휘자들은 거장의 문하에서 희망을 품고, 좌절을 겪고, 다시 도전하고 이겨낸다. 청년에게 건네는 노장의 말들은 하나하나 명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박자나 박동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입니다. "지휘자에게 해야 할 큰 일은 오케스트라의 색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오케스트라는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안 되면 쉽게 고칠 수 있어야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악장입니다. 지휘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휘자는 그 이상을 해내어 단원들에게 음악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번스타인의 지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어록과도 같다.

– **보너스 트랙:**
유스투스 프란츠(1944~)의 젊은 날이 담긴 1985년 빈 무지크페어라인 실황이다. 번스타인/ 빈 필의 슈만 피아노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17쪽 분량/ 영 · 불 · 독어)에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5408 [DVD]
C Major 745504 [Blu-ray]

## 영상다큐멘터리 – '유자 왕의 눈동자 너머' [보너스트랙: 2016 잘츠부르크 실황]

유자 왕(피아노), 애너스&올리비에 스피로(영상연출), 리오넬 브랑기에(지휘),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건반 위의 공작새, 유자 왕은 고독할까?**

1년 중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12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유자 왕(1987~)의 삶은 유목 생활 그 자체로 다큐멘터리(47분)는 그녀와 함께 하는 여정을 담는다. 흥미진진한 장소, 분장과 드레스, 연습실에서의 손가락 풀기, 임동혁과 가볍게 와인을 나누는 모습 등 그녀의 일상이 담겨 있으며, 그녀는 피로, 긴장, 외로움 등 인간적인 고백도 카메라 앞에 털어놓는다. 보너스 트랙은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42분). 리오넬 브랑기에/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거슈윈과 라벨의 협주곡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만나는 그녀의 연주는 뭔지 모를 고독의 여운과 진한 감동을 준다. 좀 남다른 유자왕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1982년생인 윤디 리, 랑랑과 함께 중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유자 왕(1987~)은 핫한 의상과 스타일리시한 해석으로 집중을 한 몸에 받는 피아니스트다.

– 이 영상다큐멘터리는 유자왕과 함께 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1년 중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12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그녀의 삶은 유목 생활 그 자체다. 카메라는 유자 왕의 뒤를 따라 흥미진진한 장소와 화려한 도시로 안내한다. 공연 전 분장과 드레스 고르기, 호텔방과 낯선 연습실에서의 치열한 연습, 아이패드에 담긴 악보를 보며 끊임없이 손가락 풀기 등 그의 아주 사소한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유자왕과 가볍게 와인을 나누는 임동혁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 그러면서 시차로 인한 피로, 긴장, 외로움 등 그는 인간적인 고백도 카메라 앞에 털어놓는다. 유자왕의 고백은 카메라와 정면으로 마주한 인터뷰가 아니라, 그의 일상과 무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자연스럽게 흐른다.

– "피아니스트는 항상 혼자 있어야하며 힘들고 외롭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은 거의 고립된 삶과 같아서,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음악이 있을 때 뿐이죠."

– 47분의 영상 다큐멘터리와 함께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 커플링되어 있다.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췄던 리오넬 브랑기에/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거슈윈과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만나는 그녀의 연주는 뭔지 모를 고독의 여운과 진한 감동을 준다. 좀 남다른 유자왕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816 [DVD]
Dynamic 57816 [Blu-ray]

## 2017 산카를로 극장 실황 –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

유라 발크하(지휘), 산카를로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휴고 데 안나(연출), 에밀리 마기(미니), 로베르토 아로니카(딕 존슨), 클라우디오 스구라(잭 랜스)

**오페라극장에서 한 편의 서부영화를 만나다**

뉴욕 메트오페라의 위촉작으로 1916년 초연된 푸치니의 '서부의 아가씨'를 선보인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 실황물(2017.12)이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여장부 미니와 도적이면서도 순수한 딕 존스의 사랑, 그리고 존슨의 뒤를 좇는 보안관 랜스의 드라마를 담은 영상물은 마치 영화 같은 카메라워킹으로 인해 색다른 관람의 재미를 제공한다. 카메라는 독창 · 중창 · 합창의 영역을 골고루 비추며 아로니카(딕 존슨), 마기(미니), 스구라(랜스)를 영화주인공으로 만든다. 발크하의 풍부한 음향을 일으키는 지휘, 마기의 집중력과 힘, 존슨의 순수한 목소리, 랜스의 외모와 연기력은 이 작품과 프로덕션을 뇌리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해설지(17쪽/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12월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에 오른 푸치니의 '서부의 아가씨' 실황물이다.

– 1910년 뉴욕에서 초연된 푸치니의 '서부의 아가씨'는 1904년 초연작 '나비부인', 1916년 초연작 '투란도트'의 중간 작품으로 그의 이국적인 취향이 반영된 작품이다. 뉴욕 메트 오페라의 위촉작으로 미국의 관객을 고려하여 개척기의 서부를 무대로 삼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다소 외면을 받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음악과 대본의 전통적인 오페라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 푸치니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라 그런지 종래에 보기 드문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여주인공 미니는 오페라 속의 지고지순한 전통적인 여인상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장부로 설정되었고, 딕 존슨은 도적의 두목이면서도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순수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하고, 보안관 랜스는 존슨의 뒤를 좇는다.

– 후고 데 안나가 연출한 이 작품은 서부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거친 남성들과 총잡이들이 등장한다. 영상으로 접하는 이 작품의 매력은 영화 같은 카메라 워킹에 있다. 카메라는 독창 · 중창 · 합창의 영역을 골고루 비추며 딕 존슨 역의 로베르토 아로니카와 미니 역의 에밀리 마기를 영화주인공처럼 만들어준다. 3막에서 존슨이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 유언처럼 부르는 아리아 '내가 자유의 몸으로 멀리 떠났다고 그녀에게 전해주세요'가 이 작품의 백미이다. 여기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라이 발크하의 지휘는 푸치니 특유의 선이 굵고 세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사해낸다.

– 해설지(17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Dynamic 37811 [2DVDs]
Dynamic 57811 [Blu-ray]

## 2017 도니제티 페스티벌 실황 – 마이르 '체 오리지날!' & 도니제티 '피그말리오네'

지안루카 카푸아노(지휘), 라스칼라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안토니오 시라구사(피그말리온), 아야 와키조노(갈라테아), 브루노 드 시몬느(페베오) 외

**먼지 털고 세상에 나온 도니제티와 그의 스승**

다이나믹 레이블에서 내놓은 '세계 최초'의 영상물로 2017년 도니제티 페스티벌에 오른 마이르의 '체 오리지날'과 도니제티의 '피그말리오네'이 동봉되어 있다.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라는 것도 영상물에 의미를 더해준다.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과 사랑에 빠진다는 '피그말리오네'(37분)는 그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을 그린 2인 오페라이다. '체 오리지날'(105분)은 모두가 음악을 알고 사랑해야한다는 음악광신자 페베오를 그리고 있다. 전자의 무대미술과 후자의 이색적인 패션은 이 영상물이 선사하는 또 다른 재미이다. 해설지(16쪽 분량/영 · 이탈리아어)에는 작품해설, 크레디트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다이나믹 레이블은 '세계 최초(WORLD PREMIERE RECORDING)'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숨은 오페라를 발굴하고 있다. 이 영상물에도 같은 타이틀이 붙었다.

– 동봉된 '체 오리지날!'의 작곡가 마이르(1763~1845)와 '피그말리오네'의 도니제티(1797~1848)는 사제지간이다. 한마디로 사제의 합작물이다. 두 작품 모두 2017년 도니제티 페스티벌(베르가모 극장) 실황물이다.

– 1816년에 작곡된 '피그말리오네'는 일찍이 오페라에 두각을 띤 도니제티의 첫 작품으로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이다.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신화를 소재로 한 것이다. 초연은 한 세기가 부쩍 지난 1960년이었다.

– 이 작품은 두 명의 성악가만 출연한다. 안토니오 시라구사(피그말리온)와 아야 와키조노(갈라테아)이다. 분량은 37분. 무대 위의 무대로 디자인된 작은 방에는 침대만이 놓여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피그말리온의 상태를 연출가는 '방'과 '침대'로만 그리고 있다.

– 도니제티는 10세 때부터 마이르에게 10년 동안 성악 · 첼발로 · 비올라를 배웠다. 마이르의 '체 오리지날'은 1787년 초연작이다. 자신의 집에서는 모두가 음악을 알고 사랑해야한다는 음악광신자 페베오를 그리고 있다. 브루노 드 시몬느는 코믹한 연기와 노래로 페베오의 광기를 진지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려낸다. 출연진의 알록달록한 패션은 이탈리아가 오페라의 강국이자 패션의 선진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배경에는 앞서 등장한 '피그말리오네'의 무대가 유리 너머로 보인다. 두 작품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상이다. 출연진이 펼치는 경쾌한 레치타치보의 대화도 매력적이다. 중간마다 나오는 첼발로 소리는 지휘를 맡은 지안루카 카푸아노의 연주 솜씨다. 분량은 105분.

– 해설지(16쪽 분량/영 · 이탈리아어)에는 작품해설, 크레디트가 수록되어 있다.

Dynamic 37822 [2DVDs]
Dynamic 57822 [Blu-ray]

## 2018 리세우극장 실황: 도니제티 '라 파보리타'

루이지 파비오(지휘),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아리엘 가르시아 발데스(연출), 베로니카 시메오니(레오노라), 셀소 알베로(페르난도) 외

**'라 트라비아타'를 연상시키는 도니제티의 명품 비극**

1840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도니제티의 '라 파보리타' 2018년 2월, 바르셀로나 리세우 오페라극장 실황이다. 왕의 정부인 레오노라가 수도사 페르난도를 사랑하지만 오해로 인해, 결국 페르난도의 품에서 레오노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줄거리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라 트라비아타'가 떠오를 것이다. 각각 이탈리아 · 스페인에서 출생해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베로니카 시메오니(메조소프라노 · 레오노라)와 셀소 알베로(테너 · 페르난도), 연출가 발데스만의 고전적 감각이 살아 있는 미장센, 루이지의 역동감과 쓸쓸한 표정이 교차하는 지휘는 명작을 더욱 빛내고, 영상물을 명품으로 만든다. 해설지(16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 해설과 줄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베르디가 '라 파보리타'를 원작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도니제티의 '라 파보리타'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라 트라비아타'를 떠올리게 된다. '라 파보리타'는 4막의 오페라로 1840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제목을 번역하자면 사랑하는 여인 즈음이 될 것이다.

– 카스티야의 왕 알폰소 11세는 그의 정부 레오노라를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보내 혼자 지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숨긴 레오노라는 그곳에서 젊은 수사 페르난도를 만나고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튼다. 젊은 수사는 수도원에서 퇴출당하고 레오노라는 알폰소 왕에게 부탁해 페르난도를 장교로 임명케 한다. 페르난도는 여러 공을 세우다가 결국 왕의 호의로 레오노라와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페르난도에게 자신이 알폰소 왕의 정부임을 고백한다. 페르난도는 도망가고, 이후 그녀의 진심을 안 페르난도가 레오노라를 다시 찾는다. 하지만 그녀는 쇠약해져 페르난도의 품에서 숨을 거두며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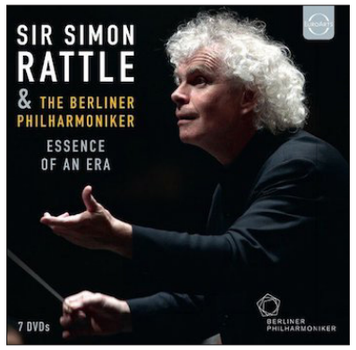
– 한마디로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는 '라 파보리타'의 레오노라처럼 진심어린 자신의 사랑을 펼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국내에선 다소 낯설지만, 이 영상물을 보다보면 도니제티의 대표작 '돈 파스콸레'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의 대열에 이 작품을 넣게 된다.

– 2018년 2월,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리세우 오페라극장 실황.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태어나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베로니카 시메오니(레오노라 역)와 테너 셀소 알베로(페르난도 역)가 주연이다. 영화감독 아리엘 가르시아 발데스는 작품의 원작을 살려 고전적인 연출을 펼쳐낸다. 셰익스피어 등 고전에 능한 그의 시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영상물이다.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끄는 파비오 루이지의 지휘 역시 데모니쉬한 역동감뿐만 아니라 두 주인공의 쓸쓸한 표정까지 골고루 전해주어 듣는 이를 매료시킨다.

– 해설지(16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 해설과 줄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4798 **[7DVDs]**

### 1993~2017 래틀/베를린 필 '시대의 본질'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마르첼로 알바레스(테너),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메조소프라노), 솔 가베타(첼로), 바딤 레핀(바이올린), 미츠코 우치다(피아노)

**베를린과 함께 했던 래틀의 앨범을 들추다**

래틀(1955~)과 베를린 필의 첫 만남부터 역사적인 현장을 담은 7장 DVD 구성의 박스물로, 유로아츠에서 개별적으로 발매했던 영상물을 한데 모은 것이다. 객원지휘자로 베를린 필과 처음 만난 영상(DVD1)을 시작으로, 거쉰 · 번스타인으로 수놓은 1995년 발트뷔네 콘서트, 2006년의 마지막 밤을 미츠코 우치다(피아노)와 함께 한 송년음악회, 레핀(바이올린)과 모스크바를 달군 2008년 유로파콘서트, 2014년 솔 가베타(첼로)와의 호흡, 2017년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의 '토스카', 디도나토(메조소프라노)와 함께 2017년의 문을 연 신년음악회(DVD7)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래틀/베를린 필의 역사적이고 경이로운 순간들을 시간 순으로 만날 수 있다. DVD는 종이케이스에 담겨 있으며, 해설지(18쪽 분량 · 영어)에는 간단한 곡목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사이먼 래틀(1955~)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베를린 필을 이끌며 전통과 혁신의 미묘한 균형을 잡아갔다.

–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난 래틀은 브리튼 · 엘가 · 거슈윈 · 번스타인 등의 작품으로 베를린 필의 영미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했다. 이러한 모습은 본 영상물 중 발트뷔네 콘서트 '아메리칸 나이트'(DVD2)에 잘 수록되어 있다.

– 영상물은 총 7장의 DVD로 구성되어 있다. 객원지휘자로 베를린 필과 처음 만나 라모 · 베를린오즈 '환상교향곡'을 명쾌한 해석으로 이끄는 1993년의 역사적인 영상(DVD1)을 시작으로, 거쉰 · 번스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1995년 발트뷔네 콘서트 '아메리칸 나이트'(DVD2), 2006년의 마지막 밤을 미츠코 우치다(피아노)와 함께 수놓는 송년음악회(DVD3), 모스크바에서 바딤 레핀(바이올린)과 함께 한 2008년 유로파콘서트(DVD4), 2014년 바덴바덴에서 솔 가베타(첼로)와의 호흡(DVD5), 2017년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에 올린 '토스카'(DVD6), 조이스 디도나토(메조소프라노)와 함께 2017년의 문을 연 신년음악회(DVD7)를 통해 래틀/베를린 필의 역사적이고 경이로운 순간들을 시간 순으로 만날 수 있다.

– 로라 아이킨(소프라노), 마르첼로 알바레스(테너), 신시아 클라리 · 조이스 디도나토 · 막달레나 코제나 · 마리에타 심슨(메조소프라노), 데일 듀싱(바리톤), 솔 가베타(첼로), 웨인 마샬(피아노), 카밀라 니룬드 ·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소프라노), 바딤 레핀(바이올린), 미츠코 우치다(피아노), 마르코 브라토냐(바리톤) 등이 협연자로 함께 한다. 최고의 지휘자와 악단에 걸 맞는 최상의 협연자들이다.

– DVD는 종이케이스에 담겨 있으며, 해설지(18쪽 분량 · 영어)에는 곡목, 연주 일시 및 장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97048 **[DVD]**
EuroArts 2097044 **[Blu-ray]**

### 2016 아비뇽 페스티벌
### –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 · 다미엥 야렛 안무 '바벨탑 7.16'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 · 다미엥 야렛(안무), 카즈나리 아베 · 파르리치아 보비 · 사타르 칸(음악)

**현대무용과 이국적 음악으로 만나는 바벨탑 이야기**

현대무용의 중심지인 벨기에 출신의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1976~)와 다미엥 야렛(1976~)이 공동안무한 '바벨탑 7.16'은 성서 속 바벨탑 서사를 중심으로 오늘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의 가능성을 묻는 철학적인 문제작이다. 2016년 7월 아비뇽 페스티벌의 교황청 안뜰 야외무대 실황이다. 2010년 라모네 극장 초연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거대한 3차원 프레임을 움직이며 거대한 조형물(바벨탑)을 쌓고, 그 안에서 춤을 통해 전개하는 분위기가 이채롭다. 사용된 음악도 일본 · 고대 이탈리아 · 중동 등 다양하다. 실험성을 내세운 아비뇽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영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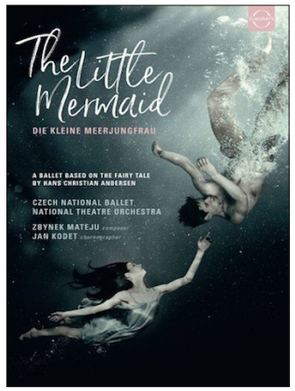
**[보조자료]**

– '바벨 7.16'은 현대무용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벨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1976~)와 다미엥 야렛(1976~)이 공동으로 안무한 작품이다. 이 영상물은 2016년 7월 아비뇽 페스티벌의 메인무대 중 하나인 아비뇽 교황청 안뜰(la Cour d'Honneur du Palais des Papes)의 야외무대에 오른 실황이다.

– '바벨 7.16'은 다양한 국적의 언어와 신체가 만나 다양성과 공존의 어려움에 대한 충격을 요구한다. 셰르카위의 작품은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에 인문학적 의문을 던진다. 같은 해 7월, 뮌헨 국립극장에 오른 라모의 오페라발레 '우아한 인도의 나라'(Bel Air Classiques)의 총연출과 안무를 맡은 셰르카위는 바로크기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 이민자들의 이동, 파편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토와 국경의 문제 등을 환기시켰다.

– '바벨 7.16'은 2010년 라 모네 극장에서 초연한 '바벨'의 업그레이드 버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은 인간들의 오만함에 분노한 신이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하는 저주를 내려 건설은 혼돈 속으로, 인간들은 불신과 오해 속에 서로 다른 언어들과 함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바벨탑의 서사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것이다. 무대에 설치된 거대한 3차원 프레임을 움직이며 거대한 조형물을 쌓고, 그 안에서 춤을 통해 전개하는 분위기가 이채롭다.

– 사용된 음악도 인상적이다. 일본의 전통음악가 카즈나리 아베, 이탈리아의 고대음악가 파르리치아 보비, 중동의 사타르 칸 등 다양한 음악가들에 의한 음악들이 공존한다.




EuroArts 2067498 [DVD]

## 2017 체코 국립극장 실황 – 창작발레 '인어공주'

체코 국립발레단, 안드레아스 바이저(지휘) ·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얀 코데(안무), 츠비네크 마테유(음악)

**현대음악과 발레로 새롭게 그린 '인어공주'**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2막의 창작발레로 체코 국립극장 2017년 9월 실황이다. 체코를 대표하는 안무가 얀 코데는 '인어공주'의 로맨스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며 비극에 빠진 인어공주와 욕망에 초점에 맞춘다. 신비한 분위기와 함께 실험적인 독무와 군무로 가득하다. 동화의 서사를 따르는 발레극보다는 움직임과 춤의 표현을 강하게 드러낸다. 체코 태생으로 오페라 · 발레 · 영화 · 드라마 등 전방위로 활동하는 츠비네크 마테유의 음악은 20세기 현대음악풍에 기반하며 작품의 멜랑콜리함을 더한다. 해설지(11쪽 분량/영어 · 체코어)에는 물 · 다리 · 머리카락 · 물고기 · 눈물 등의 상징에 관한 의미를 풀어놓고 있다.

**[보조자료]**

–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체코 국립발레단의 창작품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 상대적으로 낯선 체코 국립발레단과 발레 창작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안데르센 동화에 원작을 두고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동유럽 특유의 실험적인 안무와 음악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체코 국립극장 2017년 9월 실황이다.

– 보는 이는 이 영상물을 통해 체코의 뛰어난 예술가 두 명을 알게 된다. 안무가 얀 코데와 작곡가 츠비네크 마테유이다.

– 체코 국립발레단의 발레마스터로 활동 중인 얀 코데는 국내에도 인지도가 높은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 나초 두아토 등과 여러 차례 작업을 한 인물이다. 그의 '인어공주'는 물 속 세계의 신비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실험적인 독무와 군무로 가득하다. 동화의 서사를 따르는 발레극보다는 움직임과 춤의 표현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 작곡가 츠비네크 마테유는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영화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페라, 발레, 연극, 드라마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한다. 이 작품에 사용된 그의 음악은 철저히 20세기 현대음악에 기반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어공주'의 로맨스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며 비극에 빠진 인어공주와 욕망에 초점에 맞춘 작품이다. 그만큼 비극적인 움직임과 무대를 채우는 현대음악의 소리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멜랑콜리한 '인어공주'라 할 수 있겠다.

– 해설지(11쪽 분량/영어 · 체코어)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물 · 다리 · 머리카락 · 물고기 · 눈물 등의 상징에 관한 의미를 풀어놓고 있다.

Ideale Audience 3073908 [2DVDs]
Ideale Audience 3073904 [Blu-ray]

## 영상 다큐멘터리 – 스테파니 아르헤리치 'Bloody Daughter'

스테파니 아르헤리치(연출),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스테판 코바세비치(출연), 야체크 카스프치크(지휘)/신포니아 바르샤바

**아르헤리치의 딸이 영상에 담은 평범한 엄마 아르헤리치**

아르헤리치(1941~)는 로버트 첸(지휘)과 딸 리다 첸(비올라)을, 샤를르 뒤트와와 딸 애니 뒤트와(낭송음악가)를, 스티븐 코바세비치(피아노)와 딸 스테파니 아르헤리치(사진작가)를 낳았다. 스테파니가 2012년에 제작한 이 영상물은 국내에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세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제에 소개되기도 했다. 딸의 카메라에 담긴 아르헤리치는 '피아노의 여제'가 아닌 세 딸을 둔 어미의 모습이다.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은 '인간 아르헤리치'의 결론 같은 대목이다. 영상은 104분 분량. 보너스 DVD에는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 마주르카 Op.24–7, 슈만 '꿈의 얽힘' Op.12–7이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15쪽/영 · 독 · 불어)에는 영상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아르헨티나 태생의 마르타 아르헤리치(1941~)는 중국계 지휘자 로버트 첸과 20대 초반에 혼례를 올렸고, 딸 리다 첸을 낳은 후 바로 헤어졌다. 리다 첸은 현재 비올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2011년에 내한하기도 했다.

– 두 번째 결혼의 상대자는 지휘자 샤를르 뒤트였다. 두 사람은 1969년에 결혼하고 1973년에 헤어졌다. 애니 뒤트와는 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 역시 낭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가로 활동 중이다.

– 세 번째 남편은 피아니스트 스티븐 코바세비치. 그와 낳은 딸은 사진작가이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스테파니 아르헤리치이다.

– 스테파니가 2012년에 제작한 이 영상물은 'Bloody Daughter'이라는 원작명과 달리 국내에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세 딸들'로 번역되어 2013년 제천국제영화음악제에 상영되기도 했다.

– 이 다큐멘터리는 아르헤리치의 삶에 관한 전기나 스케치가 아니다. 스테파니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다. 스테파니의 출산 장면을 지켜보는 아르헤리치의 표정이 영상물의 첫 장을 여는데, 그 때의 표정만큼은 '피아노의 여제'가 아니라 영락없는 세 딸을 둔 어미의 모습이다.

– 아르헤리치도 딸의 카메라 앞에선 모든 것을 무장해제한다.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은 '인간 아르헤리치'의 결론 같은 대목이다. 스테파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코바세비치의 인간적인 면모와 인터뷰도 만날 수 있다. 영상은 104분 분량.

– 2DVD에는 야체크 카스프치크(지휘)/신포니아 바르샤바와 함께 한 2010년 8월 바르샤바 필하모니홀 실황으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수록되어 있다.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세공한 40분의 협연이 끝나고 아르헤리치는 쇼팽 마주르카 Op.24–7과 슈만 '꿈의 얽힘' Op.12–7을 앙코르로 선사한다.

– 해설지(15쪽 분량/영 · 독 · 불어)에는 영상물과 스테파니, 아르헤리치, 코바세비치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0858 **[5DVDs]**

***모든 클래식 애호가들의 "필청" DVD

##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Masters of Classical Music) 친절한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클래식 음악의 걸작들

**20곡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유명악단과 지휘자들이 함께 연주하며 작품분석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가이드 다큐멘터리**

**유익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 콘서트 가이드**

**[작품소개]**

–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초연했을 때 왜 거친 싸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가? 슈베르트는 왜 그의 유명한 B단조 교향곡 "미완성"을 결코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뒤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이든은 그의 놀람 교향곡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생각했을까?

– 이러한 유명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다큐멘터리 시리즈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에서 얻을 것이다.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들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20개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 관현악단들이 연주한다. 초보자와 실력자 등 모든 클래식 애호가들의 "필청"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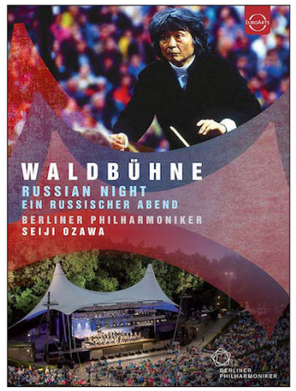
–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은 유익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 콘서트 가이드로,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20곡의 관현악 작품을 분석한다. 다큐멘터리 안에는 악보 단편들이 더욱 쉽게 음악을 감상하고 작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감상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 작품의 탄생지를 경험하고, 작품에 대한 개요를 들음으로써 작곡가의 삶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 20개의 에피소드들은 각 작품의 탄생과 음악적 구조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제공한다. 뛰어난 연주자들과 지휘자들, 그리고 음악학자들이 각 작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공하여 여러분을 안내한다.

영화와 같은 콘서트 가이드에서 최고의 음악적 해석을 들을 수 있다. 음악회 실황은 다니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피에르 불레즈, 마리스 얀손스, 마르타 아르헤리치, 길 샤함, 베를린 필하모닉,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등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관현악단들이 대거 등장한다.

**[참여한 지휘자]**
Claudio Abbado | Daniel Barenboim | Pierre Boulez | Semyon Bychkov | Riccardo Chailly | Hartmut Haenchen | Bernard Haitink | Mariss Jansons | Kurt Masur | Giuseppe Sinopoli | Gottfried von der Goltz

**[포맷]**
*Item Number: 2060858/ *UPC Code: 880242608581/ *Running Time: 600 mins/ *TV Format: 16:9 - NTSC/ *Sound: PCM Stereo/ *Subtitles: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Korean, 中文/ *Region Code: 0 (worldwide)/ *Booklet: English, Deutsch




EuroArts 2011508 **[DVD]**

## 베를린 필 1993 발트뷔네 콘서트 실황 – '러시아의 밤'

세이지 오자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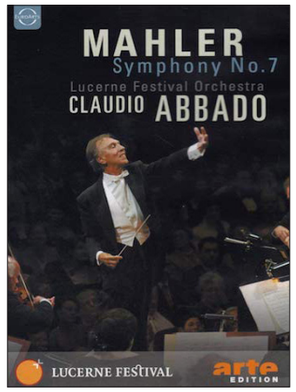
**독일 숲 속에 울려 퍼진 러시아 명작들**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를 뜻하는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시즌 마지막에 개최되는 베를린 필만의 콘서트이다. 오케스트라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발트뷔네는 베를린 외곽의 샤를로텐부르크에 있다. 콘서트는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하는데, 세이지 오자와 지휘봉을 잡은 공연의 테마는 '러시아의 밤'이다. 보로딘, 하차투리안, 림스키–코르사코프로 전반부 숲의 공기를 달구고,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와 차이콥스키 '호두까지 인형' 모음곡과 '1812' 서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숲의 낭만을 가득 채운다.

EuroArts 2057988 **[DVD]**

## 2004 루체른 페스티벌 – 말러 교향곡 4번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막달레나 코제나(메조소프라노)

**아바도의 말러 4번, 코제나의 노래가 완성도를 높이다**
2009년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아바도는 말러 1번과 4번을 선보였다. 교향곡 4번이 수록된 실황물로 8월 21~22일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 콘서트홀 실황물이다. 이 음반은 '교향곡으로서의 말러'보단 '실내악으로서의 말러'를 보여주는 듯 사운드의 결구와 색채가 아기자기하다. 무엇보다 마지막 악장(4악장)에서 누가 협연하느냐에 따라 이 곡의 감동은 좌우되는데, 아바도는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와 함께 아담하고 맑은 색채를 공유하며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킨다. 성실한 내한으로 인기도가 높아진 코제나의 활약상이 인상적이다.




EuroArts 2054628 **[DVD]**

## 2005 루체른 페스티벌 – 말러 교향곡 7번 '밤의 노래'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실연으로 만나기 힘든 말러 7번, 아바도가 안내한다!**
2003~2014년에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가 음악감독으로 이끌었고, 2016년부터 샤이가 그 뒤를 잇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는 각 오케스트라의 스타단원들이 모인 초호화 오케스트라이다. 영상물은 2005년 8월 17~18일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 콘서트홀 실황. '밤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 7번은 말러의 교향곡 중 많이 연주되는 교향곡 5번과 함께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하여 승리의 환희로 마무리되는 5악장 구성의 작품이다. 말러의 작품 중에 장 · 단조의 교차와 불규칙한 악절로 점철된 이 작품을 아바도는 이 '밤'의 표제작을 찬란하게 지휘한다. 국내에서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명작을 최고의 연주와 실황으로 만날 수 있다.

## FARAO www.farao-classics.de

Farao Classics D108055 [DVD]

### 2004 바이로이트극장 실황 – 하이든 오라토리오 '사계'

에노흐 주 구텐베르크(지휘),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 노이보이언 합창단, 미리암 마이어(소프라노), 제임스 테일러(테너), 랄프 루카스(바리톤)

**'천지창조'와 함께 기억해야 할 명작, '사계'**

하이든(1732~1809)의 오라토리오 '사계'는 자연과 농부들의 생활과 그들의 기쁨을 사계절별로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다. 농부 시몬과 그의 딸 한네, 한네의 애인인 젊은 농부 루카스가 독창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천지창조'의 성공 후 3년 뒤, 1801년에 나온 이 작품은 하이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작이다. 영상물은 2004년 10월 바이로이트 극장 실황. 클랑베르발퉁은 1997년에 창단되었다. 합창음악의 대가인 구텐베르크의 지휘는 성악가와 합창단의 목소리를 넘어 관현악에서도 생동감을 자아낸다. 30분 분량의 공연(독 · 영어 자막)과 구텐베르크가 해설하는 강의(10분 분량, 독일어 진행, 영어 자막)가 동봉되어 있다. 해설지(13쪽 분량/독 · 영어)에는 지휘자 · 성악가 · 오케스트라의 이력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오라토리오는 종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하이든(1732~1809)의 오라토리오 '사계'는 자연과 농부들의 생활과 그들의 기쁨이 아름답게 묘사돼 있다.

– 제1부 '봄'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합창, 비를 기원하는 노래, 아름다운 들판의 풍경을 묘사한다. 제2부 '여름'은 오보에의 감미로운 선율과 풀벌레 소리, 여름밤을 지나 새벽이 밝아오는 풍경, 떠오르는 태양을 찬미하고 창조주의 위대함을 노래한다. 제3부 '가을'은 풍년을 축하는 농부들의 노래다. 생기에 찬 노래가 합창으로 울려 퍼진다. 제4부 '겨울'은 겨울 벌판의 스산한 정경을 담고 있다. 긴 겨울밤과 눈보라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피난처를 찾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농부 시몬과 그의 딸 한네, 한네의 애인인 젊은 농부 루카스가 독창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 대표작으로 자리 잡은 '천지창조'가 큰 성공을 거두고 3년 뒤인 1801년에 나온 작품으로 오라토리오에서 물이 오른 하이든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사계'이기도 하다.

– 이 영상물은 2004년 10월 바이로이트 극장 실황이다. 클랑베르발퉁은 1997년에 창단되었다. 바로크 초기의 작품에 주력하며 명성을 쌓아온 이들의 사운드는 견고하면서도 생동감이 살아 있다. 합창음악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에노흐 주 구텐베르크의 지휘는 성악가와 합창단의 목소리를 넘어 관현악에서도 생동감을 자아낸다.

– 30분 분량의 공연(독 · 영어 자막)과 함께 구텐베르크가 직접 해설하는 '사계' 강의(10분 분량, 독일어 진행, 영어 자막)도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13쪽 분량/독 · 영어)에는 지휘자 · 성악가 · 오케스트라의 이력이 수록되어 있다.

##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88 [DVD]
Naxos NBD0062V [Blu-ray]

### 2015 스웨덴 말뫼오페라 실황 – 로시니 '오리 백작'

토비아스 링보흐르(지휘), 말뫼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린다 말리크(연출), 레오나르도 페란도(오리), 에리카 미클로사(아델레)

**로시니조차 웃음 짓게 하는 웃음제조기 테너 페란도**

2015년 1월 스웨덴 말뫼 오페라극장 실황. 로시니의 불어오페라 '오리 백작'은 바람둥이 오리(Ory) 백작이 다른 백작의 부인 아델레를 유혹하고자 온갖 인물은 물론 심지어 수녀로까지 위장하여 웃음을 주는 희극오페라이다. 고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한 말리크의 연출은 중세풍속도를 잘 살리고 웃음의 속도도 늦추지 않는다. 작품도, 연출가도, 극장도 낯선 이 공연의 보증수표는 오리 역의 테너 페란도이다. '세비야의 이발사' '라 체네렌톨라' '돈 파스콸레' 등 희극오페라의 주연으로 성장한 테너답게 이 작품에서도 웃음 섞인 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세련된 프레이징에서 묻어나오는 감성의 전달력까지 선보이는 그는 '페란도=오리=웃음'이라는 도식까지 완성시킨다. 해설지(총19쪽 · 영문)에 로시니의 예술세계 · 작품해설 · 출연진 소개가 수록.

**[보조자료]**

– 2015년 1월, 스웨덴 말뫼 오페라극장 실황으로, 로시니(1792~1868)의 희극오페라 '오리 백작'이다. 이 작품은 로시니가 프랑스 청중을 위해 작곡한 프랑스어 작품이다.

– '오리 백작'의 배경은 십자군 전쟁기인 13세기이다. 소문난 바람둥이인 오리(Ory) 백작은 남자들이 출정한 틈을 타 평소 맘에 두고 있던 백작부인 아델레를 유혹하려한다. 이를 위해 신통력 있는 은자로 가장하는가 하면, 그녀의 성에 들어가고자 수녀로까지 위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아델레를 사랑하는 이졸리에, 오리 백작의 행방을 추적하는 가정교사가 가세하며 포복절도할 한 편의 코미디가 만들어진다.

– 로시니는 이 작품의 주요 선율을 1825년 랭스에서 열린 샤를 10세의 대관식을 위해 작곡한 오페라 '랭스로의 여행'에서 차용하였는데, 원작의 거대한 14중창을 재구성하여 '오리 백작'의 인상적인 중창 부분들을 구성하기도 했다.

– 말뫼 오페라의 프로덕션을 연출한 린다 말리크는 2012년에 이 오페라극장에 데뷔한 이래 현재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말리크는 오페라의 고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중세의 풍속도를 잘 살리며 웃음의 속도도 늦추지 않는다.

– 이것만으로도 이 영상물의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주목해야 할 이는 오리 백작 역의 테너 레오나르도 페란도이다. 우루과이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성장한 그는 모차르트의 '세비야의 이발사', 로시니의 '라 체네렌톨라', 도니제티의 '돈 파스콸레' 등 유명 희극오페라에 주연으로 성장한 테너답게 '오리 백작'에서도 능청스럽고 웃음이 멈추지 않는 연기를 선보인다. 그러면서도 꿀 같은 목소리와 시원시원한 고음, 세련된 프레이징에서 묻어나오는 감성의 전달력이 남다르다. 아마도 그의 노래와 연기를 보고 나면 '오리 백작=레오나르도 페란도=웃음'이라는 도식을 떨쳐내기가 힘들 듯.

– 해설지(19쪽 분량 · 영문)에는 로시니의 작품세계, 작품해설, 주연 및 조연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Naxos 2.110563 [DVD]
Naxos NBD0079V [Blu-ray]

## 2017 프라이부르크 오페라극장 실황 – 마스네 '상드리용'

파브리스 볼롱(지휘), 프라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킴-릴리안 스트레벨(상드리용), 아낫 체르니(공주), 카타리나 멜리코바(페어리), 안자 정(마담), 후안 오로츠코(판돌프)

**팀 버튼식 환상동화 이미지를 입은 오페라**

영화감독 팀 버튼의 영상 감각을 애호하거나, 오페라를 통해 팀 버튼식의 환상동화를 만끽하고 싶은 이에게 적극 추천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오페라극장 실황 마스네의 '상드리용'(2017년 실황)이다. 한마디로 신데렐라 이야기. 공동연출의 문델과 모타는 팀 버튼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 오페라 장면을 통해 영화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타이틀롤의 소프라노 킴-릴리안 스트레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낯선 프라이부르크 오페라의 수준도 가늠해볼 수 있다. 변화무쌍한 연기와 노래가 매혹적인 스트레벨은 전속가수로 활동 중이다. 해설지(23쪽/영 · 독어)에는 작품 해설과 시놉시스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영화감독 팀 버튼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상 감각을 애호하거나, 오페라를 통해 팀 버튼식의 환상동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 영상물을 선택할 것. 2017년 4월 30일과 5월 1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극장 실황으로, 마스네의 오페라 '상드리용'이다.

– '상드리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데렐라 이야기이다. 신데렐라는 '재'란 뜻이 사용된 '재투성이 아가씨'란 의미다. 프랑스어 '상드리용', 이탈리아어 '체네렌톨라', 독일어 '아센푸텔'이 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시니의 오페라는 '라 체네렌톨라'이고, 프랑스 쥘 마스네의 오페라는 '상드리용'이라 붙었다. 계모와 이복자매의 핍박, 높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 그리고 보복을 담은 민담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00개 이상 발견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콩쥐 팥쥐'도 포함된다. 동화에선 복수 장면이 순화 또는 삭제된다.

– '상드리용'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물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낙소스 레이블이 내놓은 야심작이라 해도 좋다.

– 화면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동화책을 넘기는 듯한 연출로 눈길을 끈다. 공동연출을 맡은 바바라 문델과 올가 모타는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를 정도로 오페라 미장센에 많이 반영되었다.

– 타이틀롤은 소프라노 킴-릴리안 스트레벨. 국내에는 낯선 소프라노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를 통해, 역시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라이부르크 오페라극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연기와 노래가 매혹적인 그녀는 이 극장의 전속가수로 활동 중이다.

– 한국어 자막(불 · 독 · 영 · 일어)을 갖추었으며, 해설지(23쪽/영 · 독어)에는 작품 해설과 시놉시스가 담겨 있다.

Naxos 2.110579 [2DVDs]
Naxos NBD0078V [Blu-ray]

## 2016 데아터 안 데어 빈 실황 – 헨델 '아그리피나'

토마스 멩헬브로크(지휘),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 패트리샤 발돈(아그리피나), 제이크 아디티(네로), 필리포 미네치아(오토네), 다니엘 드 니세(포페아), 로버트 카슨(연출)

**원전연주의 숨은 고수 멩헬브로크를 다시 만나는 시간**

데아터 안 데어 빈의 2016년 3월 실황으로, 낙소스 레이블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영상물에는 여러 가지 매력포인트가 있다. 먼저 타이틀롤의 발돈과 니세로 대변되는 여성성악가의 단단한 진영이 그 하나이며, 몬테베르디 '포페아의 대관'의 선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리퀄이기도 하다. 가장 큰 포인트는 토마스 멩헬브로크와 그가 직접 조직한 시대악기 연주단체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의 연주이다. 현재 멩헬브로크는 아르농쿠르나 노링턴처럼 시대악기만의 영역을 벗어나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바로크오페라의 쌓인 먼지들을 털어낸 발굴과 당대 연주관습에 충실한 고수이기도 했다. 19세기적 음향감각과 카슨이 모던하게 그려낸 21세기적 디자인 감각이 맞물린 묘한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데아터 안 데어 빈에 오른 2016년 3월 실황으로,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프로덕션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토마스 헹엘브로크와 그의 주특기였던 원전연주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연주와 시대악기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영상물이다.

– 바로크 오페라의 최고봉인 몬테베르디(1567~1643)의 '포페아의 대관'은 악행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황비 오타비아를 버리고 부하 장군 오토네의 아내 포페아와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24세의 헨델(1685~1759)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발표한 '아그리피나'는 '포페아의 대관'보다 60년 이상 늦게 작곡된 작품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포페아의 대관'에 앞서 네로와 오토네가 황제 자리와 포페아를 놓고 겨루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 타이틀롤인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모친이다. 남편 클라디우스의 후계자로 네로와 오토네가 거론되는데, 자기 아들이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 야심찬 음모를 꾸민다. 정의가 승리하는 오페라 세리아의 일반공식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많이 반영한 이 작품에서는 결국 네로가 황제가 된다.

– 낙소스 레이블이 야심차게 내놓은 영상물에는 타이틀롤의 패트리샤 발돈을 비롯하여 제이크 아디티(네로), 필리포 미네치아(오토네)가 등장하며, 내한을 통해 국내에 많은 팬을 만든 오페라계의 흑진주 다니엘 드 니세(포페아) 등이 함께 한다. 로버트 카슨(연출)은 권력욕에 가득 찬 아그리피나의 집무실을 동시대 배경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친숙하게 다가온다.

– 무엇보다도 멩헬브로크의 전력(前歷)을 만난다는 점에서 영상물의 가치가 높다. 2011년부터 함부르크의 북독일방송교향악단(NDR)을 이끌고 있는 멩헬브로크는 1990년대 초반 자신이 조직한 시대악기 연주단체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과 함께 로티, 카발리 등의 숨은 명작을 발굴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아르농쿠르나 노링턴 등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시대악기의 영역을 벗어나 메인스트림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 멩헬브로크는 악기를 혼용하는 절충주의적 편성보다는 고악기로만 일괄 구성된 편성을 통해 정공법으로 작품을 돌파한다. 슬림한 스케일, 빠른 템포, 성악가들과 명확히 맞아 떨어지는 깔끔한 결구와 완성도를 통해 헨델 특유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와 유희적인 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음악은 상당히 고전적이고, 눈앞의 무대는 현실성을 체득한 19세기적 음향 감각과 21세기적 디자인 감각이 맞물린 묘한 영상물이다.

– 해설지(22쪽 분량/영 · 독어)에는 작품해설, 시놉시스, 캐스팅이 수록되어 있다.

##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55D [DVD]
OpusArte OABD7232 [Blu-ray]

OPUS ARTE

### 2017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로빈 티치아티(지휘),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클라우스 구스(연출), 리차드 크로포트(티토), 안나 스테파니(세스토), 앨리스 구테(비텔리아) 외

**간결하고 경쾌히 몰아가는 음악과 연출의 놀라운 궁합**

2017년 6월 실황으로, 1934년에 시작된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화제작 중 하나이다. 티토 황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세스토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 실존한 티토 황제(39~81)의 배경을 현대적으로 각색된 무대에 가끔씩 드리워진 영상은 작품의 키워드인 '배신'과 그 긴장감을 유지하게 한다. 음악적 간결함이야말로 로빈 티치아티의 박력 넘치는 지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풍부한 음색, 극적인 생동감, 크로포트(티토)와 메조소프라노 스테파니(세스토)의 뛰어난 연기는 물론 원작의 '아름다운 간결함'도 잘 살린 무대이다. 보너스 필름(5분/자막 없음)과 해설지(영어)에는 구스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1934년에 시작한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국내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왔다. 국내에 방송되는 4편 중 하나로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2017년 6월 실황 영상물이다.

– '티토 황제의 자비'는 모차르트(1756~1791)가 사망하던 해에 남긴 마지막 오페라이다. 티토 황제의 오랜 친구인 세스토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품는다. 하지만 티토는 세스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갈등하고, 결국 자신이 서명한 사형선고장까지 찢어버린다. 황제는 친구이자 배반자인 그들로 인해 충격까지 받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자비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내용이다.

– 연출가 클라우스 구스는 20여년 만에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을 다시 찾았다. 그는 실존인물 티토 황제(39~81)의 배경을 지우고 현대적으로 채색한다. 티토 역의 리차드 크로포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감미료처럼 인물 사이에 양념을 가미하며 드라마의 흐름을 맛깔나게 만든다. 세스토 역의 메조소프라노 안나 스테파니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남성 역할을 수행한다.

– 음악적 간결함이야말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로빈 티치아티의 박력 넘치는 지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풍부한 음색, 극적인 생동감, 가수들의 뛰어난 연기로 인해 관객을 설레게 하면서도 원작의 '아름다운 간결함'도 놓치지 않는다.

– 구스의 연출은 화려한 보여주기보다는 티토와 세스토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서곡이 울려 퍼질 때, 무대에 드리워진 영상에는 어린 티토와 세스토가 호수가에서 같이 노는 영상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친구의 배신'과 그 긴장감을 높인다.

– 보너스 필름(5분 분량/자막 없음)에는 연출가 구스를 비롯하여 크리스티안 슈미트(디자인) 등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에는 구스의 인터뷰와 작품 해설(영어)이 담겨 있다.

OpusArte OA1254D [DVD]
OpusArte OABD7231 [Blu-ray]

** 최고의 작품 **

### 2017 글라인드본 초연작 – 브렛 딘의 오페라 '햄릿'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브렛 딘(작곡), 매튜 조셰린(대본), 알란 클레이톤(햄릿), 바바라 해니건(오필리어), 사라 코놀리(거트루드)

**현대오페라에 최고의 음악가들이 몰린 이유**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초연작(2017.6.11) '햄릿'은 창작경향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작곡가 브렛 딘(1961~)은 2017년 서울시향과 비올라 협주곡(자작곡)을 선보여 국내에 화제가 된 인물. 그의 오케스트레이션은 평범치 않다. 관현악과 전자사운드가 뒤섞인다. 명장면인 극중극(트랙6)의 아코디언 소리는 비극의 폭풍전야를 만든다. '대사'에 갇혀 있던 햄릿의 광기는 서늘한 조성의 '음악'을 타고 흐른다. 유로프스키의 지휘는 현대음악에서도 빛을 발한다. 클로디어스는 턱시도에 왕관을 쓰고, 햄릿은 창백한 분장에 코트를 입는다. 최고의 창작자와 음악가가 떠받치고 있는 작품으로 허니건의 존재만으로 이 작품이 기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설지(21쪽 분량/영어)에는 작곡가 인터뷰를 포함하여 초연작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6월 11일,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에서 초연된 '햄릿'은 창작오페라의 음악적 트렌드와 연출기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이다. 지휘자 유로프스키를 비롯하여 바바라 해니건 등 최고의 성악가가 이 작품을 떠받치고 있다.

– 매튜 조셰린의 대본은 영국의 '국보'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대사를 원용한다. 오페라의 옷을 입은 햄릿의 매력은 무엇일까. 걷잡을 수 없는 햄릿의 광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대사'로 표현할 때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의 심리와 언어는 날카롭고 서늘한 조성의 '음악'을 타고 흐르며 더욱 격앙된다. 헝클어진 의상과 창백한 분장도 연극적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

– '햄릿'은 브렛 딘(1961~)의 작품이다. 작곡가이자 지휘자, 비올리스트로 활약 중인 브렛 딘은 1985년부터 14년간 베를린 필의 비올리스트로 활동했으며, 2009년 '작곡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했다. 2017년 서울시향과 자작한 비올라 협주곡을 아시아초연으로 선보여 국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브렛 딘의 오케스트레이션은 평범치 않다. 관현악과 전자사운드가 뒤섞이기도 한다. '햄릿'의 명장면인 극중극(트랙6)의 아코디언 소리는 비극의 폭풍전야를 만든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지휘는 현대음악에서도 빛을 발한다. 정밀하고 꼼꼼하다. 명성대로 탁월하다.

– 네일 암필드의 연출도 무대의 시각적 요소들을 현대적 의상과 도구로 설정했다. 클로디어스는 턱시도에 왕관을, 햄릿은 창백한 분장에 코트를 입고 무대를 누빈다.

– 햄릿 역의 앨런 클레이톤이 무대를 누비지만, '창작오페라'에 낯설어 하는 이라면 바바라 해니건을 바라보자. 오필리아 역이다. '현대음악의 프리마돈나'인 그녀는 등장과 비중은 다른 작품에 비해 적고 후반부(트랙9)에 몰려있다. 죽음의 장면에만 부각되는 원작에 충실한 결과다. 하지만 해니건만으로 이 작품이 기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해설지(21쪽 분량/영어)에는 브렛 딘을 포함하여 여섯 스태프의 인터뷰, 햄릿 인물론, 시놉시스, 무대사진, 성악가 · 런던 필 단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OA1262D [DVD]
OpusArte OABD7238 [Blu-ray]

## 2017 로열오페라 실황
## –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리차드 파니스(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다비드 뵈츠(연출), 리안나 하루투니안(레오노라), 그레고리 쿤데(만리코), 아니타 라흐벨리쉬빌리(아수세나), 비탈리야 빌리(루나) 외

**우리가 궁금해하는 성악가들이 온다**

런던 로열오페라의 2017년 실황물. 연출이나 무대미술의 실험보다는 '신의 캐스팅'이 압도적인 무대이다. 그중 아수세나 역의 라흐벨리쉬빌리는 여주인공 레오노라 역의 하루투니안보다 더 빛을 발한다. 국내 상영관을 통해 부지런히 소개된 메트의 '카르멘', 라스칼라 '아이다'의 암네리스 역으로 국내에 인지도가 부쩍 올라가 있는 메조소프라노이다. 광기와 비극적 인물을 실감나게 그리는 그녀는 집시의 풍모를 한 아수세나로 등장하여 그 존재감을 뿜어낸다. 1984년 조지아 태생. 하루투니안을 비롯하여 '4인조'는 한마디로 신의 캐스팅이다. 2막의 피날레에서 물이 오른 이들은 복잡하고 난해한 성부로 점철되어 있는 3 · 4막을 매끄럽게 돌파하는 괴력을 보여준다. 해설지(27쪽 분량/불 · 독 · 영어)에는 작품론 · 시놉시스 등이 수록.

**[보조자료]**

– 베르디의 1853년 작 '일 트로바토레'의 루나 백작은 귀족 처녀 레오노라를 사랑한다. 하지만 레오노라는 시인 만리코와 사랑하는 사이. 만리코를 포로로 잡은 루나 백작에게 레오노라는 석방을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하지만 이내 자살을 선택하고, 만리코 역시 죽음을 맞는다. 그러자 만리코의 어머니 아수세나는 루나 백작과 만리코가 친형제였음을 알리는 비극이다.

– 이 영상물은 런던 로열오페라가 선보인 2017년 1월 31일 실황물이다. 연출가의 실험이나 무대미술의 독특함보다는 전세계 주요 극장에서 맹활약하는 성악가를 내세운 신의 캐스팅이 매력도를 높인다. 레오노라 역의 리안나 하루투니안, 만리코 역의 그레고리 쿤데, 아수세나 역의 아니타 라흐벨리쉬빌리, 루나 역의 비탈리야 빌리가 그들이다.

– 배역의 비중과 달리 라흐벨리쉬빌리는 레오노라 역의 하루투니안보다 더 빛을 발하는 것도 특징이다. 국내 상영관을 통해 부지런히 소개된 메트오페라 '카르멘'의 카르멘, 라스칼라 '아이다'의 암네리스 역으로 국내에 인지도가 부쩍 올라가 있는 메조소프라노이다. 광기와 비극적 인물을 실감나게 그리는 그녀는 집시의 풍모를 한 아수세나로 등장하여 그 존재감을 뿜어낸다. 1984년 조지아 태생이다.

– 하루투니안을 비롯하여 '4인조'는 한마디로 신의 캐스팅이다. 2막의 피날레에서 물이 오른 이들은 복잡하고 난해한 성부로 점철되어 있는 3 · 4막을 매끄럽게 돌파하는 괴력을 보여준다. 해설지(27쪽 분량/불 · 독 · 영어)에는 작품론 · 시놉시스 등이 수록.

OpusArte OA1264D [DVD]
OpusArte OABD7240 [Blu-ray]

## 2017 로열 발레 실황
## – 프레데릭 애쉬톤의 '꿈', '교향적 변주곡', '마그리트와 아르망'

프레데릭 애쉬톤(안무), 아카네 타카다 · 스티븐 맥레이(꿈), 마리아넬라 누에즈 · 바딤 문타기로프(교향적 변주곡), 제나이다 야노프스키 · 로베르토 볼레(마그리트와 아르망)/엠마누엘 플라송(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로열 발레와 만나는 멘델스존 · 프랑크 · 리스트**

프레데릭 애쉬톤(1904~1988)은 로열 발레의 상징이자 '가장 영국적인 안무가'였다. 춤 자체의 아름다움과 음악과 어울림을 추구한 그의 대표작 세 편이 담긴 영상물로 2017년 6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이다. 1964년 작 '꿈'(60분)은 멘델스존의 매혹적인 성격이, 프랑크의 '교향적 변주곡'에서 모티프를 얻은 1946년 작 '교향적 변주곡'(21분)은 순수한 움직임과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1963년 작 '마그리트와 아르망'은 리스트의 서정성과 비극성이 잘 드러난다(40분). 보너스영상에는 '꿈'과 '교향적 변주곡' 소개, '마그리트와 아르망'에 출연한 제나이다 야노프스키의 인터뷰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에는 각 작품의 내력과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다.

**[보조자료]**

– 프레데릭 애쉬톤(1904~1988)은 안나 파블로바(1881~1931)의 춤에 감명 받고 발레리노가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한 공부는 그를 무용수보단 안무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그는 1935년부터 새들러스 웰즈 발레와 로열 발레의 전신인 빅 웰즈의 무용수 겸 안무가로 초청받아 이후 35년간이나 재직한다. '가장 영국적인 안무가'라는 평을 듣는 애쉬톤은 대체로 푸근하고 서정적이고 가족적이며 아기자기하고 짜임새가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다. 극적 구성의 발레를 선호하지만, 이야기의 긴장감보단 춤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 본 영상물은 2017년 6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애쉬톤의 위와 같은 성격이 잘 드러나는 세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세 작품에서 애쉬톤의 음악 사용법이 빛을 발한다. 세 편 모두 명곡을 모티프 삼아 태어났다.

– 1964년 작 '꿈'은 멘델스존의 매혹적인 성격을 적용한 것이다(60분/아카네 타카다 · 스티븐 맥레이). 프랑크의 '교향적 변주곡'에서 모티프를 얻은 1946년에 발표한 동명의 '교향적 변주곡'은 순수한 움직임과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빛난다(21분/마리아넬라 누에즈 · 바딤 문타기로프). 1963년 작 '마그리트와 아르망'은 리스트의 여러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안무한 것으로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이다(40분/제나이다 야노프스키 · 로베르토 볼레).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들의 화려함 춤을 보는 재미는 물론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명곡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지휘는 엠마누엘 플라송이 맡았다.

– 보너스 영상에는 '꿈'과 '교향적 변주곡' 소개, '마그리트와 아르망'에 출연하는 제나이다 야노프스키 인터뷰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해설지에는 각 작품의 내력과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다.

OpusArte OABD7251 [4Blu-ray]

## 로열 오페라에 올려졌던 모차르트 오페라 다 폰테 (DA PONTE) 3부작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Special Price]

**1.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어윈 슈로트(피가로)/ 미아 페르손(수잔나)/ 도로테아 뢰슈만(백작부인)/ 제랄드 핀리(백작)/ 리낫 샤함(케루비노) 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 가든

**넵트렌코의 연인, 어윈 슈로트의 넘치는 매력을 만난다**

2006년 2월 코벤트가든 실황을 수록한 이 BD는 가수들의 열연, 뛰어난 무대연출, 일사불란한 기악앙상블이 삼위일체를 이룬 최상의 공연을 수록하고 있다. 넵트렌코의 연인이라는 화제 덕분에 한층 더 유명해진 우루과이 출신의 기대주 어윈 슈로트가 핸섬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통해 매력만점의 피가로를 열연하였고, 미모와 음악성을 겸비한 매력만점의 소프라노 미아 페르손이 사랑스런 수잔나를 연기하였다.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 도로테아 뢰슈만은 연기와 노래 모두에서 최상의 백작부인을 들려주며, 중견 바리톤 제랄드 핀리의 음흉한 백작 캐릭터 역시 출중하다. 주역 4인방을 든든히 보조하는 조연가수들의 앙상블도 빈틈이 없으며, 특히 영국이 자랑하는 지성파 테너 필립 랑그리지의 깜짝 변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데이비드 맥비카의 연출은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곳곳에 삽입된 코믹한 연출을 통해 오페라 부파라는 이 작품의 본령을 충실히 재현해내었다. 탄탄한 앙상블로 우아하고도 세련된 음악드라마를 이끌어낸 안토니오 파파노의 지휘 역시 훌륭하다.

OpusArte OABD7033D [2 DISC]

**2. 모차르트: 돈 조반니 [한글자막]**

마리우시 크비에치엔(조반니)/ 알렉스 에스포시토(레포렐로)/ 말린 비스트룀(안나)/ 베로니크 장(엘비라)/ 엘리자베스 와츠(체를리나) 외/ 니콜라 루이조티/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환상적인 시각효과를 통해 드러나는 '나쁜 남자'의 치명적인 매력**

호색한의 대명사인 '돈 환'의 이야기를 다룬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는 로렌초 다 폰테의 리브레토에 의한 이른바 '다 폰테 3부작'의 두 번째로 완성된 작품이다. 1787년 프라하에서 초연된 이후 모차르트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의 하나로 손꼽혔으며, Operaase에서 집계한 2012/13년 시즌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된 오페라의 10위에 올랐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본 영상물은 2014년 2월 영국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공개되었던 카스퍼 홀텐의 최신 프로덕션을 담고 있다. 캐스퍼 홀튼은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기는 프로젝션 영상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코믹, 관능, 공포, 사랑이 어우러진 이 오페라의 다양한 속성들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현재 돈 조반니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폴란드 출신의 바리톤 미라우시 크비에치엔은 빼어난 연기와 가창을 통해 '나쁜 남자'의 치명적인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돈 조반니의 세 여인들을 노래한 말린 비스트룀, 베로니크 장, 엘리자베트 와츠 역시 각자의 배역들에 최적화된 활약상을 보여준다.

OpusArte OABD7152D [Blu-ray]

**[보조자료]**

– 1972년 폴란드의 크라코프에서 태어난 바리톤 마리우시 크비에치엔은 최근 빈 슈타츠오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메트 등의 정상급 오페라무대들에서 돈 조반니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특히 그는 같은 배역으로 2006/07시즌 시애틀 오페라가 선정한 '올해의 가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3년 크라코프 오페라에서 퍼셀의 '디도와 아에네아스'의 아에네아스로 오페라무대에 데뷔했던 그는 〈피가로의 결혼〉의 피가로와 백작, 〈라 보엠〉의 마르첼로, 〈팔리아치〉의 실비오, 〈코지 판 투테〉의 굴리엘모,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엔리코 등의 배역을 거치면서 새로운 오페라 스타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

– 지휘자 니콜라 루이조티는 도날드 러니클스의 후임으로 2009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나폴리의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의 음악감독에도 임명되면서 현재 미국과 이탈리아의 주요 오페라극장 두 곳을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오페라 레프트와 이외에도 콘서트 지휘자로서도 각광받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객원지휘자를 맡기도 했다.

–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인 카스퍼 홀텐은 2000년 불과 27세의 젊은 나이로 덴마크 왕립 오페라의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유럽 오페라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2011년에는 영국 로얄 오페라의 오페라 디렉터에 임명되었고, 현재까지 이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 왕립 오페라 시절 그가 연출했던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는 국내에도 영상물로 선보였었는데, 이는 2009년 그라모폰 어워드에서 '최우수 DVD'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가 연출한 오페라의 영상물 중에서 국내에 출시된 것들로는 코른골드의 〈죽음의 도시〉와 차이코프스키의 〈에프게니 오네긴〉(모두 OpusArte) 닐센의 〈가면무도회〉(Dacapo), 메노티의 〈고야〉(Arthaus) 등이 있다.

**2016 로열오페라 실황 –**

**3.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한글자막]**

세몬 비치코프(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얀 필립 글로저(연출), 코린 빈터스(피오르딜리지), 안젤라 브로저(도라벨라), 다니엘 베흘(페란도), 알레시오 아르두이니(굴리엘모), 요하네스 마틴 크란즐(알폰소)

**오페라를 뮤지컬의 양념으로 요리한 '코지 판 투테'**

2016년 1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오른 '코지 판 투테'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보다 더 재밌다. 얀 필립 글로저의 연출은 원작의 배경인 18세기를 지우고, 오늘날의 의상과 풍습으로 무대로 채운다. 여기에 그만의 익살도 녹아들어가 있다. 비치코프의 지휘가 시작되자 두 커플은 객석으로 난입하며 독특하게 막을 열어 젖힌다. 그러면서도 원작도 묘하게 겹쳐놓는다. 굴리엘모와 페란도는 고전적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 고전과 현대가 겹쳐진 무대에서 감미로운 2중창을 선사한다. 결혼적령기인 듯한 젊은 4명의 남녀 성악가들도 작품의 사실감을 더한다. 한바탕의 소동극이지만, 모두들 모차르트의 일가견이 있는 성악가들이라 매 장면마다 비치코프의 지휘에 맞춰 진지하게 노래한다. 이러한 음악적 진지함 역시 이 프로덕션만의 매력이다.

OpusArte OABD7237D [Blu-ray]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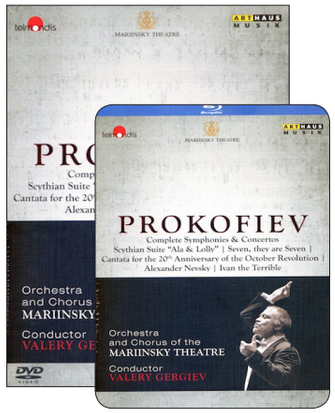
– 우리말로 '여자란 다 그래'로 번역되는 '코지 판 투테'는 모차르트의 대표적 희극 작품이다.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자매와 약혼한 젊은 장교 굴리엘모 및 페란도가 철학자 알폰소 앞에서 약혼녀들의 미모와 정숙함을 자랑한다. 알폰소는 내기를 걸며 한바탕 소동이 시작된다. 알폰소는 약혼자들이 전쟁터로 나갔다며 거짓말을 한다. 그러고 나서 약혼자들이 기사로 변장하고 자매를 찾아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구애한다.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두 자매는 유혹에 넘어가는데, 원래 연인이 아닌 사람에게 빠지게 되지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 2016년 1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을 담은 이 프로덕션에는 얀 필립 글로저가 연출을 맡았다. 1981년생의 젊은 연출가는 원작의 배경인 18세기를 지우고, 오늘날의 의상과 풍습으로 무대를 꾸민다. 마치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보는 뮤지컬 같다. 여기에 자신만의 익살을 더하기도 한다. 세몬 비치코프의 지휘가 시작되자 두 커플은 객석으로 난입하며 독특하게 막을 열어 젖힌다.

– 그러면서도 원작도 묘하게 겹쳐놓는다. 자매가 무대 위의 막을 열자 굴리엘모와 페란도는 고전적인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 두 사람은 2막의 유명한 2중창 '불어라 우리의 노래, 부드러운 서풍을 타고'를 선사한다. '무대 속 무대'가 펼쳐지는 이러한 환상적인 장면들이 이 작품의 진가를 더욱 높인다.

– 페란도 역의 다니엘 베흘은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으며, 알레시오 아르두이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의 작품을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뮤지컬 배우 같은 피오르딜리지 역의 코린 빈터스, 도라벨라 역의 안젤라 브로저의 외모와 노래 역시 인상적이다. 카메라들은 뮤지컬적 감각이 녹아든 현장을 잘 잡아내고 있다. 보너스 트랙으로 무대디자이너 벤 바워의 인터뷰(3분 20초/영어자막)가 들어가 있다.

## Arthaus Box




Arthaus 109329 [7DVDs]
Arthaus 109330 [4Blu-ray]

**러시아 음악의 과거와 현주소,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영상물

### 2016년 프로코피예프 탄생 125주년 기념 프로젝트 게르기예프! 프로코피예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데니스 맞추예프 · 다닐 트리포노프(피아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바이올린), 율리아 마토츠키나(메조소프라노) 등

**게르기예프! 프로코피예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프로코피예프 탄생 125주년을 맞은 2016년. 음악왕국을 대표하는 '차르' 게르기예프와 그의 수족 같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차르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8명의 기악 독주자와 4명의 성악가, 배우가 프로코피예프의 수무(20) 작품을 차이콥스키 콘서트홀과 마린스키 극장에서 한 해 동안 선보였다. 3장의 블루레이에는 작곡가의 일생을 따라 스무(20) 작품들이 연대기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치 '작품으로 살펴보는 프로코피예프의 삶' 같다. 이외 다큐멘터리 '길 위의 프로코피예프'(90분/영어 자막)과 두툼한 부클릿(95쪽/영 · 불 · 독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박스물은 프로코피예프의 기념비이자, 전세계에 우뚝 선 러시아 음악가들의 포트폴리오와 같다. 실연으로 만나기 힘든 프로코피예프의 대형 합창작품과 칸타타를 만나는 것 역시 큰 매력. 정리하자면 박스물 하나로 러시아 음악의 과거와 현주소,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다.

## C Major Box

C Major 746104 [6Blu-ray]

### 2008~2012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오프닝 모음 외 [스페셜 가격]

피에르 불레즈 ·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 다니엘 바렌보임/ 빈 필하모닉(오프닝), 바렌보임/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사이먼 래틀/ 베네수엘라 국립어린이교향악단

**그들이 막을 열 때, 잘츠부르크의 잔치가 시작된다**

1920년부터 시작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최고의 휴양지이자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이는 성지와도 같다. 특히 축제의 서막을 여는 오프닝공연은 성대한 축제의 개막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축제 100주기인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굵직한 주요 공연을 묶어 내놓고 있다. 이 박스물은 2008~2012년의 오프닝 콘서트를 모았다. 매해 공연을 맡는 빈 필과 함께 불레즈와 바렌보임의 피아노(2008), 아르농쿠르(2009), 바렌보임의 브루크너 '테 데움'(2010), 불레즈의 말러와 베르크(2011) 등 성대한 축제에 걸 맞는 음악가들이 각자의 장기를 꺼내놓는다. 여기에 바렌보임/서동시집 오케스트라(2007)와 래틀/베네수엘라 국립어린이교향악단(2013)도 수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축제가 사랑하고, 전세계인이 사랑한 지휘자들의 향연이다.

1. 200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_ 729104 [BD]
2.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_ 729204 [BD]
3.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한글자막] _ 706904 [BD]
4. 201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한글자막] _ 711004 [BD]
5.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2007년 잘츠부르크 콘서트 _ 706704 [BD]
6.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엘 시스테마 [한글자막] _ 717004 [BD]

C Major 745904 [5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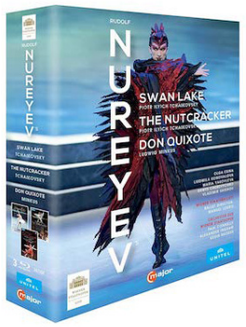
### 2009~2018 브렌겐츠 페스티벌 모음(5종) [스페셜 가격]

타티아나 세란(아이다), 헥토르 산도발(세니에), 노르만 라인하르트(타미노), 베르나르다 보브로(파미나), 관쿤 유(류), 가엘르 아르케(카르멘)

**브레겐츠, 야외오페라 테크놀로지의 결정판 모음**

오스트리아의 보덴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야외공연을 위한 하이테크놀로지의 결정판이다. '토스카'의 무대가 영화 '007-퀀텀오브솔러스'에 공연 장면이 나오는 등 공연장은 하나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했다. 아이다(2009/10), 안드레아 세니에(11/12), 마술피리(13/14), 투란도트(15/16), 카르멘(2017/18)을 하나로 모은 박스물로 명작의 오페라를 대형무대를 수놓는 개성 있는 연출가와 무대로 만나볼 수 있다. 올해(2018)는 작년에 이어 '카르멘'을 선보인다. 각 영상물마다 무대를 조감하는 전체쇼트와 출연진들의 표정을 담아내는 세밀한 연출력이 돋보이며 백스테이지 영상 등이 보너스트랙으로 담겨 있어 브렌겐츠의 '비밀'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1. 베르디: 아이다 _ 702404 [BD]
2.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 [한글자막] _ 708004 [BD]
3. 모차르트: 마술피리 [한글자막] _ 713804 [BD]
4. 푸치니: 투란도트 [한글자막] _ 731504 [BD]
5. 비제: 카르멘 [한글자막] _ 742304 [BD]




C Major 747104 [3Blu-ray]

### 누레예프 프로덕션으로 만나는 3대 발레 '백조의 호수', '호두까지 인형', '돈키호테' [Special Price]

**1.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C major 717704 [Blu-ray]**
루돌프 누레예프(안무)/ 올가 에시나(오데트, 오딜)/ 블라디미르 쉬쇼프(지크프리트)/ 알렉산더 잉그램/ 빈 국립오페라 관현악단

**2.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C major 718304 [Blu-ray]**
루드밀라 코노발로바(클라라)/ 블라디미르 쉬쇼프(드로셀마이어, 왕자) 외/ 빈 국립발레단/ 폴 코넬리/ 빈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

**3. 누레예프의 '돈키호테' C major 742504 [Blu-ray]**
빈 국립극장 발레단 & 오케스트라, 데니스 체레비츠코(바질 역), 마리아 야코블레바(키트리 역), 루트비히 민쿠스(음악), 빈 국립극장 발레단, 마누엘 레그리스(발레 감독), 케빈 로데스(지휘), 빈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 EuroArts Box

EuroArts 2056968 [20DVDs]

###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카라얀 · 래틀 · 아바도 · 바렌보임 · 두다멜(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르네 콜로 · 알라냐(테너), 오터 · 코제나(메조), 플레트뇨프 · 우치다 · 키신(피아노), 벤게로프 · 길 샤함 · 무터(바이올린) 등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달군 음악의 황홀한 순간들**

유로아츠가 베를린 필의 카라얀 시대인 1977년부터 래틀 시대인 2015년까지 20개의 제야음악회를 20장의 DVD에 담아 박스물을 출시했다. 베를린 필 '최초'의 제야음악회이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중계한 1977년 베토벤 '합창' 공연을 서두로 한 카라얀의 공연 영상(1977 · 83 · 88년), 다양한 음악들을 흥미롭게 연결한 아바도(1996~2000년)와 래틀(2002~2008년 · 2011 · 14 · 15년)의 공연 영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외 바렌보임(2001년)과 두다멜(2010년)이 객원지휘를 맡았다. 화려한 성악가들과 연주자들 역시 제야음악회에서 빼놓을 수 없다. 1977년 르네 콜로부터 2015년 안네 소피 무터까지 스타 음악가들이 베를린의 마지막 밤을 수놓는 순간 역시 황홀하다. 해설지(71쪽 구성)에는 공연사진, 간략한 곡목, 출연진이 수록.

EuroArts 2060988 [20DVDs]

###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

EUROPAKONZERT 25 DVD | Anniversary BOX 1991 – 2015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지휘자들을 보면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비롯하여 다니엘 바렌보임,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등등이 등장하고, 솔리스트로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트루스 뫼르크, 플라시도 도밍고, 리사 바티아쉬빌리 등등이 출연한다. 그 외에 연주회가 열리는 해당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보너스 영상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총 41시간이 넘는 연주시간을 수록하고 있어 많은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는 그 자체로서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생생한 역사이자 유럽 도시들의 현재진행형을 담은 기념비적인 예술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자]**

Leonidas Kavakos, violin/ Magdalena Kožená, mezzo-soprano/ Gautier Capuçon, cello; Cañizares, guitar/ Alisa Weilerstein, cello/ Violeta Urmana, soprano/ Vadim Repin, violin/ Lisa Batiashvili, violin/ Truls Mørk, cello/ Radek Baborák, french horn/ Daniel Barenboim, piano/ Maria João Pires, piano/ Gil Shaham, violin/ Emmanuel Pahud, flute/ Swedish Radio Choir/ Mikhail Pletnev, piano/ Christine Schäfer, soprano/ Emanuel Ax, piano/ Eric Ericson Chamber Choir/ Anatoli Kotscherga, basso/ Kolja Blacher, violin/ Sarah Chang, violin/ Frank Peter Zimmermann, violin/ Plácido Domingo, tenor/ Cheryl Studer, soprano/ Bruno Canino, piano/ *Berliner Philharmoniker

**[지휘자]**

Sir Simon Rattle/ Claudio Abbado/ Pierre Boulez/ Gustavo Dudamel/ Bernard Haitink/ Mariss Jansons/ Zubin Mehta/ Riccardo Muti





## Berliner Philharmoniker LP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erliner Phil. BPHR160082 [3LP + Book]
[180g 독일제작]

** LP 애호가들에게 적극추천 **
Half-Speed Mastering로 최고의 퀄리티

### 아바도 – 베를린 필 "라스트 콘서트" – Vinyl Edition [한정반]

- ▶ 3LP Set (180g Vinyl)
- ▶ Half-Speed Mastering
- ▶ 40 pages hardcover booklet
- ▶ 24-bit download code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2013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함께 한 마지막 콘서트 실황**

카라얀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이끌었던 아바도. 래틀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간헐적으로 베를린 필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지만, 2014년 1월에 세상을 뜬 만큼 이 공연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즐겨 연주했던 두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부에서는 멘델스존의 부수음악 '한여름 밤의 꿈' 발췌를, 2부에서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 그것. '한여름 밤의 꿈'은 SONY 레이블로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전곡을 CD로 발매한 적이 있는 반면, 환상 교향곡은 DG에서 시카고 심포니와 CD를 녹음했을 뿐 베를린 필하모니커와는 음반을 제작한 적이 없다. 그러한 만큼 아바도가 베를린 필과 남긴 유일한 환상 교향곡으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이전 음반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생기차고 투명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어 전곡연주가 아님에 아쉬움이 남는다. 성악가로는 소프라노 데모라 요크와 메조 소프라노 스텔라 도우페시스가 함께 했다. 환상 교향곡은 아바도 특유의 디테일과 보다 강한 응집력 및 다이내믹이 인상적임을 LP를 통해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

**Half Speed Mastering / 하프 스피드 마스터링이란?**

하프 스피드 마스터링은 래커 커팅시에 커팅의 속도와 오디오 프로그램의 재생속도를 모두 절반의 속도로 낮추어 커팅하는 기법으로 특히 전 주파수 대역에서 골고루 충실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낮은 출력에서도 초고역대의 주파수까지 커팅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낮은 스피드의 커팅으로 인해 더 깨끗한 그루브(소리골)를 얻을 수 있는 마스터링 기법.

**[Contents]**

Mendelssohn: A Midsummer Night's Dream - incidental music, Op. 61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Deborah York(soprano), Stella Doufexis(mezzo-soprano)

Berlioz: Symphonie fantastique, Op. 14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 EOS LP

www.guitarquartet.ch

eos guitar quartet

eos 234200–13
[2LP / Limited 한정반]

###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EOS GUITAR QUARTET)
### [30주년 기념 2LP/ Limited 한정반]

스위스 취리히를 거점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eos guitar quartet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기타 앙상블로서 취리히에서 공부하고 연주와 작곡을 겸비하고 있으며, 강렬한 호소력과 진정성이 가득한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기타음악을 선보이고있는 사중주단이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과 포크뮤직 등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번 에오스 기타사중주단 30주년 기념 한정반으로 발매된 2장의 LP에는 기타 특유의 명징한 음색과 궁극적인 하모니를 보여주는 에오스 기타사중주단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다.

[수록곡]

**Disk: 1**
1. Vivaldi: Concerto in G Major, RV 532, Arr. for Guitar Quartet: I. Allegro
2. Rossini: Il barbiere di Siviglia, IGR 76: Ouverture *(Arr. for Guitar Quartet)*
3. Bizet: Carmen Suite No. 2, IGB 15: VI. Danse Boheme *(Arr. for Guitar Quartet)*
4. Falla: El amor brujo, IMF 1: VIII. Danza ritual del fuego *(Arr. for Guitar Quartet)*
5. Piazzolla: Las 4 estaciones portenas: III. Primavera portena *(Arr. for 4 Guitars)*
6. Paco de Lucia: Cositas Buenas
7. Ralph Tpwmer: Confluence: III. Allegro *(Live)*
8. Stravinski: Suite No. 2, Arr. for Guitar Quartet: I. Marche
9. Stravinski: Suite No. 2, Arr. for Guitar Quartet: IV. Galop

**Disk: 2**
1. Saint-Saens: Danse macabre, Op. 40 *(Arr. for Guitar Quartet)*
2. Leo Brouwer: Acerca del cielo, el aire y la sonrisa: I. La ciudad de las mil cuerdas *(Arr. for 4 Guitars)*
3. Leo Brouwer: Acerca del cielo, el aire y la sonrisa: II. Fantasia de los ecos *(Arr. for 4 Guitars)*
4. Muthspiel: Eos
5. Paulo Bellinati: A furiosa
6. Fred Frith: Fair
7. Sekunden, Quarten und weitere Sehenswürdigkeiten
8. John McLaughlin: Lighthouse
9. Jurg Kindle: Kalimba



***Coming soon** – Now on DVD & Blu-ray:*
**"EUROPAKONZERT 2018 from Bayreuth"**

EUROARTS

# EUROPAKONZERT 2018 from Bayre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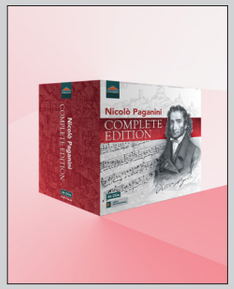
Eva-Maria Westbroek _*soprano*
Berliner Philharmoniker
Paavo Järvi

2064508 [DVD]

2064504 [BD]

**Ludwig van Beethoven:**
Leonore Overture, No.3 in C major, Op. 72; Symphony No. 4 in B-flat major, Op. 60

**Richard Wagner:**
Wesendonck Lieder




**표지사진**
Dynamic 파가니니 전작 녹음 음반
40CDs

**〈아울로스뉴스〉 2018년 9월호**
통권 제 77호 발행 2018년 9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